

특집

百好(일백 백 종은 호)

다시 읽는 『견고싶은도시』(1998-2019)
『견고싶은도시』, 어디까지 가봤니?
도시와 『견고싶은도시』의 공명(共鳴)
『견고싶은도시』, 올 멤버십 클리어

시선과 관심

아이들을 위한 동네, 모두를 위한 도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시민활동가들, 도시를 바꾼다
통합놀이터 소개하기-해외편

견고 싶은 도시

『견고싶은도시』는 (사)견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에서 발간하는 개간지입니다.



이천십구년
겨울
100호

값 15,000원

(사)견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는 1994년부터
보행권 확보, 마을만들기, 생활문화 보존 등을 통해
걷기 편한 도시를 넘어서

시민 누구나 걷고 싶어하고
삶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연대 홈페이지 www.dosi.or.kr
도시연대 페이스북 www.facebook.com/urbanactionnetwork
도시연대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10-150820 (예금주 견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이천십구년. 겨울.

발행인 김기호
편집인 안현찬
편집위원 김민수, 박승배, 소준철, 이민재, 조성빈, 조은혜, 최성용
담당자 안영주·이재원

04	편집장입니다	100호를 맞은 기쁨, 200호를 준비하는 차분함_안현찬	04
06	특집_百好 일백백, 좋을호	01 다시 읽는 『걷고싶은도시』(1998-2019)_소준철 02 『걷고싶은도시』, 어디까지 가봤니?_안현찬 03 도시와 『걷고싶은도시』의 공명(共鳴)_최성용 04 『걷고싶은도시』, 올 멤버십 클리어_박승배	07 15 24 31
38	시선과 관심	보행 아이들을 위한 동네, 모두를 위한 도시_최이명 도시재생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시민활동가들, 도시를 바꾼다_이영범 통합놀이터 통합놀이터 소개하기-해외편_기아미·맹수현	39 45 50
54	고정칼럼	도시스케치 문화유산과 보존..._김정대 여행하는 삶과 사람 여행하는 삶과 사람_이호정 도시를 읽다 불안에서 탈립으로_안인섭 매체와 도시 도시공간 개발의 새로운 논리: 프로젝트 파이낸스_김민수	54 56 58 60
63	회원기고	제발, 답신이라도 주세요! 주무관님_조현세 사람을 끄는 도시 2_박광희 도시연대 25주년 행사 관찰기_이민재	64 68 70

제100호

발행처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발행일 2019.12.10. 등록번호 종로바00161
주소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69길 3-4, 2층 전화 02-735-6046 전자우편 dosi1994@daum.net
편집디자인 (주)에스앤에이커뮤니케이션즈 ① 02-335-0615 인쇄 삼립인쇄(주) ① 02-469-7111

100호를

맞은 기쁨,

200호를

준비하는 차분함

편집장
입니다

안현찬 걷고싶은도시 편집위원장

표지를 보고 많이 놀라셨나요? 『걷고싶은도시』가 통권 백호(100호)를 맞았습니다. 1996년 1월 20일 발행된 『시민교통』 창간준비 1호를 시작으로 무려 24년을 이어왔습니다. 중간에 몇 호를 건너뛰거나 반년 이상 휴간하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폐간하지 않고 100호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도시연대 안팎의 축하를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집위원회는 매 호 기획이 부담인데 통권 100호는 오죽했을까요. 막막한 마음에 국내 유수의 계간지나 시민단체 기관지는 100호를 어떻게 냈는지 사례조사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펴본 황해문화, 녹색평론, 월간 참여사회(참여연대 기관지) 100호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100호를 기념하는 특집을 꾸리되 목차의 절반 이상은 원래 해오던 코너를 유지하고 있더군요. 특집으로 가득 채울 여력이 없었나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들떠서 크게 잔치를 벌이기보다는 차분하게 하던 일에 집중하는 독심이 느껴졌습니다. 200호, 300호까지 계속 갈 거니까요.

『걷고싶은도시』도 이런 차분함을 닮고 싶어 특집과 고정 코너를 함께 엮어 통권 100호를 기획했습니다. 특집은 <걷고싶은도시, 돌아보기>입니다. 편집위원들이 직접 과월호를 뒤적거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우리의 역사를 글로 썼습니다. 특집의 시작은 『걷고싶은도시』 전반을 훑어보는 아카이브 전문가 소준철 님의 글입니다. 『걷고싶은도시』가 다룬 주제와 지역은 각각 최성용 님과 제가, 『걷고싶은도시』를 만들어 온 사람은 박승배 님이 맡았습니다. 박승배 님의 글은 통권 100호를 맞아 편집위원, 독자위원, 고정필진, 역대 담당간사, 편집출간을 맡은 SNA까지 모든 관계자가 모인 “백호모임” 후 기입니다. 이번 호 표지와 제목이 정해진 것도 이 자리입니다.

도시연대 활동 분야를 다루는 <시선과 관심>은 올해 고정 필진을 맡아주시는 세 분의 연재 계획에 따라 예정됐던 글을 실었습니다. 어김없이 좋은 글을 보내주셔서 내년 재계약(?) 준비를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고정칼럼>은 특집과 연재의 콜라보로

기획했습니다. 김정대, 안인섭, 이호정 님은 십년이 넘게 『걷고싶은도시』에 연재를 해주셨습니다. 과월호에서 이 분들의 옛 원고를 발견할 때마다 한결같은 애정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첫 원고를 보여드리고 이에 맞춰 이번 호 원고를 부탁드렸습니다. 세월을 이겨낸 세 분의 연재가 있었기에 가능한, 통권 100호에 걸맞은 상징적인 기획이라고 자평합니다.

200호, 300호를 바라보는 차분함을 말했지만, 이번 호 구성을 소개하고 보니 저희가 벅찬 가슴을 완전히 다스리진 못했나 봅니다. 특히 표지의 “호랭이”(이채원 간사님이 붙인 애칭)는 편집위원회가 끝내 숨기지 못한 입꼬리의 미소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만큼 독자들도 이번 호를 즐기고 각자가 『걷고싶은도시』와 함께 해 온 시간을 추억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00호를 만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가슴 뭉클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0월쯤 들려온 『인물과 사상』, 『샘터』의 휴간 소식은 잡지의 시대가 저물어간다는 신호 같았기 때문입니다. 『걷고싶은도시』도 꽃길만 걷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선배 잡지들이 100호에서 보여준 차분함과 독심은 200호, 300호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달래는 겸손이 아니라, 걱정과 불안을 감추는 다짐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걱정을 달래고자 잡지의 위기를 다룬 기사를 읽다가 천정환 교수님의 『시대의 말 욕망의 문장』을 접했습니다. 이 책은 1945년 창간한 『백민(白民)』부터 2014년 창간한 『BOON』까지 123편의 잡지 창간사를 수록하고, 한국 현대 잡지의 명멸과 부침을 문화사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더군요. 맨 첫 장에는 영원한 잡지는 없고, 그것이 문화사의 법칙이며, 그러니 잡지도 끝없이 모양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쓰여 있습니다.

잡지의 명멸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인가 봅니다. 『걷고싶은도시』도 시대에 부응해 변화해야 지속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집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때마침 『샘터』가 독자와 기업 후원으로 휴간하지 않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앞으로 흔들릴 때마다 이정표로 삼을 수 있도록, 『걷고싶은도시』 창간호에 실린 故 강병기 대표님의 글 한 구절을 옮기며 통권 100호의 권두언을 끝맺겠습니다.

“도시를 마음 놓고 걷고 싶다는 것은, 도시라는 삶터를 보다 친근하고 즐겁게 해보자는 생활적 욕구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겨달라는 인권적 욕구입니다. 걷고 싶은 도시는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첫 출발입니다. 살맛나는 도시에 살고 싶어 하는 모든 주민이 바로 도시연대의 주인입니다.”

百好(일백백 좋은호)

- 01 다시 읽는 『걷고싶은도시』(1998-2019) _소준철
- 02 『걷고싶은도시』, 어디까지 가봤니? _안현찬
- 03 도시와 『걷고싶은도시』의 공명(共鳴) _최성용
- 04 『걷고싶은도시』, 올 멤버십 클리어 _박승배

다시 읽는 『걷고싶은도시』 (1998-2019)

소준철 걷고싶은도시 편집위원

내가 읽은 첫 『걷고싶은도시』는 2017년 봄호였다. 그때 나는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의 회원이 아니었고, 편집위원도 물론 아니었다. 어떤 자리에서 편집위원장 안현찬을 알게 되었고, 그는 “노인과 도시”라는 2017년 봄호의 특집에 내 글을 한 편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내 입장에서는 낯선 시민단체와 낯선 기관지였다. 그러다 편집위원장이 기관지를 만드는데 같이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해왔고, (지금 생각하면 대체 무얼 믿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 모두가 동의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2017년 여름호부터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따져보면 나는 2017년과 2018년에 발행된 8권에 2019년에 발행된 2권까지 총 10권을 읽은 셈이다. 나는 기껏해야 10권을 읽었지만, 회원들 가운데 누군가는 99권을 고스란히 받아들고 읽었을 테고, 또 어떤 누군가는 그보다 적은 수를 읽기도 했을 것이다. 모두가 각기 다른 수의 잡지를 읽었을 텐데, 그럼에도 모두에게 공통점은 있다. 『걷고싶은도시』가 기관지인 만큼, 독자 모두가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즉, 우리가 도시연대라고 부르는 이 시민단체의 회원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그렇기에 100호를 ‘기념’하며 지난 1~100호의 지난 잡지들을 돌아보는 일이란 몇 권의 기관지를 읽었던 간에 기관지와 우리 도시연대의 지난 시간을 기념하는 일이다.

그럼 『걷고싶은도시』와 도시연대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도록 하겠다. 이 내용은 뒤의 편집위원장 안현찬과 편집위원 최성용의 글에서 더 자세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을테니, 이 글에서는 『걷고싶은도시』의 개략적인 역사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삼기로 하겠다. 미리 말하자면 『걷고싶은도시』가 100호까지 나오기까지 1996년 『시민교통』의 시기, 『걷고싶은도시』의 창간 이후 도시연대의 주요 조직의 소식지였던 시기(1998~2001), 사무처와 객원기자의 기획체제 도입기(2002~2004년), 격월간



지의 안정적인 체제(2005~2014), 계간지 체제(2015~현재)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시민교통』(1996)에서 『걷고싶은도시』(1998)로의 변화를 우선 살펴보자. 『걷고싶은도시』는 1998년 처음으로 발간된다. 그렇지만 이 잡지를 맨 첫 번째 기관지로 볼 수는 없다.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의 전신인 시민교통환경센터에서 낸 첫 잡지가 바로 『시민교통』이다. 계간지로 발간되었는데 제호가 독특하다. “창간준비 X호”. 창간준비라는 딱지를 떼지 못하고, 네 번만 나오고는 발행이 중단됐다. 한 해가 지나 1997년에는 별다른 기관지가 발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1998년 7월이 되어 우리의 『걷고싶은도시』(1998/7·8월호)가 “창간호”란 제호로 발행됐다. 왜 그랬을까? 1997년에 발행이 안 된 이유는 시민교통환경센터가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로 단체의 이름을 바꾸며 생긴 영향 때문으로 여겨진다.

둘째, 『걷고싶은도시』의 1998년 창간 당시부터 2001년까지 주요 조직의 소식을 전하던 시기를 살펴보자. 앞서 말한 대로 『걷고싶은도시』는 1998년 창간호부터 격월간호로 발행됐다. 1998년부터 2000년대까지 다른 특

집 주제는 다음과 같다: “인사동”(1호, 1998년 7·8월호), “보행조례”(2호, 1998년 9·10호), “주민참여에 대하여”(3호, 1999년 1·2월호),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의 주민참여, 내가 생각하는 걷고 싶은 도시”(4호, 1999년 3·4월호), “장애가 없는 도시만들기”(5호, 1999년 5·6월호), “우리에게 길이란”(6호, 1999년 7·8월호), “서울시의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에 대하여”(7호, 1999년 9·10월호), “도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8호, 1999년 11·12월호), “새 즈문해의 도시, 희망찾기”(9호, 2000년 1·2월호), “수도권 신도시 무엇이 문제인가”(10호, 2000년 11·12월호), “도시와 광장”(11호,



2001년 3·4월호). “권두언 - 칼럼 - 특집 - 진단 - 사람과 도시 - 도시이야기”가 이 시기 구성의 주요한 골자고, 여기에 1999년 5·6월호부터는 “지역의 숨소리” 코너를 마련해 도시연대의 지역 활동 소식을 전한다. 해당호의 “지역의 숨소리” 코너를 살펴보면 도시연대 일산모임의 윤인숙이 “일산에서 자전거 타기”를 기고하고, 인사동 지역의 역사문화 탐방과 어린이 프로그램, 인사동 사랑방토론회 소식을 전하고, 중림동 충정 1-3지구 재개발공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송도영(현재 한양대 교수)의 “제3세계 도시 산책” 코너가 운영됐다. 그러나 2000년 1·2월호 이후 『걷고싶은도시』 발행이 멈췄다. 같은 해 11·12월호가 나왔고, 다시 몇 달을 멈춘 후 2001년 3·4월호가 나왔다가 다시 발행이 멈췄다. 이 시기 『걷고싶은도시』의 특징은 당시 도시연대의 다양한 회원모임의 소식을 전달하는 매체였다는 점이다. 그 시기에 운영하던 모임은 (1) 시민교통환경센터, (2)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3) 도시연대 일산모임, (4) 공익소송센터, (5) 시정지기단, (6) 도시연대 연구실로, 해당 모임에서 글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창간호 목차

- [권두언] 걷고싶어야 좋은 도시다
- [칼럼] 도시공간 문제의 공론화
- [특집] 인사동
 -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 인사동의 활성화 방안과 과제
 - 인사동 단상
 - 노래촌 인터뷰
- [제언] 희망의 도시 가꾸기
- [진단]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 [사람과 도시] 인사동
- [도시이야기] 청주편
- [도시 문화] 도시문화의 현실과 과제
- [자치행정소개] 성북구 송정동 동사무소
- [단체 소개] 성남시민모임
- [해외 단상] 오스트레일리아 보행자 협회
- [도시연대 활동소식]
- [도시연대 회원모집]

셋째, 『걷고싶은도시』가 격월간지로 안정적인 발행이 이루어진 시기는 2002년 5·6월호에서 2004년까지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객원기자의 취재와 편집을 기초로 발행됐다. 당시 글을 실었던 객원기자는 총 여섯 명으로, 주현희, 김보람, 홍정기, 최성용, 조지선,

정선희다. 2002년에 인상적인 점은 현재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최성용(12호)과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연재를 해 온 이호정(12호)의 등장이다.

그리고 이전의 사무처 소식을 전하는 방식에서 사무처와 특집기자에 의한 기획방식으로 잡지의 구성이 변했다. “특집 - 다니기 편하세요? - 이철호의 마을이야기”를 주된 꼭지로 두고, “사무국 인사”, “강병기와 함께 보는 우리 그리고 도시”, “도시스케치”, “도시 고발”, “서평”, “살맛 나는 도시를 위하여”, “도시연대 소식”, “회원 마당”, “가로세로 낱말 퀴즈” 등을 사이사이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변했다.

이 당시 다뤄진 특집은 다음과 같다: “노점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12호, 2002년 5·6월호), “어린이 통학로를 보행자 우선 도로로”(13호, 2002년 7·8월호),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광장만들기”(14호, 2002년 9·10월호), “함께 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15호, 2002년 11·12월호), “우리는 모두 세상의 주인”(16호, 2003년 1·2월호), “청소년 교통학교는...”(17호, 2003년 3·4월호), “자전거가 가는 길”(18호, 2003년 5·6월호), “길을 건너자, 힘차게, 당당하게, 편안하게”(19호, 2003년 7·8월호), “한평공원의 의미찾기”(20호, 2003년 9·10월호), “2003년 축제를 돌아보다”(21호, 2003년 11·12월호), “뉴타운 시범사업의 현주소”(22호, 2004년 1·2월호), “피맛골, 골목길에서 소통하자!”(23호, 2004년 3·4월호), “서울광장, 열린 것인가”(24호, 2004년 5·6월호), “서울시, 도심부 관리를 포기하는가”(25호, 2004년 7·8월호), “2004년 도시연대 주요 사업을 소개합니다”(26호, 2004년 9·10월호), “무장에 도시를 시작하자”(27호, 2004년 11·12월호).

넷째, 『견고싶은도시』(2005~2014)의 특징은 『견고싶은도시』가 “갈등, 소통 그리고 공존의 이야기”를 신선했다고 표방한 점이다. 당시 운영위원장인 김기호는 2005년 1·2월호의 칼럼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2002년 5·6월호 목차

- [특집] 노점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노점상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김수현)
 서울시의 노점정비 정책 (이승우)
 노점상과도 대화하자구요 (최인기)
 노점상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인태연)
 함께 쓴다면 문제 있나요? (김은희)
- [도시 감성] 새우잠 (이가림)
- [살맛나는 도시를 위하여] 치바 시 초등학교의 경관 탐험(곽동윤)
- [우리동네 가꿈이] 신림동 도림천을 가꾸는 할아버지 도림천에는 유채꽃이 핀다 (정영태)
- [다니기 편하세요?] “애 너 왜 사람들 다니는데 자전거 타고 다녀?” (최성용)
- [도시스케치] 시간의 흔적들 ... 가회동 31번지 (이호정)
- [살며 생각하며] 도시인을 위한 변명 (주현희)
 춘천, 닭갈비보다 좋은 것들 (김보람)
 들어가면 안될까 (정선희)
 당신은 오늘 얼마만큼의 하늘을 보았습니까 (강해룡)
 이 아이들은 알고 있을까? (정규선)
- [도시연대 회원탐방] ‘인천을 살 맛 나는 도시로 ...’
 도시연대 인천모임을 가다
- [도시연대 총회, 그날의 이모저모] (신성묵)

의 하나는 갈등”으로 “이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화합의 한마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광장뿐만 아니라”, “길이 바로 사람들의 중요한 생활공간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기관지의 개편에 있어 실질적인 권두언의 역할을 했던 글로 여겨지는데, 기관지의 성격이 마치 도시와 주거지를 만들 듯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를 담는 그릇”이 되길 바랐던 당시의 바람이 전해진다.

구성을 살펴 보면 “특집-칼럼-이 도시를 걷다(이호정)-도시스케치(김정대)-공간의 도시(최성용)-회원탐방-회원마당-사무국은 지금” 등을 골자로 여기에 다양한 글이 더해졌다. 따져보면 2002년부터 이어져 온 최성용과 이호정의 글이 주축이 되었고, 2006년부터



터는 김정대의 연재가 이뤄졌다. 운영에 있어 앞서 시도한 객원기자 체제가 보다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편집후기를 보면 최성용(이후 간사, 부장 등을 역임), 김지연(2005~2006), 안인섭으로 객원기자의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각 기자가 연재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사무처의 김은희, 박승배, 맹기돈, 최성용 등이 번갈아 가며 도시연대 회원을 만나 꾸린 ‘회원탐방’ 코너를 꾸리고, 회원들의 글이 지속적으로 실렸다. 2010년 5·6월호~2012년 11·12월호는 이소영 편집위원장과 차희영 객원기자, 사무처 담당 실무자, 이렇게 3인의 편집위원회를 꾸려 특집 주제를 선정했다. 규모는 작았지만 사무처 중심의 발행에서 회원 중심으로 나아가려는 시도였다. 표지는 2005년에서 2010년 같은 디자인으로 나왔고, 2011년 한 번의 리뉴얼을 거쳐 2014년 1·2월호까지 발행됐다. 그러나 2014년 3월 다시 발행이 멈췄다.

다섯째, 2015년 『견고싶은도시』가 다시 발행됐다. 새로운 시기의 기관지는 계간으로 발행되고, 온라인 뉴스레터인 <도시연서>와의 이원화를 통해 체제를 바꾸었고, 다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집 기획뿐만 아니라 전체 책의 구성과 섭외, 교정까지도 도맡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여기에는 사무처의 상근자와 객원기자를

역임한 회원들의 활동이 어려워지고, 기관지 업무를 사무처가 홀로 맡기 시작하자 발행에 차질이 생겼다는 사정이 있다. 격월간이었던 이전과 달리 계간지로 발행됐고, 이전의 사무처 소식은 온라인 뉴스레터인 도시연서를 통해 발송하고, 계절별로 주요한 이슈를 묶어 내는 계간지로 발행해 나갔다. 구성은 “편집장입니다-특집-고정칼럼(도시스케치, 시선과 관심(보행·마을만들기·생활문화), 여행하는 삶과 사람, 아빠와 만드는 마을만들기, 매체와 도시)”으로 크게 간결해졌고, 현재까지 이 틀이 유지되고 있다.

특집의 구성을 살펴보자. 2015년에는 당시의 사회적 이슈를 다뤘고, 그 내용은 “규제완화와 일상생활”, “마을을 팔아먹자”, “메가프로젝트 여전한가 새로운가”, “도시이용티켓”을 다루고 있다. 2016년에는 지역으로 관심을 돌려 “마포”, “인천 배다리”, “진안”, “영도”을 다뤘고, 2017년에는 사회적 집단을 대상으로 “노인과 도시”, “호모 나이트쿠스와 도시”, “반려동물과 도시”, “중국동포와 도시”를 다뤘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의 계획으로 도시재생을 다뤄보기로 했다. 그래서 “갈거나 다르거나 세운×용산”, “조선×통영”, “가계×군산”, “대학×안암”을 다뤘지만, 편집위원들의 피로도로 인해 2019년 봄호를 내지 못했다. 여기에는 2018년 겨울호에 실린 “편집장입니다”에서 밝힌 대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특집을 구성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분명 존재한다. 돌아보면 대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사정을 드러내고 논의를 나누기 힘든 사회적인 구조가 작동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해 2019년 여름호부터는 사회적 이슈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다시 변경했고, “인천 내항, 시민 참여는 열리는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다뤘고, 이번 100호에 다다랐다.

한 권의 잡지를 내는 일은 편집위원회와 사무처, 그리고 디자인과 인쇄를 맡아주는 SNA 커뮤니케이션즈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물론 연재기사를 때에 맞춰 보내주는 훌륭한 필자와 기고에 응해준 감사한 필자들의 덕분이기도 하다. 『걷고싶은도시』가 발행되는 최근의 과정을 소개하는 것 역시 독자들에게는 흥미로운 일일지 싶어 과정을 소개하며 마무리를 해보려 한다. 편집위원은 한 권의 기관지를 내기 위해 두 세 번의 기획회의를 진행하고, 한 번의 교정·교열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사무처에서는 때마다 편집회의를 돕고, 원고를 수합하고 배분하고, 디자인과 인쇄 과정을 담당하고, 배송까지 진행하고 있다. 100호를 준비하는 과정만 하더라도 9월 19일 가을호의 최종적인 점검과 함께 100호의 대략적인 기획안을 내놓았다. 여기에서 100호의 특집 주제 선정과 기획 방향을 어느 만큼 설정하고, 10월 14일 100호의 기획회의를 진행했다. 특집의 원고를 청탁하고, 고정칼럼의 연재 여부를 확인하고, 10월 28일 100

호 출간을 기념하는 독자위원과의 공동 기획회의(?)를 가졌다. 이후 원고의 마감 기일인 11월 15일이 되면 원고를 수합하고, 미처 받지 못한 글을 받아 편집위원들의 교정·교열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SNA커뮤니케이션즈에 원고를 발송하고, 잡지의 형태를 갖춘다. 12월 2일이 되면 최종적인 검토를 하고, SNA커뮤니케이션즈에 최종적인 수정을 요청하고 12월 말이면 기관지가 발행된다. 기관지가 모두 도시연대 사무처에 배달이 되어오면 사무처에서 하나씩 봉투에 넣고, 주소가 인쇄된 라벨지를 봉투에 붙인 후, 담당 간사가 차에 기관지를 가득 싣고 우체국으로 달려가 회원들에게 발송한다. 사실 이 과정은 비단 편집위원회가 구성된 2015년 이후의 일 뿐만은 아닐테다. 이전에는 객원기자들이 이 자리를 대신했었고, 사무처와 SNA커뮤니케이션즈와 같은 외부의 협력자가 늘 함께 했다. 백번 정도 비슷한 일이 반복된 셈이다. 앞으로도 이 과정이 반복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한 권의 『걷고싶은도시』가 어떤 한 사람 안에 대해 다양한 시점을 모을 수 있길, 여러 권의 『걷고싶은도시』가 모여 공간과 주제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매체가 되길 바란다. **이천**

숫자로 보는 『걷고싶은도시』 1호에서 99호까지



『걷고싶은도시』 글쓴이가운데에서 글을 많이 실었던 회원들

원고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	555명
특집 수	99개
기사	1,340개
기사 지면	6,277쪽
기사 당 지면 수 평균	4.7쪽

순위	글쓴이	글의 수	첫 번째 게재 글	마지막 게재 글
1	최성용	78	2002년 5·6월호	2019년 여름호
2	이호정	76	2002년 5·6월호	2019년 가을호
3	김정대	73	2003년 7·8월호	2019년 가을호
4	박승배	59	2006년 7·8월호	2019년 가을호
5	안인섭	57	2004년 7·8월호	2019년 가을호
6	김은희	41	1996년 1월호	2019년 가을호
	안현찬	41	2010년 10·11월호	2019년 가을호
8	김민수	23	2005년 3·4월호	2019년 가을호
	강병기	23	1996년 7월호	2007년 7·8월호
	윤인숙	23	1999년 5·6월호	2014년 3·4월호
11	차희영	22	2006년 9·10월호	2014년 3·4월호
12	강순천	19	2002년 7·8월호	2012년 7·8월호
	김정호	19	2013년 7·8월호	2019년 가을호
13	김지연	17	2004년 3·4월호	2006년 11·12월호
14	김연금	16	2000년 1·2월호	2013년 11·12월호
15	맹기돈	15	2010년 1·2월호	2015년 겨울호
	최정한	15	1996년 1월호	2018년 봄호
17	이소영	14	2003년 11·12월호	2013년 7·8월호
18	김기호	13	1998년 9·10월호	2017년 여름호
19	이영범	12	2003년 9·10월호	2019년 가을호
20	전소영	11	2005년 3·4월호	2008년 9·10월호
	소준철	11	2017년 봄호	2019년 봄호
22	이철호	10	2002년 9·10월호	2004년 5·6월호
	이윤철	10	2005년 3·4월호	2009년 7·8월호
	조현세	10	2005년 3·4월호	2019년 가을호
25	이민재	9	2017년 가을호	2019년 봄호
	안영주	9	2017년 여름호	2019년 봄호
	안상욱	9	2002년 9·10월호	2012년 7·8월호
	장민경	9	2011년 5·6월호	2012년 11·12월호

기사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순위	기사 수	핵심어
1	124	마을(마을만들기)
2	42	보행
3	40	교통
4	36	공원(한평공원 포함)
5	22	골목
6	19	놀이터
7	18	광장

특집 기사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순위	특집 수	기사 수	핵심어
1	12	53	마을(마을만들기)
2	7	34	서울(북촌, 인사동, 대림동, 문정동, 세운/용산)
3	6	38	도시연대
4	6	26	보행(걷는다, 걷고 싶은)
5	4	17	광장
6	3	14	인천(배다리, 내항)
7	3	11	자전거
8	2	17	교통
9	2	9	커뮤니티 디자인, 커뮤니티 공간
	2	9	강병기
11	2	8	놀이터
	2	8	골목

『걷고싶은도시』, 어디까지 가봤니?

안현찬 걷고싶은도시 편집위원장

• 『걷고싶은도시』라는 지역 안내서

돌이켜보면 『걷고싶은도시』는 떠들썩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설서인 동시에 어떤 지역을 소개하는 안내서이기도 했다. 여느 안내서처럼 관광지, 맛집, 숙소 추천은 없지만, 그 지역의 가치, 현안, 활동, 사람을 소개하는 게 매력 있는. 그래서 이 글은 통권 100호를 맞아 『걷고싶은도시』가 그동안 어떤 지역을,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보고 싶다. 처음엔 연재 코너나 특집 위주로 『걷고싶은도시』가 지역을 다루는 방식을 가볍게 짚어볼 것이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다룬 지역을 뽑아 원고의 이력을 추적해볼 것이다. 이 글이 독자들에게 잊고 지내던 어떤 지역에 얽힌 추억을 되살려 『걷고싶은도시』과월호를 오랜만에 꺼내 보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다.

• 『걷고싶은도시』가 지역을 다루는 방식

초창기 『걷고싶은도시』에는 <지역탐방>과 <해외단신>이라는 코너가 있었다. <지역탐방>은 부산, 군산 등에서 도시연대와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단체나 사업을 소개했다. <해외교통>으로 시작한 <해외단신>은 유럽, 미국, 일본, 남미 등 세계 각국 도시의 최신 정책이나 사례를 소개했다. 시민운동의 전성기이자 정보화 사회의 초창기였던 1990년대 후반, 『걷고싶은도시』는 지역과 세계를 넘나드는 그야말로 ‘글로벌(glocal)’한 잡지였다. 지역을 다루는 또 다른 단골 메뉴는 고정필진들의 연재 코너였다. 2002년 5·6월호의 <도시스케치>부터 2019년 가을호의 <여행하는 삶과 사람>까지 이어지는 이호정님의 연재에는 본인이 직접 다녀온 지역의 서정적인 글, 사진, 스케치로 차곡차곡 쌓여있다. 2002년 전후로 연재됐던 <이철호의 마을 이야기>도 이호정님

과 비슷한 듯 다른 감성으로 군산, 사북, 변산, 철원 등 빛바랜 지역 소도시로 독자들을 데려갔다. 그런가 하면 2013년 3·4월호부터 총 5편이 연재됐던 윤인숙님의 <산촌일기>는 경남 산청 한 곳을 배경으로 소박하고 매력적인 귀촌살이를 들려줬다. 지금까지가 회원들이 여러 지역을, 또는 한 지역의 시시때때를 다룬 경우라면, 편집진이 특집 주제를 기획해서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다룬 경우도 있다. 2014년까지는 중대한 현안이 있는 지역을 부정기적으로 다뤘다. 2004년 3·4월호의 <피맛골, 골목길에서 소통하자!>, 2005년 9·10월호의 <마침내 청계천이 하늘을 바라본다>, 2006년 9·10월호의 <龍山民族歷史公園

(용산민족역사공원)>, 2009년 11·12월호의 <배다리 에 무슨 일이?>가 대표적이다. 우리 도시에서 오래된 것이 파괴되고 새롭고 큰 것이 들어서는 전쟁터 같은 현장에는 중군기자처럼 『걷고싶은도시』가 있었다. 2015년부터는 편집위원회를 재구성하면서 지역 특집을 더욱 적극적으로 기획하기도 했다. 2016년은 한 해를 관통하는 특집 컨셉을 '지역'으로 정하고 계절마다 서울 마포, 인천 배다리, 전북 진안, 부산 영도를 다뤘다. 2018년은 연중기획 주제가 '도시재생'이었지만 특정 사업지역을 짚을 지어 서울 세운상가와 용산전자상가, 경남 통영, 전북 군산, 서울 안암동을 다뤘다. 중군 기자에서 큐레이터로 전업해서 체계적이고 엄선된 글

을 독자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던가. 이런 기획은 그 지역의 배경, 현안, 다양한 사례와 사람들로 특집을 구성하고 필자를 섭외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시 2015년 이전 방식과 적절히 섞어 <인천내항, 시민 참여는 열리는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다뤘다. 앞으로도 특집은 꼭 지역을 다루겠다고,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다루겠다고 정한 바는 없다. 하지만 『걷고싶은도시』가 주목해야 할 지역이 있다면, 편집위원회는 언제든 중군기자도, 큐레이터도 될 수 있다.

● 『걷고싶은도시』가 사랑한 지역

다음은 『걷고싶은도시』에 가장 많이 실린 지역 4곳을 뽑아 원고의 이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 제목만으로 검색했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짧은 기간, 더 적은 원고가 추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지역마다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십수 편씩이다. 이 글들이 쓰여진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지역의 흥망성쇠와 함께 도시연대의 활동 연대기가 엿보이기도 한다.

● 우리의 첫사랑, 인사동과 북촌

인사동은 기관지 제호를 『걷고싶은도시』로 바꾼 창간호의 특집이었고, 2012년까지 총 18편의 글이 실렸다. 17번째 글은 도시연대가 11년 동안 이어온 인사동 활동의 끝맺음을 고한다. 그래서 인사동은 『걷고싶은도시』의 헤어질 첫사랑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 초창기 도시연대 활동의 중심에는 인사동이 있었다. 아이들에 비유하자면 도시연대는, 1997년 '인사동 연구 모임'이라는 연습생 시절을 거쳐, 1998년 '인사동을 사

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사모)이라는 그룹을 결성해, <인사동지역 활성화 방안과 과제에 대한 시민토론회>라는 쇼케이스로 데뷔했다. 통권 1호인 1998년 7·8월호 특집인 <인사동>은 도시연대의 활동 방향과 포부를 밝히는 데뷔 앨범이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는 도시연대 인사동 활동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글이 『걷고싶은도시』 지면을 장식한다. 1999년 1·2월호에 실린 인사동 문화탐방 행사 후기 2편에는 "동아일보 지면의 행사 광고를 오려두고", "행사 열흘 전에 신청이 마감되는" 등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 펼쳐진다. 2000년 1·2월호에 실린 인사모 회원 김연희님의 활동 후기에는 힘들지만 즐거운 시민운동의 순수함에 대한 애정이, 김우창 공동대표의 칼럼에는 "보존의 노력이 참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경제적 기반 조성 계획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선구적인 제안이 담겨있다. 2002년 7·8월호에는 어린이날 인사동 거리문화 축제에 참가한 엄마와 아이들의 행복함이, 같은 해 9·10월호에는 최성용님이 갖 정비된 인사동길을 직접 걸어보며 들었던 '보기 좋은 거리와 걷기 편한 거리'에 대한 고민이 눈길을 끈다.

2003년 1·2월호에선 방수정님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해외 사례로, 같은 해 5·6월호에선 이호정님이 빼어난 스케치로 인사동에서 사라져 가는 것들의 가치를 포착했다. 2004년 9·10월호에는 도시연대 사무국이 5년 동안 이어진 인사동학교의 경과를 보고하고, 같은 해 11·12월호에는 인사동학교 참여자인 서행희님의 후기가 이어진다. 2005년 9·10월호 <회원탐방>에는 인사동과 북촌 관련 글에 종종 등장하는 인사모 핵심자 겸 패셔니스타인 이성미님의 인터뷰가 실렸다. 이 시기는 도시연대 사무국과 명망가보다는 직접 참여한 회원과 시민들의 목소리로 인사동 활동이 활발하게 표출되는 전성기였다.

하지만 2008년 7·8월호에서는 김은희 사무국장께서

연도	통권	필자	제목
1998	7·8월(1호)	인사모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발족 취지문
		이상헌	인사동 활성화 방안과 향후 과제
		김종록	너희가 인사동을 가질 자격이 있느냐
		알렌 찰스 헤이만	추억 속의 인사동
		김은희	인사동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1999	1·2월(3호)	정경순	인사동 역사문화탐방 후기 : 우리에게 인사동은...
		윤희운	인사동 역사문화탐방 후기 : 인사동 골목 옛보기
2000	1·2월(9호)	김우창	지속가능한 인사동 보존, 도시연대를 위한 단상
		김연희	우리에게 인사동은
2002	7·8월(13호)	고정민	애들아, 보물 찾으러 가자!
	9·10월(14호)	최성용	인사동 걷고싶은 거리, 인도로만 갈 수 있나요?
2003	1·2월(16호)	방수정	인사동길과 도시민의 심성
	5·6월(18호)	이호정	사라지는 것들에 대하여... 인사동 거리
2004	9·10월(26호)	도시연대 사무처	2004년 인사동학교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11·12월(27호)	서행희	인사동 돌아보기
2005	9·10월(32호)	이옥경	이성미씨의 인사동 사람 그리고 우리 문화 예찬
2008	7·8월(48호)	김은희	인사동에게 인사하다
2012	11·12월(73호)	안인향	오래된 기억의 장소, 仁寺洞에 대한 단상

11년간 이어진 인사동 활동을 되돌아보며 인사동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다. “오랜 세월을 했기에 종결짓는 것이 아니라 인사동에 대한 고정불변의 가치로 활동을 지속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다. 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지만, 웬지 영화 <봄날은 간다>의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라는 대사가 생각난다. 안인향님이 2012년 11·12월호에 기고한 마지막 인사동 글은, 마치 헤어진 연인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 지난 추억을 되새기는 듯한 느낌을 준다. 북촌은 도시연대가 인사동과 비슷한 시기에 주목하고 활동을 했던 지역이다. 『걷고싶은도시』에는 북촌과 인사동을 함께 다룬 글도 제법 많다. 북촌에 관한 글이 처음 실린 건 2001년이다. 3·4월호에선 노승대 북촌 문화센터 소장께서 북촌의 한옥이 현대도시에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가치가 있다고 제안했다. 비슷한 맥락으로 5·6월호에서는 이호정님이 북촌 한옥 지붕 너머로 종각역 삼성생명 타워와 남산타워가 보이는 풍경 스케치로 고정필진 첫 연재를 시작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도시연대가 진행한 북촌문화학교 참가 후기가 이어진다. 비슷한 시기에 인사동 관련 글이 대부분 인사동학교 참여 후기였던 것과 비슷하다. 2002년 9·10월호에 실린 3편의 후기에서는 참여를 계기로 도시연대를 알고서 “이 사회에서 누군가가 꼭 해야 할 너무나 소중한 일들이기에 작은 힘이나마 도울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 아름다운 순간을 만날 수 있다. 2003년 5·6월호에는 부임한 지 10개월 된 이경열 가회동장께서 도시연대와 함께 북촌문화학교를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기획한 일화를 적어 주셨고, 2004년 11·12월호부터는 시인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유기성님이 북촌문화학교 참가기를 3편에 걸쳐 연재해주셨다. 이경열님의 글은 에피소드가 재밌고, 유기성님의 글은 시인 특유의 재치있는 형용사들이 맛깔스럽다.

2007년에는 도시연대가 주도하는 북촌 사업 관련 글이 크게 늘었다. 그 해는 노무현 정부가 전국적으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을 시작했고, 도시연대도 북촌 주민들과 함께 이 사업에 선정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2007년 1·2월호에는 한평공원 특집의 하나로 재동초등학교 뒷담장 가꾸기 사업이 소개되었고, 같은 해 5·6월호에는 <도시박물관 북촌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뤘다. 이 특집은 도시연대가 “살고 싶은 북촌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난 7년간의 활동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계획을 다듬는 디딤돌 같은 역할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않았던지 2008년 『걷고싶은도시』에는 북촌 동료들의 손을 빌려 도시연대가 자성하는 기회가 잦았다. 2008년 5·6월호에는 도시연대로부터 “북촌모임에 대한 쓴소리”를 부탁받은 이숙, 임지은님이 각각 “북촌을 좀 더 자상하고 따뜻하게 바라보자”,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내실 있는 소통을 하자”는 제안을 하셨다. 같은 해 11·12월호에는 북촌 우리집게스트하우스 주인 겸 한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한사모) 회장인 박인숙님 인터뷰와 도시연대 자원봉사자인 박창준님의 봉사 후기가 실렸다. 각자의 진정성이 짙은 이 글들 역시 도시연대가 정부 사업을 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마음에 박아둔 말뚝처럼 읽힌다. 2010년부터는 도시연대도, 북촌도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 듯한 글들이 주로 실렸다. 2010년 3·4월호는 <도시연대 Hot Issue> 코너에서 지난 10년간 북촌 활동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담당자인 박승배 팀장을 장장 10페이지에 걸쳐 인터뷰했다. 이 글에서는 지나친 상업화로 인해 주거지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북촌에 대한 염려와 이에 대응하려는 도시연대의 성숙한 접근이 눈에 띈다. 2012년 3·4월호는 박원순 시장의 당선으로 마을공동체 붐이 일자 “아직 모관인 상태의 마을에서 벼를 베겠다고 낫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

는 <마을만들기, 현장에서 말한다> 특집이 실렸다. 이 특집에서 박인숙 한사모 회장은 지금 북촌은 대기업이나 투기자본의 진입 규제 등 정작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것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아쉬움을 토로한다. 『걷고싶은도시』는 한옥은 보존했지만 상업화에 잠식당하던, 정책적 지원과 주민활동이 움츠러들던 북촌의 불안한 순간을 스냅사진처럼 담고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북촌에 관한 마지막 글의 필자는 인사

동과 마찬가지로 안인향님이다. 당시 안인향 회원은 서울시 전문직 공무원으로 한옥 정책에 몸담고 계셨기 때문인 것 같다. 2012년 9-10월호에는 5개월 전 북촌 문화센터에 주민사랑방이 오픈한 것을 계기로 지난 12년간의 북촌 가꾸기 정책을 커뮤니티 디자인 관점에서 성찰하는 글이 실렸다. 하지만 여기에는 도시연대나 한사모의 역할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고, 인사동처럼 분명한 작별 인사 없이 북촌에 관한 글은 『걷고싶은도시』에 더 이상 실리지 않았다.

연도	통권	필자	제목	
2001	3·4월(11호)	노승대	문화와 도시	
	5·6월(12호)	이호정	시간의 흔적들... 가회동 31번지	
2002	9·10월(14호)	최경화	아이와 함께한 북촌에서의 하루	
		곽수경	북촌 학교에서	
		홍중훈	북촌 학교	
2003	5·6월(18호)	이경열	북촌문화체험 투어를 계획하면서	
2004	11·12월(27호)		북촌문화학교 참가기1-가을날, 아름다운 공부	
2005	1·2월(28호)	유기성	북촌문화학교 참가기2-예수, 부처, 공자가 한자리에 모이면 만사형통!	
	3·4월(29호)		북촌문화학교 참가기3-장자의 나비처럼 자유롭고 싶어!	
2007	5·6월(42호)	1·2월(40호)	이옥경	북촌이웃모임 시작 그리고 재동초등학교 뒷담장 가꾸기까지
			정석	왜 지금 북촌인가?
			이소영	일본 가나자와시 히가시야마지역이 북촌에 주는 함의
			이옥경	도시연대 '북촌문화투어'에 대한 소고
			박승배	기다란 골목과 네모난 하늘을 가진 집-북촌 주민 김현주씨 인터뷰
		도시연대 사무처	한평공원에서 마을로-살고싶은 북촌 만들기	
2008	5·6월(47호)	이숙	북촌 모임에 초대합니다	
		임지은	주민참여의 현재, 북촌 모임 참여기	
	11·12월(50호)	박창준	북촌은 나 사는 “우리동네”였다	
2010	3·4월(57호)	최성용	북촌은 사람이 사는 곳이다-박승배 팀장 인터뷰	
2012	3·4월(69호)	차희영	북촌 우리집게스트하우스-박인숙 회장 인터뷰	
	9·10월(72호)	안인향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간직한 오래된 풍경, 한옥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 **가끔이지만 묵묵한 걸음을 지켜본, 진안**

진안을 다룬 글이 처음 실린 건 2007년이다. 그 해에 진안은 파격적인 마을만들기 행정으로 각종 상을 받고 제1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마을만들기의 수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걷고싶은도시』가 관심을 가진 건 당연했다. 11·12월호 특집은 <농촌에 살 어리랏다>였고, 진안군청 마을만들기 담당이었던 구자인 박사께서 농촌 마을만들기의 어려움과 과제, 진안의 실험과 제안을 적어주셨다. 연장선상에서 2008년 11·12월호 특집인 <동아시아 마을만들기 비교연구 - 한국, 대만, 일본의 경험과 과제>에는 구자인 박사의 두 번째 글이 실렸다. 하지만 이 글 이후로 한동안 『걷고싶은도시』 지면에서 진안을 찾지 못했다. 8년 만에 진안을 다룬 2016년 가을호 특집의 <기획의 변>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다. “진안군을 벤치마킹한 더 많은 지자체에서,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더 눈길을 끄는 결과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중략) 외부의 관심과 인기가 줄어들고 독보적인 위상을 잃은” 것 같다고, 진안은 그대로인데 세상이 변했고, 우리를 포함한 세상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던 셈이다.

2016년은 『걷고싶은도시』 특집의 연중기획 주제를 ‘지역’으로 정한 해였다. 편집위원회는 여러 지역을 후보로 고심하다가 “진안이 과거에 도달했던 높이가 아니라, 지금도 (묵묵히) 추구하고 있는 깊이”에 주목해보자고 결정했다. 그렇게 가을호 특집인 <진안(鎭安)>에는 진안 마을만들기의 현재, 성과와 의의, 여전히 남은 과제와 도전을 다룬 8편의 글이 실렸다. 그 중 심수진님의 “어쩌다보니 진안”은, 편집장으로서 내게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이다. 몇 다리 건너 연이 닿은 필자께서 담담하고 솔직한, 그래서 너무도 생생한 보물 같은 글을 주셨다. 이 글을 쓰며 다시 읽어보니 농촌 마을만들기 버전의 “82년생 김지영” 같았다.

『걷고싶은도시』는 누구나 진안에 관심을 가질 때 함께

관심을 가졌고, 모두의 관심이 떠날 때 함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진안을 중요한 지역으로 다뤄왔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 하지만 8년이 지난 뒤에 우리 스스로 “더 디지만 제대로” 가고자 하는 진안의 묵묵한 걸음을 다시 주목한 점은 의미가 있다. 『걷고싶은도시』가 계속 발행된다면 아주 오래전에 다룬 지역이 언제든 다시 재조명될 수 있다는 가능성 말이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다시 『걷고싶은도시』가 진안과 동행하는 기회가 오길 기대한다.

● **우리가 가장 사랑한 도시, 인천**

서울광장, 광화문, 인사동, 북촌... 도시연대의 주요 활동 무대는 아무래도 사무실이 있는 서울이었다. 하지만 『걷고싶은도시』에 가장 긴 20년 동안, 가장 많은 29편의 글이 실린 도시는 인천이다. 인천 토박이인 최성용 편집위원은 ‘서울은 북촌, 인사동, 마포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서 왜 인천은 통으로 인천이냐고’ 늘 불만을 제기한다. 하지만 인천이 왜 『걷고싶은도시』가 가장 사랑한 도시인지를 살펴보면 인천으로 묶어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걷고싶은도시』에 실린 인천 지역은 크게 3곳이다. 부평 문화의 거리, 배다리, 인천 내항.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도시연대와 인연을 맺은 곳은 부평 문화의 거리이다. 부평 중심 상권인 문화의 거리는 대형쇼핑몰과의 경쟁, 상권 쇠퇴, 노점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1998년 결성된 상가번영회 주도의 활성화 운동으로 전국적인 성공 사례가 되었다. 도시연대가 부평 문화의 거리와 인연을 맺은 것도 1998년부터였고, 『걷고싶은도시』에는 1999년 3·4월호를 시작으로 2011년 9·10월호까지 총 10편의 글이 실렸다.

이 중 6편의 필자는 상가번영회 소속으로 활성화 운동

을 주도한 인태연 회원님이다. 활성화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거리 축제, 노점상, 간판정비 등 당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평가, 대안, 과제를 적극적으로 기고해주셨다. 하지만 그만의 외로운 활동이 아니라, 그의 곁에는 도시연대 인천 회원 모임이 있었다. 2000년 11·12월호, 2002년 5·6월호, 같은 해 7·8월호에는 도시연대 회원이 부평을 방문하거나, 인천 회원들이 모여 부평 문화의 거리 축제를 함께 준비하고 참여한 글들이 실렸다. 2011년 1·2월호 특집인 <도시연대, 이것 좀 합시다>에서 인태연님이 앞으로 도시연대가 전국 곳곳에 지부를 건설하는 소명을 다해 달라고 특별히 주문한 것은 본인의 경험에서 자연스레 우리나라 조연이다.

부평 문화의 거리 다음으로 『걷고싶은도시』에 등장하는 곳은 배다리다. 2009년 11·12월호 특집인 <배다리에선 무슨 일이>를 시작으로, 2016년 여름호 특집인 <배다리>까지 총 11편의 글이 실렸다. 배다리는 일제시대 일본으로 갈 쌀과 물품이 전국에서 모이던 곳이었고, 1980년대에는 인천 학생이면 누구나 참고서를 사러 오던 서점가로 유명했다. 그러나 2009년 인천시가 배다리 지역을 관통하는 산업도로 건설을 강행하자 지역주민, 인천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이 이에 반대하면서 도시연대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들의 요구와 인천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2009년 11·12월호 특집이었다. 산업도로 부지는 철거되었지만 도로 건설은 막아냈던 배다리는, 2016년에 다시 위기를 맞이했다. 인천시가 7년 만에 산업도로 건설을 다시 추진한 것이다. 이번에도 지역주민, 지역에 정착한 문화예술인, 인천 시민사회는 한 번 더 도로 건설을 반대했고, 『걷고싶은도시』도 연대하는 의미로 배다리를 여름호 특집으로 다뤘다.

도시연대가 배다리 지역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걷고싶은도시』에서 자주 다뤄진 데는 최성용 편집위원의 역할이 컸다. 인천 토박이인 그는 인천의 난개발을 염려했고, 도시연대 상근자 시절 본인 활동이 아니어도 부평

연도	특권	필자	제목
2007	11·12월(45호)	구자인	농촌 마을만들기 정책의 현장에서 본 실천과제 - 전북 진안군의 경험을 중심으로
2008	11·12월(50호)	구자인	농촌형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구축 -전라북도 진안군의 경험과 제안
2016	가을(88호)	곽동원	진안군 마을만들기를 말하다
		정문수	진안군의 내생적 발전론, 더디지만 제대로 걸어온 길
		박훈	전라북도 차원에서 진안 바라보기
		강신욱	5년 지난 진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아직도 가야 할 길
		최태영	나의 진안 마을활동기
		정병귀	하늘땅, 진안고원길
		심수진	어쩌다보니 진안
박승배	진안 답사기 : 진안은 깊다		

문화의 거리나 배다리 지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런 그가 『걷고싶은도시』편집회의 때마다 인천 지역 현안과 특집 주제를 제안했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을 답사하고 적절한 필자를 연결해줬기에 선 굵은 특집이 두 번이나 가능했다.

세 번째인 인천 내항도 마찬가지였다. 인천 내항은 기능이 대폭 정지된 상태에서도 시민들에게 개방되지 않은 국가기간시설이었다. 2016년 가을호에 실린 안병배님의 글은 이러한 인천 내항을 시민들의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 “내항에서 놀자”를 소개한 글이었다. 최성용 편집위원은 이 프로그램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인천 내항이 『걷고싶은도시』에 다시 실린 것은 2019년 여름호 특집인 <인천 내항, 시민 참여로 열리는가>였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인천 내항이 고밀고층의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재개발될 조짐이 보이자 인천 시민들은 공공적인 시민공간으로 만들 것을 본격적으로 요구했다. 2019년 인천 내항 마스터플랜은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순간이었고, 이 과정과 쟁점을 『걷고싶은도시』 특집으로 담았던 것이다. 최성용 편집위원은 인천을 통으로 묶는 것을 싫어하지만, 들여다보면 부평 문화의 거리, 배다리, 인천 내항은 인태연, 민운기, 최성용, 이의중 등 도시연대 인천 회원들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 이유로 인천은 『걷고싶은도시』가 가장 오랜 기간,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적극적으로 다룬 지역이 되었다.

● 모두 안녕들 한가요?

지난 25년 동안 시기마다 도시연대가 관심을 쏟거나 활동을 집중했던 지역이 있다. 그곳들은 고스란히 『걷고

싶은도시』에 흔적을 남겼다. 그래서 『걷고싶은도시』에는 어느 지역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활동했던 부침(浮沈)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들을 모으면 도시연대 활동의 부침과 변화가 된다. 헤어진 지 오래된 첫사랑 같은 곳, 잊고 지내다 문득 안부를 물은 곳,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는 곳이 제각각 다르지만, 그 모든 곳과 『걷고싶은도시』를 매개한 건 그 당시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도시연대 회원이었음을 새삼 깨달았다.

이 글을 쓰면서 인사동, 북촌, 진안, 인천은 물론이고 이성미, 박인숙, 구자인, 심수진, 인태연, 민운기라는 사람들의 안부도 궁금해졌다. 그들이 안녕하게 지내는지, 그들의 지역과 활동은 요즘 어떤지 인사를 건네고 싶어졌다. 지난 100호 동안 『걷고싶은도시』 지면에 소중한 글을 내어주어 고맙다는 말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다 보면, 진안처럼 잊고 지냈던 지역들과 『걷고싶은도시』가 다시 지면을 함께 꾸리는 좋은 기회도 생길 수 있겠다. **최성용**

연도	통권	필자	제목
1999	3-4월(4호)	인태연	새로운 삶의 터전, 부평 문화의 거리
2000	11-12월(10호)	헤이만	노~올~자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2002	5-6월(12호)	인태연	노점상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홍정기	인천을 살맛나는 도시로... 도시연대 인천모임을 가다
	7-8월(13호)	정윤미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놀아보자
2005	9-10월(32호)	김은희	부평 문화의 거리,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 가자
2006	7-8월(37호)	인태연	간판정비는 거리디자인의 일환이어야 한다
2008	7-8월(48호)	인태연 외 15인	부평재래시장의 위기와 방향 (부평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2009	11-12월(55호)	최성용	배다리에선 무슨 일이
		박영달	인천 도심재생사업 속에서의 배다리
		차희영	배다리 주민들은 지금..
		최성용	스페이스빔 대표 민운기 인터뷰
		배다리를 가꾸는 인천시민모임 외	배다리 역사문화지구 지정 촉구 시민서명운동 5천 5백명 돌파 기자회견문
2011	1-2월(62호)	인태연	도시연대 지부 건설의 소명
	9-10월(66호)	인태연	사람의 마을, 부평 문화의 거리
		맹기돈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해남 공부방
2015	여름(83호)	민운기	인천 동구의 도시재생 및 관광개발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2016	여름(87호)	민운기 최성용	도로로부터 마을을 지켜온 자난한 이야기
		민운기	전화위복 공유지, 사람을 위한 활동들
		권은숙	주인이 된 예술가, 예술가가 된 주민
		곽현숙	배다리에서 우리 빛깔 가꾸기
		이희환	배다리 보존운동과 도시에 대한 권리
	안현찬	그들은 섬이다, 배다리로 이어진	
	가을(88호)	안병배	인천 내항에서 놀자
여름(98호)	여름(98호)	최성용	인천 내항, 시민 참여는 열리는가
		박혜리	인천 내항을 위한 세가지 보물: 시간, 프로세스, 시민
		이의중	공유지를 땀성하다: 인천내항, “받아쓰다, 바다쓰다”
		인천도시공공성 네트워크	시민 없는 공공성은 없다
		인천시	유럽에서 확인한 ‘함께의 힘(보도자료)

도시와 『걷고싶은도시』의 공명(共鳴)

최성용 걷고싶은도시 편집위원

21년 동안, 도시는 변했다. 그리고 한결같다. 그 사이 『걷고싶은도시』는 목소리를 냈다. 어떤 목소리는 도시를 변화시켰고, 어떤 목소리는 흩어졌다. 『걷고싶은도시』에 실린 1,340개의 글 중에는 같은 대상과 현상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한 글이 많았다. 어떤 이야기는 반복해야 했고, 어떤 이야기는 다른 시각을 제시해야 했다. 『걷고싶은도시』에는 21년 동안의 우리 도시의 단면이 담겨있다. 백호가 됐으니 한 번 꺼내어 살펴볼만 하다.

●

인사동

『걷고싶은도시』 창간호의 특집은 ‘인사동’이었다. 창간호가 나온 1998년 7월은 인사동의 변화가 가시화되던 시기였다. 인사동은 좁은 골목과 한옥, 작은 가게에 전통, 문화업소가 모여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이는 사람들만이 즐겨찾는 일종의 매니아들의 공간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1997년 일요일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급속히 바뀌었다. 많은 시민들이 인사동을 찾았고, 이들을 쫓아 노점과 질 낮은 기념품이 대거 등장했다. 전에 보지 못한 많은 시민들의 방문은 기존 분위기와는 다른 물건의 판매와 화장품가게나 오락실과 같은 이질적인 업소를 야기했다. 대형 건물이 들어서고, 한옥은 철거됐다. 이런 변화에 인사동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발길을 끊었고, 인사동을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사동의 정체성과 지속성 가능성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시연대 회원들은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을 중심으로 도시연대는 인사동의 가치와 정체성을 찾고, 이를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 인사동이 여타 상업거리와 비슷하게 소비되는 흐름을 돌리려했다. 창간호 특집 자리는 ‘인사동’이 됐다. 창간호에는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의 발족 취

지문과 경과, 인사동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민토론회(인사동 상인,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종로구청, 서울시 등이 참석)의 내용이 담겨있다. “너희가 인사동을 가질 자격이 있느냐”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글에서는 인사동이 점점 기존의 색깔을 잃어가고 다른 상업지역과 비슷해지는 상황을 개탄하는 한 소설가의 심정이 절절하게 담겨있다.

1999년 11월, 인사동 중심 골목길에 있는 열두 개의 작은 가게가 한 건설사에 팔렸다. 열두 개의 가게는 하나의 필지로 묶여 있었다. 건설사는 열두 가게를 헐고 큰 건물을 지으려 했다. 그 열두 개의 가게는 인사동의 물리적 특징인 작은 가게와 좁은 골목길을 형성했고, 표구상, 민속도예, 도자기, 목공예, 금속공예, 그림, 한정식, 전통찻집 등 인사동을 대표하는 업종이었다. 인사동 곳곳에 이질적인 상점이 늘어가고, 재건축과 상업대형화가 진행되던 그 때, 인사동의 중심에, 인사동의 경관을 지켜주고, 인사동을 대표하는 상점들이 모여 있는 이 열두 가게마저 쫓겨난다면 인사동은 인사동다운 모습을 갖지 못할 것 같았다. 도시연대는 인사동 상인들과 함께 ‘열두 가게 살리기 운동’을 했고, 서울시와 종로구는 ‘건축허가제한조치(12월 22일)’를 내렸다.

2000년 1·2월호에 실린 “지속가능한 인사동 보존, 도시연대를 위한 단상”은 이런 외중에 쓰여졌다. 인사동에서의 보존 운동의 성공적 결말이 예상되는 이 때, 지속가능한 인사동의 보존을 위해 도시연대가 더 고려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다.

이후에도 인사동에 대한 많은 글이 실리는데, 그 중에는 ‘인사동 학교’와 관련된 글이 많다. 도시연대는 인사동에서 ‘민익두개 살리기’, ‘열두 가게 살리기 운동’, 3개의 한평공원, 골목에 난립하는 대형 건판을 정리하고 골목 안쪽 상권을 알리는 ‘공동간판제작’, ‘인사동 보물찾기’, ‘인사동 뉴스레터 제작’ 등 많은 활동을 했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인사동

학교’는 인사동의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진행한 의미있는 활동이었다. 변화된 인사동의 환경에서 더이상 도시연대의 역할이 없음을 직시한 도시연대는 2008년 마지막 인사동 학교를 끝으로 인사동에서의 모든 공식적인 활동을 마감한다. 그와 함께 『걷고싶은도시』 지면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인사동 관련 글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

광장

“서울시청 앞을 보행자 광장으로”라는 글이 실린 1999년 7월은 도시연대가 주축이 된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운동본부’의 서울 시청 앞 광장 조성 운동이 좌절된 지 2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1996년 결성된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운동본부’는 자동차로 둘러싸여 시민의 출입이 금지된 서울 시청 앞을 보행자 광장으로 만드는 것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수차례의 논의가 이어졌지만, 교통체증을 우려한 서울지방경찰청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운동본부’는 해체했지만, 도시연대는 지속적으로 서울 시청 앞 광장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시민의 공감대를 얻으려 노력했다. 1999년 7·8월호에 “서울 시청 앞을 보행자 광장으로”라는 글이 실린 배경이다. 2001년 3·4월호 특집은 ‘도시와 광장’이었다. ‘우리에게 광장의 의미’, ‘광장과 우리들의 생활’, ‘도시공간에서의 광장의 의미와 역할’, ‘생활 속의 광장을 위해’, ‘도시성 회복에 대한 제언, 미망에서 희망으로의 기대’라는 다섯 개의 글이 실렸다. 제목으로도 특집의 목적이 광장 조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얻으려 했음을 볼 수 있다.

2002년 여름, 광장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한다. 서울시

민은 붉은 악마가 되어 광장 문화를 만끽했다. 광장 조성에 대한 우호적이고 기대섞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걷고싶은도시』는 “우리 지금, 서울시청 앞 광장의 주인되다”를 통해 바로 지금이 광장을 만들 기회임을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 시청 앞을 보행광장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발표 직후 발행된 2002년 9·10월호의 특집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광장만들기”였다. 광장 조성이 확정된 상황에서 광장조성이라는 단순한 결과물만이 아닌, 광장을 조성하는 과정과 방향을 잘 만들어야 함을 말했다. 오랫동안 서울 시청 앞 광장 조성을 위해 노력했던 도시연대가 서울시와 시민들을 향해 낸 일성이었다.

서울광장이 개장된 2004년 3·4월호는 자동차로 둘러싸였던 서울광장이 시민의 광장이 된 것에 대한 기쁨과, 비민주적인 절차로 만들어진 광장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 담긴 호였다. 특집 제목 또한 이런 심정이 담겨있다. “서울광장, 열린 것인가(?)” 당시 ‘시청 앞 광장 조성 위원회’의 회장을 맡았던故 강병기 도시연대 대표는 “주민참여가 넘어야 할 벽”이라는 글을 통해 그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의 글은 “2004년 5월 초하루는 우리 도시연대에게 기념일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즐기차게 주장하고 건의하고 앞장서서 홍보해왔던 서울 시청 앞 광장이 ‘서울광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장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답답하고 서운하고 발이라도 동동 구르고 싶은 알곡은 심정으로 이 날을 맞이하고 ‘서울광장’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한다”로 시작한다.

황기원 교수의 글 “좋은 시작, 거친 과정, 나쁜 결과”, 심재옥 서울시 의원의 “서울광장조례, 누구를 위한 것인가?”는故 강병기 대표의 알곡은 심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준다. 당선작을 만들었지만 정당한 절차없이 잔디광장에 자리를 내줘야 했던 서현 교수는 자신의 글

에 “도시인가? 정글인가?”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로부터 15년 후인 2019년 가을, 『걷고싶은도시』는 세 번째로 광장을 특집주제(광화문광장 재구조화)로 잡는다. 20여 년 전부터 광장의 필요성을 역설하던 『걷고싶은도시』는 2019년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하겠다는 서울시에 반대하며 ‘광장 재구조화를 멈추라’고 말한다. 15년 전, 비민주적인 과정으로 만들어진 서울광장의 전철을 밟으려는 서울시에 제동을 건 것이다. 20여 년 전, 광장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알려줬던 『걷고싶은도시』는 이 때 또 다시 광장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꺼내들었다. 이영범 교수는 “광장은 무엇인가?”라는 글을 보내왔다.

● **걷고 싶은 도시, 보행**

‘걷고 싶은 도시’라는 주제는 『걷고싶은도시』와 뿔레야 뿔 수 없다. 그것은 『걷고싶은도시』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도시연대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니 창간호 제일 첫 글이 “걷고 싶어야 좋은 도시다”인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 글의 마지막 부분을 떼어보자.

“걷고 싶다는 아주 단순하고 순박한 소망은 자칫 깃털처럼 가볍게 홀대받는 사람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내지르는 절규에 가깝다. 걷고 싶은가 아닌가 하는 단순 명료한 잣대로 아주 간단하게 도시의 삶의 질을 판단할 수 있다. 걷고 싶은 도시는 좋은 도시이다. 걷고 싶지 않은 도시는 살고 싶은 마음이 일 수 없는 나쁜 도시이다. 자, 도시를 걸어보자.”

2호에서는 “보행조례”가 특집이 되었다. 사실 보행을 다루는 특집을 창간호가 아닌 2호로 잡은 것이 더 의아할 정도로 보행은 도시연대에게, 특히나 초기 도시연대에게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었다. 이런 의문은 창간호에 앞선 잡지들을 보면 조금 해소되는데, ‘창간준비

호’라는 이름으로 발행된 4권의 잡지를 온통 보행이야기로 채워버렸으니, 또 다시 보행이야기를 하기가 곤란했을 수도 있겠다. 정작 창간호 특집의 영예는 ‘인사동’에 내어주었고, 그 새를 잡지 못하고 2호의 특집을 꺾었다.

특집은 ‘서울시 보행조례 제정운동’의 과정과 내용, 조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안)’ 등을 다루고 있다.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운동본부’는 ‘시청 앞 광장 조성’과 ‘보행조례 제정’을 주요 활동목표로 삼았는데, ‘보행조례 제정’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보행조례로, 향후 우리나라에 보행 관련 법률과 조례 제정의 시발점이 되는, 우리나라 도시사적으로 보행권 확보에 이정표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큰 박수를 받을만한 일을 해 놓고서, 첫 번째 보행특집에서 보행조례 제정 과정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본다. “보행조례 제정운동을 되돌아 본다”라는 글의 일부를 살펴보자.

“그러나 시민단체의 연대는 형식에 그쳤고, 활동력이 뒷받침되지 못했으며, 소위 실무자 중심의 시민운동,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시민운동 전체가 안고 있는 한계가 이 운동에서도 입증된 것이다. 운동에 대한 관점도 주로 지역생활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시설물 개선을 중심으로 함으로써 시민운동으로서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던졌다... 우리는 우려한다. 우리의 운동이 올바르게 평가되지 않은 채 언론과 행정에 의지해 보행조례 제정운동이나 시설개선운동이 한때의 유행처럼 이벤트화되거나 혹은 프로젝트화되고, 종래에는 운동을 진행시키는 시민단체의 입지 강화나 행정 성과만으로 왜곡되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가로 공간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권리관계와 풍속, 문화 등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웃들의 참여없이 자기 운동의 존재가치와 성과만 내세우는 녹색과시즘적 사고

를, 1960-70년대 미국의 도시들처럼 백인 중산층을 위해 거리의 불결함과 무질서들을 물리적으로 재정비하는 가운데 거기에 연관된 도시빈곤과 약자들을 거리의 다른 곳 혹은 뒤편 음습한 곳으로 몰아넣었던 것처럼.”

내가 도시연대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러한 자기 성찰을 놓지 않는 것이다. 성과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근본주의에 빠지지 않는 실용적인 사고의 전통을 20년 전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고민은 향후 도시연대의 활동에 ‘주민참여’를 중심에 두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된다(바로 다음 호 특집도 ‘주민참여’이다).

그 새를 못 참고 4호에 다시 ‘걷기’를 특집으로 다룬다. 특집 제목은 “내가 생각하는 걷고 싶은 도시”.

걷고 싶은 도시에서 보행권, 보행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창간호 첫 글에서 밝혔듯이, 도시연대가 말하는 ‘걷고 싶은 도시’라는 것은 ‘살고 싶은 도시’의 다른 이름이었다. ‘걷고 싶은 도시’가 단순히 보행권 확보, 걷기 편한 도시로만 한정지어지는 것을 『걷고싶은도시』는 경계했다. “보행조례”에 이어 “내가 생각하는 걷고 싶은 도시”가 특집이 된 이유다. 이후 보행권 확보에 대한 특집과 ‘걷고 싶다는 것의 의미’, ‘길과 거리의 의미’ 등에 대해 꾸준히, 잊을만하면 한 번씩 특집으로 다뤄 주의를 환기시켰다. “장애가 없는 도시만들기(1999년 5·6월호)”, “어린이 통학로를 보행자 우선 도로로(2002년 7·8월)”, “길을 건너자. 힘차게, 당당하게, 편안하게(2003년 7·8월)”, “무장애 도시를 시작하자(2004년 11·12월)” 2005년 5·6월호에는 희망 섞인 특집 제목이 보인다. “행복하다.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가 있기에”

이 때는 광화문 네거리 횡단보도가 복원되고, ‘제2차 보행환경기본계획(안)’이 발표되는 등, 서울시가 보행 도시로 정책방향을 잡은 때이다. 오랫동안 자동차 중심의 도시를 보행 중심의 도시로 바꾸려 노력했던 도

시연대에게 2005년 봄은 기념하고 싶은 때였던 것 같다. 정석(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은 “서울, 자동차 도시에서 사람의 도시로 -서울시 보행환경 개선 10년을 되돌아보며-”라는 글에서 보행권 운동의 시작, 서울시 보행조례 제정,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횡단보도 복원 등 서울시의 보행환경이 개선되어 가는 과정을 찬찬히 살펴본다. 이 때의 특집 필진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 도시연대 이사, 서울시 보행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는데, 민관이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도시를 변화시켰던 당시의 희망적인 분위기가 읽혀진다.

이후로도 “도시에서 걷는 다는 것의 의미(2006년 1·2월)”, “우리네 보행 풍경을 묻다(2011년 11·12월)”, “자동차로부터 마을을 지키자(2013년 9·10월)”, “도를 아십니까(2014년 1·2월)” 등을 통해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의 보행환경, 견고 싶은 도시가 되었을 때 변화될 우리 도시 속의 삶 등을 특집을 통해 비중있게 다루었고, 계간으로 개편된 2015년 봄호부터는 보행을 다루는 고정 꼭지가 신설되어 매 호마다 ‘견고 싶은 도시’의 최전선인 보행에 대한 글을 실고 있다.

●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그리고 도시재생**

지금쯤 상식이 된 ‘주민참여’는 도시연대가 오래전부터 추구하던 가치이며 중심 운동 방향이었다. 1999년 1·2월호의 특집이 “주민참여”인 것만 봐도 도시연대에서 주민참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 1호의 특집은 “인사동”, 2호는 “보행조례”, 3호는 “주민참여”이다. 견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일은 행정과 전문가, 시민단체의 힘만으로 할 수 없고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은 도시연대의 모든 활동에 주민참여를 중심에 놓게 했으며, 이러한 생각은 『견고싶은도시』에도 반

영되었다. 1999년 1·2월호에서 실린 “우리 사회의 주민참여와 시민운동의 역할”이라는 글의 일부를 보자.

“동시에 주민참여 운동은 지역 만들기(가꾸기) 운동이다. 참여 목적이 바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흔히 도시계획이나 재개발 사업 등에 주민이 참여하는 대상화된, 절차화된 주민참여가 아니라 삶의 틀과 문화를 스스로 가꾸어가는 생활자치의 심화가 바로 참여의 궁극적 목표가 된다.”

같은 호에는 “일본의 주민참여형 마을 가꾸기”와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라는 제목의 글도 있는데, 아직 마을만들기라는 용어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초기의 모습을 보여준다.

『견고싶은도시』는 주민참여와 마을만들기의 가치를 알리고 확산시키는 방향의 원고를 연속적으로 실는다. 1999년 3·4월호는 특집 “견고 싶은 도시만들기의 주민참여”에서 견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방향과 과정에서의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후로도 한평공원 등 실제 현장에서 주민참여를 이뤄가는 과정에 대한 소개, 마을만들기 사례 등이 꾸준히 등장한다.

초기에는 주민참여와 마을만들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글이 주로 실렸다면, 2006년 5·6월호 이후에는 주민참여와 마을만들기의 제도화 방향에 대한 우려를 담은 글이 많이 등장한다. 2006년은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참여가 점점 제도화되어 가던 시점이다. 특집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를 통해 중앙정부 주도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을 대하는 상반된 시각이 드러난다. 우선 그동안 소중한 가치로 목소리를 내던 주민참여가 행정에 의해 제도화 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반가움이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식이 형식적, 계량적이고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

로 속도가 빠름을 지적한다. 지적의 뉘앙스에서는 애써 피어나고 있는 주민참여라는 싹을 제대로 가꾸보려는 조심스러운 몸짓이 느껴진다.

같은 해 11·12월호에는 “살고 싶은 삶터 만들기과 주민참여의 의의와 과제”라는 글이 등장한다. 지역과 주민을 기다리지 않고 각종 사업으로 앞서나가는 행정에 대한 우려를 재차 제기한 것이다.

2008년 5·6월호는 “마을만들기 지원제도 -조례 및 지원센터를 중심으로-”라는 특집 기사를 통해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출발한 제도화의 모습들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마을만들기와 주민참여를 대하는 『견고싶은도시』의 논조는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가치의 확산’에서 ‘제도화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으로 바뀐다.

많은 우려와 기대 속에 주민참여와 마을만들기는 제도화의 길을 걷는다. 많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주민참여와 마을만들기라는 이름의 사업이 일어난다. 이런 상황을 맞아 『견고싶은도시』는 마을만들기의 방향성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는데, “동아시아 마을만들기 비교연구(2008년 11·12호)”, “영구임대아파트에서의 마을만들기(2009년 1·2월호)”,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지평들(2011년 9·10월호)”, “에너지 절감 시대의 마을만들기(2012년 1·2월호)”, “마을만들기, 현장에서 말한다.(2012년 3·4월호)”, “커뮤니티 디자인은 해법이 될 수 있나?(2012년 9·10월호)” 등의 특집이 그것이다.

계간지 개편 이후로는 보행과 마찬가지로 마을만들기를 다루는 고정 꼭지를 신설, 마을만들기에 대한 기사를 꾸준히 다루고 있으며, 2016년 가을호에서는 특집 “진안”을 통해 마을만들기 1세대 지역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마을만들기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주민참여와 마을만들기는 도시재생이라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전국에 막대한 예산과 함께 흠뻑뿌려졌다. 2016년 가을호는 특집 “영도”를 통해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재 진행되

는 도시재생을 들여다보았고, 이후 2018년은 1년 기획으로 “세운X용산”, “조선X통영”, “가계X군산”, “안암”을 다뤄 각각 서로 다른 특색을 갖고 있는 네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재생의 상황을 독자에게 전달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2019년에는 마을만들기 꼭지를 도시재생으로 전환했고, 그 첫 기사로 이영범 교수의 “도시재생 사업, 보이콧 운동을 시작하자”라는 도발적인 글을 통해 국책 사업으로서의 도시재생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 **꾸준한 목소리들**

삶의 흔적과 지역에서의 관계와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견고싶은도시』에는 유난히 사라진 것들에 대해 아쉬워하고 이를 돌아보는 글이 많이 실렸다. 이는 특집 주제로 다루지기보다는 고정필진의 글과 기고글에서 많이 보이는데, “사라져가는 가회동에 대한 반추(1999년 11·12월호)”, “사라지는 것들에 대하여-인사동거리(2003년 5·6월호)”, “달맞이봉 사라지고(2005년 1·2월호)”, “기억이 사라져버린 공간(2005년 5·6월호)”, “추억으로 사라질 세운상가(2006년 1·2월호)”, “사라지고, 기억하고, 또 사라지고(2012년 3·4월호)” 등이 그러하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시민들의 기억이 담긴 공간이 너무도 쉽게 사라지는 세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전면철거 재개발에 대해서는 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특집이 몇 차례 실렸다. “뉴타운 사업의 현주소(2004년 1·2월호)”, “재개발로 일그러진 우리 도시의 자화상(2007년 9·10월호)”, “정말 다 부숴야겠니?(2010년 11·12월호)”가 그것이다. 2011년 3·4월호에는 특집 “고치며 살자”를 통해 전면철거 재개발이 아닌 다른 삶

의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도시에서의 소외, 소수자 등을 다루는데도 무심하지 않았다. 2003년 1·2월호 특집 “우리는 모두 세상의 주인”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이 도시 속에서 소외되는 현상에 대해 다뤘고 그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적용된 “소셜믹스(2006년 11·12월호)”가 지면에 등장하기도 했다. 백미는 2017년 시리즈됐다. 1년 동안 특집으로 ‘노인과 도시’, ‘호모나이트쿠스와 도시’, ‘반려동물과 도시’, ‘중국동포와 도시’를 다루면서 도시의 구성원으로 ‘동물’까지 등장했다. 특정 지역의 거의 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번의 특집을 실은 경우도 있었다. 2009년 11·12월호는 특집 “배다리에서 무슨 일이?”를 통해 2년 동안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를 막아낸 배다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다. 그로부터 7년 후인 2016년 여름호, 특집 “인천 배다리”를 통해 다시 만난 배다리는 자동차도로가 될 뻔했던 도로부지를 가꿔가는 배다리 사람들의 모습, 배다리 마을로 모여들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 시민들의 모습이 담겨졌다. 여전히 위태위태하게 도로 건설의 욕망에 맞서 마을을 지켜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삶과 동떨어지고 점점 상업화되어 가는 축제에 대한 문제제기도 꾸준했다. 1999년 3·4월호 “지역축제의 지역적 뿌리내림을 위한 소고”를 시작으로 2003년 11·12월호에서는 “2003년 축제를 돌아본다”는 특집을 통해 축제의 의미, 한국 지역 축제의 현실, 지역 내발적 축제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2005년 7·8월호는 특집 “축제의 홍수 속에서”에서 서울시의 하이서울페스티벌과 시민들의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을 동시에 다뤘다. 2015년 겨울호 특집 “도시이용티켓”에서는 부산불꽃축제와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유료화에 대한 쟁점을 다뤘다.

창간호에 “규제 개혁과 규제 완화”라는 글이 실리고, 계간지로 전환된 첫 호의 특집이 “규제완화와 일상생활”인 점도 흥미롭다. 현재 발등의 불이 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현재의 위헌판결이 있기도 전인 1999년 1·2월호가 ‘미집행 공원 시설의 조속한 공원 조성’을 촉구하고 있는 점도 놀랍다. 2011년 11·12월호에는 “쌍문동 한평공원과 공원일몰제”가, 2015년 봄호에는 “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 대비 정책 제안”이 실렸다. 이 밖에도 이 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많은 의미 있고 재미있는 글들이 『걷고싶은도시』를 채웠다. 21년 동안 100권의 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 냈던 목소리는 분명 우리 도시를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 도시연대 회원이 해 낸 일이다. 『걷고싶은도시』 100권을 만들어낸 도시연대 회원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넨다. **김원**

『걷고싶은도시』, 올 멤버십 클리어

박승배 걷고싶은도시 편집위원 · 도시연대 사무처장

•

Scene #1 : 모두의 계간지

『걷고싶은도시』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모두 모이면 좋겠다는 얘기가 어느 회의였는지, 어느 뒤풀이였는지 불쑥 나왔다. 그것이 올해 여름 엠티를 가지는 제안으로 달뻗다가 통권 100호인 겨울호 발행을 자축하는 ‘백호 모임’으로 성사됐다. “아마 이런 모임은 처음일 거예요. 편집위원, 독자위원, 고정필진, 편집디자인을 도맡아 주는 SNA까지 모여서 지난 99호를 즐겁게 돌아보고 이야기 나누며, 백호를 함께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모임을 시작하는 안현찬 편집위원장의 인사말로 한 권의 계간지는 도시연대가 25년간 발행한 기관지로, 참여하는 이들의 수고와 애착으로, 어느 모임보다 들뜬 기분으로 연결됐다. 넘버 원 클리어.

•

Scene #2 : 거의 모든 활동가가 담당자

현재 계간지 간사는 사무처의 이채원 팀장. 도시연대에 입사하며 안영주 간사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았다. 특유의 꼼꼼한 기획력과 추진력으로 백호 모임을 준비했다. 백호 모임을 사무처 활동가들도 함께했다. 되짚어보면 도시연대 거의 모든 활동가는 『걷고싶은도시』 담당 간사였다. 매달 열리는 편집회의 지원, 원고청탁, 들어온 원고의 교정 교열 관리, 발송업무, 독자위원회 운영 등을 맡았다. 잘 나온 계간지, 잘 안 나온 계간지 모두 마지막에는 활동가가 검수하여 발행한다. 『걷고싶은도시』는 도시연대 활동가가 도시사회 이슈와 관점을 엿볼 수 있는 학습 기회이기도 하다. 편집회의와 독자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제대로 진솔한’ 회의를 체험할 수도 있다. 넘버 투 클리어.

Scene #3 : 편집위원회와 독자위원회

제대로 진솔한 회의, 라고 자부한다. 사무처의 자화자찬일 수 있겠지만 참석자들도 정말 그렇다고 말한다. 편집위원회와 독자위원회는 모두 도시연대 회원이다. 회의비 지급 등 소정의 보상은 없다. 순수한 참여라서가 아니라(위원들의 순수한 참여 동기를 폄하하는 건 아니다) 사무처의 지급역량 부족 때문이다. 편집위원회와 독자위원회는 제각각의 인연으로 얽혀있다. 도시연대에서 만나 제안을 받은 경우, 다른 일로 만났다가 권유를 받은 경우, 도시연대를 퇴사한 담당자였던 경우, 계간지에 관심이 있어 도시연대 회원이 된 경우 등. 역할 때문에 독자위원회보다 편집위원회가 다소 더 바쁘고 할 일이 많은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독자위원 중에는 지하철에서 굳이 계간지 표지가 잘 보이도록 쳐들고 읽는 등 애정이 남다른 회원도 있다. 일종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인 독자위원회를 운영하자고 제안한 건 편집위원회였다. 넘버 쓰리 클리어.

Scene #4 : 고정필진과 SNA

지금까지 『견고싶은도시』에 게재된 원고는 총 1,340편. 이 중 상당수는 고정필진이 썼다. 가장 많은 원고를 쓴 고정필진은 이호정씨다. 안인섭씨와 김정대씨도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수십 편의 글을 보내주셨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성사되진 못했지만, 이번 백호 모임에서 고정필진과 SNA의 만남을 기대했다. 직접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는 고정필진과, 그 원고를 편집하는 SNA의 정성이 서로 한결 같기 때문이다. SNA는 2002년부터 『견고싶은도시』 편

집을 맡아주고 있는 디자인회사다. 책자의 완성된 꼴은 SNA의 손끝에서 예뻐진다. 외부 필진에게 원고를 청탁할 때면 과월호 PDF 파일을 함께 보낸다. 당신의 원고가 소중하다는 마음을 청탁서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 SNA의 편집디자인 결과물로 보충하려는 셈법이다. 넘버 포 클리어.

Scene #5 : 특집과 표지

『견고싶은도시』특집은 주로 도시연대 활동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한다. 그렇다고 특집이 곧 도시연대의 주장은 아니다. 도시연대의 주장 자체보다는 특집 이슈를 다각도로 조명할 수 있는 여러 원고를 문맥과 짜임에 맞게 배치한다. 『견고싶은도시』를 기관지이면서도, 따로 기관지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99권에는 나름 다양한 특집 주제가 담겨 있고, 그중에는 당시의 이슈를 다루면서도 좀 더 진보적인 이슈를 미리 선점해서 소개한 경우도 있다. 도시문제에 대한 공감과 공명, 독자에 대한 배려를 신경 쓴 노력도 엿보인다. 특집은 도시연대 사무처 회의로 결정하고 필자를 섭외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 편집위원회가 구성된 87호부터는 편집회의에서 특집을 결정하고 있다. 그 이전에도 여러 편집위원회가 있었다. 백호를 기념하기 위해서는 최정환 前 사무총장, 김은희 前 사무국장, 이소영 前 편집위원장의 노고가 함께 언급되어야 한다. 표지에 사진이 들어가던 시절, 늘 특집 주제와 어울리는 사진을 고민했던 이철호 회원과 최성용 前 기획국장을 포함해 기관지 담당 활동가들의 노고도 당연히 함께다. 넘버 파이프 클리어.

Scene #6 : We Built this City

이번 백호가 상징하는 본질은, 『견고싶은도시』의 ‘기획에서 편집’까지, ‘발행에서 발송’까지 100번을 이어진 도시연대 자원의 배분과 사람의 참여이다. 보행, 마을 만들기와 주민참여, 생활문화 운동의 다양한 주제들이 어떤 것은 도시연대 활동으로, 어떤 것은 구상으로, 어떤 것은 누군가의 이야기로 『견고싶은도시』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들이 재생산되어 어느 현장에 어느 활동으로 연결된다면 더없이 보람될 것이다. 백호 모임에 참여한 누군가는 자신에게 『견고싶은도시』가 “오랜 시간 기관지라 불렀던, 이제는 계간지가 더 익숙한, 조금은 비껴나 있는 도시연대의 나이테”와 같다고 말했다. 도시연대가 해야 할 일은 시민의 참여로 도시를 만드는 운동이라고 『견고싶은도시』는 말하고 있다. 때마침 백호로 이를 기념할 수 있어 다행이다. 넘버 식스 스타트.

백호 모임 후기 : 당신에게 『견고싶은도시』란?

24명의 참석자가 예정된 모임은 당일 사정으로 한두 명씩 불참자가 생겼다. 하지만 이미 모인 참석자들의 달뜬 기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사무처 담당자의 촘촘한 준비가 있었고 편집위원회가 『견고싶은도시』 1호부터 99호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분석한 결과를 미리 엿보니 더욱더 오늘 모이기로 한 일이 잘한 듯 느껴졌다. 참석자들이 차근차근 도착하고 으레 그렇듯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흥을 돋운다. 모임은 크게 3부로 진행했다. 첫째는 『견고싶은도시』에 대한 참석자들의 단상과 평가 공유, 둘째는 1~99호의 분석결과 발표, 셋째는 통권 백호를 맞는 겨울호의

제목, 표지디자인, 특집구성에 관한 결정이다. 나는 백호 모임의 기록을 맡았다. 한 번에 임무를 끝내기 위해 노트북을 펴두고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바로 받아 적으려 했지만, 지꾸 손을 놀리게 되고 대화에 한마디씩 말을 얹게 된다. 사무처장으로서, 편집위원으로서 계간지 발행에 참여하면서도 참여자들이 『견고싶은도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주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견고싶은도시』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둘 소회를 나눌 때 ‘저 얘기가 내 얘기가였다’며 속으로 맞장구를 친다. 이 이야기를 온전히 전하는 것이 이치에 맞겠다. 그리고 지면을 통해서나마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이 대화에 동참하길 권해본다. 당신에게 『견고싶은도시』란?



당신에게 『견고싶은도시』란?



최지은 · 독자위원

Q 나에게 걷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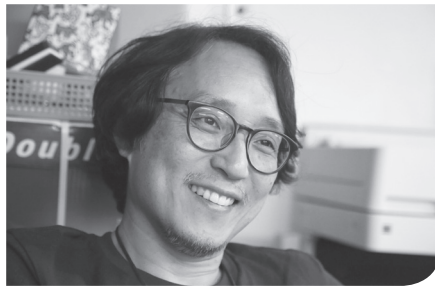
다양한 관점과 지식으로 계절마다 나를 챙겨주는 걷도.

Q 기억나는 원고

진안 마을만들기 활동가의 글이 오래 기억된다. 지역의 활동은 어스름하게 아는 정도였는데 그 글을 통해 좀 더 또렷이 보였던 기억이 난다. 물론 글 하나로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평소 접하기 힘든 생생한 목소리를 읽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Q 걷도에 바라는 점

걷도가 다루고 있는 장소나 관점이 꽤 깊이 있고 시의적절하다고 오래 생각해왔다. 그 생각을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독자와 만나는 접점이 늘어나길 바란다.



박승배 · 편집위원

Q 나에게 걷도란

오랜 시간 기관지라 불렀던, 이제는 계간지가 더 익숙한 조금은 비켜나 있는 도시연대의 나이에.

Q 기억나는 원고

용산민족역사공원을 다룰 때 김승희 교수 인터뷰 원고. 비가 많이 왔고 한남동인지 강남인지 스튜디오를 찾아가 인터뷰를 했던 일이 기억남. 우리 도시를 사랑해야 한다고 했음.

Q 걷도에 바라는 점

언젠가 문고판 사이즈의 걷도를 보고 싶다.



이채원 · 담당간사

Q 나에게 걷도란

머리 감을 때 종종 생각나는 것.

Q 기억나는 원고

민수 선배를 통해 기회를 얻어 원고를 쓴 적이 있는데, 그 원고가 실린 걷도를 받았을 때.

Q 걷도에 바라는 점

독자나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 행사 등이 생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걷도가 되길.



김민보 · 독자위원

Q 나에게 걷도란

사실 걷도는 저한테 숙제 같아요. 읽어야 하고, 뭔가 의견을 내야 할 것도 같은데 너무 어려운 글들도 많고, 소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독해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무언가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압박감을 주기도 하거든요. 숙제가 맞는 듯ㅋㅋ

Q 기억나는 에피소드

주요 사거리, 지하철역 주변, 지하도만 있던 곳 등에 횡단보도가 생기는 것을 보며 괜히 뿌듯했어요. '걷도가 한 역할을 했구나...' 하면서.

Q 걷도에 바라는 점

독자는 쉬운 게 좋아요. 말랑말랑하게 금방 손으로 뜯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걷도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누군가도 쉽게 걷도에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운동이 아니라 생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현찬 · 편집위원장

Q 나에게 걷도란

내 인생에서 가장 적극적인 자원활동.

Q 기억나는 원고

2016년 가을호(88호) 특집 중 심수진님의 "어쩌다보니 진안". 관습적인 원고를 훌쩍 벗어난, 진솔하고 생생한 글이어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Q 걷도에 바라는 점

민주적인 편집위원장 교체!



김하진 · 독자위원

Q 나에게 걷도란

조금 게을러지면 놓치고 지나칠 수 있는 도시적, 사회적 문제에 관해 항상 좋은 자극을 주는 자극제입니다.

Q 기억나는 에피소드

제가 근래 참석이 전무하여 곱씹어볼 기억이 많이 없지만... 처음 독자위원회에 참석해서 다른 독자위원, 편집위원분들과 친근도 먹고 이야기도 나눴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Q 걷도에 바라는 점

걷도에 바라는 점보다는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걷도에 활발히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독자위원회 모임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참여하기를 저 스스로에게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걷도가 되길.

최성용 · 편집위원



Q 나에게 걷도란
인연.

Q 기억나는 에피소드
부평 문화의 거리 상인운동에 관한 글. 배다리 산업도로
저지 운동에 관한 글.

Q 걷도에 바라는 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이호정 · 고정필진

Q 나에게 걷도란

저에게 걷도는 100호가 되었다고 누군가 이야기해주지 않는 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17년의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저의 활동이란 게 기관지에 실리는 작은 원고를 보내는 것뿐이었기에, 원고를 쓰는 일 또는 그 원고가 저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묻기 전에,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글을 써왔다는 그 사실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Q 기억나는 원고

죄송하게도, 제가 쓴 원고에 한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삼청동에 관한 원고였을 거예요. 선배님이 찍은 사진 여러 장을 허락도 없이 써서 혼이 난 적 있어요. 그건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한 기억으로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깊숙이 남아있습니다. 그 후로 타인의 글과 사진을 인용할 때는 그때를 떠올리며 두 번 세 번 더 되새김하였으니, 그 일을 계기로 저 스스로도 원고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Q 걷도에 바라는 점

인연집 원고에도 썼지만, 사람이 밥 먹고 사는 일이 아닌 이상, 어떤 것을 17년 동안 했다면 그 일은 그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일이거나, 별 의미 없이 그냥 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에게 걷도에 원고를 보내는 일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공유하는 일입니다.
때론 중요했고, 때론 그냥 했지요. (그냥 한다는 말이 시시하거나, 대수롭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든 그냥 하다 보면 무언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꿈은 쌓였을 때 이루어지지요.
저는 그렇게 그냥 할 수 있는 이 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너무 오래 했다는 생각은 늘 지울 수가 없지요. 그런 원고를 별 말씀 없이 기꺼이 받아주시는 도시연대에 늘 감사드려요. 그러니 정말 제가 더 바랄 일이야 있을 리가요. 저는 도시연대가 꿈은 도시에 대한 신념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여러 활동을 지지합니다. 그러기에 통권 100호를 맞는 “걷도”도, 도시연대 25주년도 모두 축하드리며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은혜 · 편집위원

Q 나에게 걷도란
정든 이들과 만들어가는 가치이자 구성물.

Q 기억나는 에피소드
참 많은데요. 답사 차원에서 편집위원들과 정우(모 편집위원 아드님)를 조금씩 안고 군산의 공원을 함께 거닐었던 날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정우를 겨우 15분 안고서 팔이 떨려 밥을 먹지 못 할 뻔했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서로가 힘이 되어 연대하는 사람들도 좋았고, 해맑게 웃는 귀여운 정우도 좋았죠.

Q 걷도에 바라는 점
그보다는 걷도로 모인 이들이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순간이 많아지길 바라요.

김민수 · 편집위원



Q 나에게 걷도란
함께 걷고 싶은 글동무? 때론 제작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책으로 나온 모습을 보면 왠지 뿌듯함이 느껴지는 대상. 함께 읽으면 고통과 보람도 함께 있는 친구 같은 책.

Q 기억나는 원고
특집 ‘마을을 팔아먹자’. 당시 빈곤을 상품화하는 시도를 비판하고, 마을만들기가 마을 상품이 되는 흐름을 경계한 주제로 많은 호응을 얻었음.

Q 걷도에 바라는 점
시류에 맞춰가는 빠른 속보보다는 정론을 추구하는 느린 산책 같은 걷도가 되었으면 좋겠음.

시선과 관심

- 01 보행
아이들을 위한 동네, 모두를 위한 도시 최이명
- 02 도시재생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시민활동가들, 도시를 바꾼다 이명범
- 03 통합놀이터
통합놀이터 소개하기-해외편 기아미·맹수현

아이들을 위한 동네, 모두를 위한 도시

‘놀이 좋은’과 ‘걷기 좋은’의 행복한 공존을 꿈꾸며

어떤 주거지가 특정 연령대나 집단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을 리 만무하지만, ‘걷기 좋은’과 ‘놀이 좋은’ 동네에 대해 생각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나는 어느 지역에 가든 이 두 가지 요소를 저울질하는 버릇이 있다. 우리 가족이 이리로 이사 오면 아이들이 놀기 좋을까? 운전 못 하는 내가 걸어 다니기 괜찮을까? 능숙한 운전자의 눈에는 이 동네가 조금 더 좋아 보일까?

석연찮은 마음으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본다. 누군가에게 살기 좋은 동네가 왜 누군가에게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동네로 느껴질까. 주거지를 선택하는 취향과 선호를 따지기 이전에 개인의 기초적인 이동인 “걷기”와 아이들의 삶의 원동력인 “놀이”는 동네 생활의 그림자 같은 존재이건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동네를 떠올리지만 왜 이다지도 어려운가. 질문을 던지는 나의 잠재의식 속에는, 양극단에 서 있는 한국 주거지의 두 가지 풍경이 존재한다.

풍부한 수목과 놀이터가 갖춰진 단지 내 환경과, 위계에 따라 조성된 다양한 공원을 누릴 수 있는 신도시, 신시가지, 이에 버금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먼저 떠오른다. 아이들은 적어도 단지 내에서는 통

과 차량에 덜 노출되며, 바퀴 달린 탈 것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듯이 이런 동네에서 길을 걷는 재미나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구성된 동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단지 내부의 차 없는 환경에서 누리는 한정된 자유로움은 단지를 벗어나는 순간 차량 없이는 이동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환된다. 차량 중심의 생활 패턴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커서도 보행 영역이 단지 내부에 머무른다. 다른 한쪽에는 이와 정확히 반대되는 특성을 지닌 기존 도시의 저층주거지가 있다. 골목 속 좋은 입지마다 찻집과 편의점, 미용실, 세탁소, 빨래방, 분식집, 어린이집, 미술·피아노·태권도 학원 등이 자리잡고 있어 길에는 늘 일정 수준 이상의 활력이 존재한다. 오래된 상점과 변화하는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새로운 용도들은 다양한 선택지와 친근함, 흥미로움을 지니고 있다. 스스로 위험관리가 가능한 어른의 입장에서 차량 간섭의 성가심은 걷기를 포기할 만한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의 입장에서 생활권 공원이 제도로 정착되기 전인 6,70년대에 조성된 주거지의 현실은 경우에 따라 잔인하다. 골목에서 아이들이 밀려난 것은 오래전 일이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공공 오픈스페이스

스는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지역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바깥놀이 장소를 갖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은 집과 친구네 집을 전전하며 실내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큰 틀에서 생각할 때 걷기 좋은, 그리고 놀기 좋은 동네의 조건은 공통적으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목적지'와 '쾌적한 가로환경'으로 수렴한다는 점에서 서로 부딪힐 리 없는 개념이다. 오해를 부르는 지점은 놀기 좋은 환경과 걷기 좋은 환경의 결정적 요인(critical factor)이 서로 달라서, 동네별로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만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나머지 항목의 함량 미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거나 놀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놀이터와 공원은 걷기 좋은 동네의 주요 목적지 중 하나이지만,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이동수단을 결정지를 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접근 가능한 놀이 장소의 유무는 놀이의 성립을 좌우함으로써 아이들의 바깥놀이 시간을 통째로 집어삼킬 수도 있는 강력한 요인이다. 놀기 좋은 동네의 조건이 무엇인지 찬찬히 따져 볼 새도 없이, 주거지 유형이 이분화된 상황에서 놀이터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걸는 맛이 좀 덜하지만 유해시설 없이 쾌적한 아파트'는 이런 이유로 사람들에게 '아이들이 놀기 좋은 동네'의 대명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과연 이 상태가 최선인가? 수많은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소단위 주거환경 정비사업에서 입지가 좋은 공원 하나를 마련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웠고, 지루한 실패를 반복 중인 신도시의 커뮤니티 가로와 생활가로에 내재된 문제점은 아직 정확히 성찰되지 못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양극화된 주거지 유형 속에서 '살기 불편하지만 걸을

수 있는' 환경과 '안전하게 놀기 좋다고 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환경이 서로에게 보내는 신호를 포착하는 것이다. 경험치의 한계는 때로 상상력의 범위를 규정하지만, 나는 놀기 좋은 동시에 걷기 좋은 동네가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여전히 놓치고 싶지 않다.

● **아이들이 놀기 좋은 동네의 조건**

아동의 놀이 결핍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늘 언급되듯이, 아이들이 동네에 나와 놀기 위해서는 시간, 공간, 사람(친구)이 필요하다. 놀이를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동네 분위기, 바깥놀이의 중요성을 존중하고 자유시간을 허락하는 부모의 태도가 적절한 물리적 환경과 만났을 때 비로소 아이들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도 놀이를 지속해 나갈 수 있다.

몇 년간 아이들의 바깥놀이를 지원하는 동네 환경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에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해외 근린 단위 놀이 환경 평가도구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서울의 대조적인 동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하루 일과를 비교해보기도 했다. 동네별 놀이 행태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도출한 놀기 좋은 동네의 주요한 세 가지 판단기준은 ①놀 수 있는 다양한 장소로의 접근성, ②놀이 공간의 질적 수준(quality), ③동네 주요 장소 간의 좋은 연계성이었다." 그럼에도 누군가가 꼭 짚어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하나만 꼽으라면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큰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다. "학교랑 가까운 곳에(학교가 너무 외진 곳에 있다면 동네의 실제 중심에) 넓은 놀이장소가 있어야 해요. 놀이시설과 공터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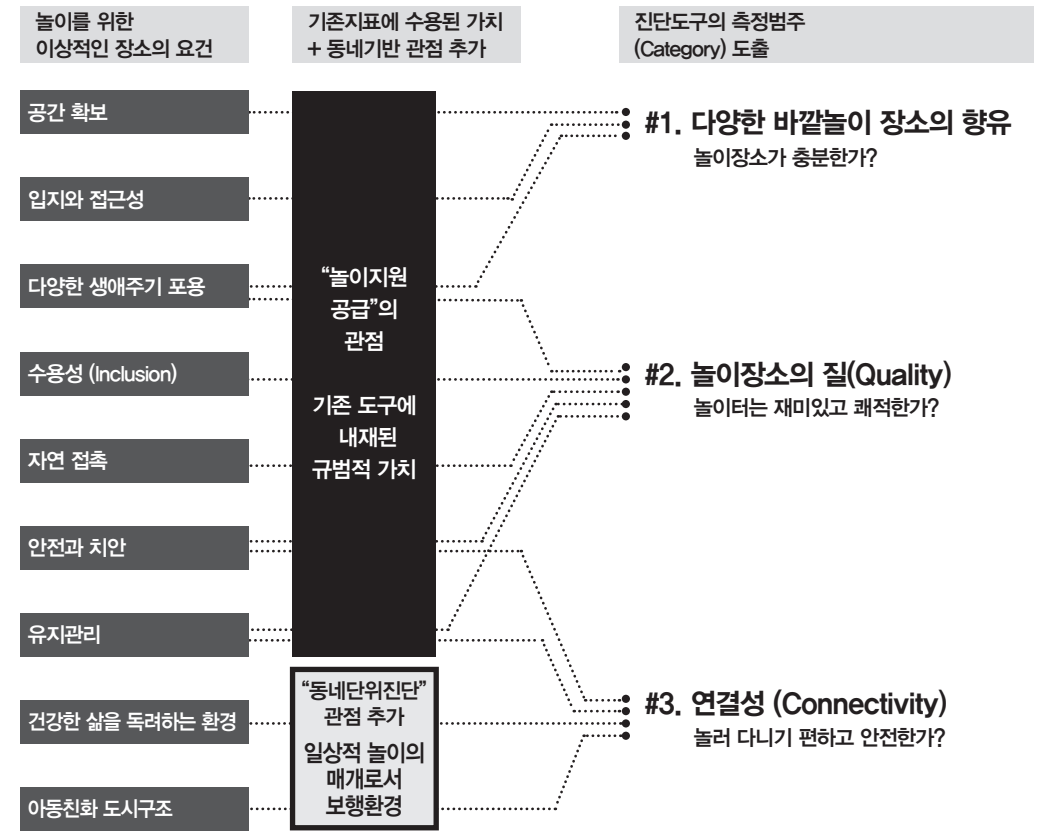


그림1. 아이들이 놀기 좋은 동네인지 판단할 수 있는 틀로서 제안한 세 가지 질문. 출처: “동네 놀이환경 진단도구 개발연구(2018)” 보고서, 8쪽.

기성시가지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굳이 학교 옆이라는 입지와 넉넉한 규모(0.4ha내외)의 놀이 장소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한 장소가 학령기 아이들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직접 관찰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는 놀이터가 있지만,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놀고 있는 장면과 마주치기는 쉽지 않다. 민간의 재량으로 단지 내에 설치되는 놀이터는 이미 정해진 아파트 주동의 위치를 기준으로 입지와 규모가 결정되므로, 큰 아이들의 활동을 수용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친구들과 만났을 때 쉽게 놀이로 연결 지을 수 있는, 어린 동생들과는 구분되는 독립된 영역’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학령기 아이

들은 놀이터에서 빠르게 사라져간다. 늦은 오후,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학교 옆 어린이공원과 아파트 단지 내 수많은 놀이터를 동시에 관찰해보면 아이들의 수와 연령대에서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기존 도시에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기에, 넓은 공간의 필요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학교 운동장이 늦은 시간까지 열려 있다면 별도의 놀이 공간이 있고 없음이 곧 동네 간 놀이 환경의 격차로 이어지는 않을 텐데, 글을 쓰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러나 사건 사고가 많은 사회 분위기에서 책임소재가 있는 학교의 수동적인 방침을 무조건 비판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저런 이

1) 김연근, 최이명, 강현미, 민혜경 (2018) “동네 놀이환경 진단도구 개발연구” 참고.



그림2. 학교 옆에 위치한 넓은 어린이공원(분당, 수내동). 놀이기구와 공터가 함께 있는 여유로운 장소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도 하고 싶은 놀이를 골라서 할 수 있다.

유로 학교 근처에 항시 개방된 넉넉한 공공 놀이장소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 **상업 몰과 광장으로 대체되는 놀이장소**

늦은 오후, 학교 옆 공원의 풍경은 걷기 힘든 신도시에서 그나마 위안이 된다. 해가 기울어 갈수록 공원에는 아이들이 넘쳐난다. 한쪽에서는 야구, 축구, 자전거와 보드 타기가 한창이고, 놀이기구에는 달리고, 잡고, 소리 지르는 아이들이 매달려 있다. 벤치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아이들 가방 옆에는 동생들의 유모차를 세워놓은 부모들이 전깃줄의 참새처럼 삼삼오오 모여앉아 담소를 나눈다. 2기 신도시를 계획하는 분들이 이 장면을 보았다면 학교 옆 공원을 쉽사리 생략해 버리지 못했을 텐데, 분당, 일산, 평촌 등지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던 학교-공원의 조합 배치 방식은 2기 신도시로 오면서 절반 이상이 무너져 버렸다.

녹지율은 예전보다 높아졌다는데 대체 누가 사용하고 있을까? 학교들의 위치를 지도에서 찬찬히 살펴본다. 보존된 산지를 접하고 있거나, 하천변에 조성되는 산책로와 가깝다는 이유로 인접 공원을 과감하게 생략해버린 정황이 짐작된다. 그러나 우리

가 익힐 알고 있듯이, 기존 도시에서 산의 일부에 조성된 근린공원이나 하천변 트랙은 어디까지나 운동 의지가 충만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환경일 뿐,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공간은 아니다. 신도시라고 구릉지 공원의 활용도가 갑자기 높아질 리 없다. 접근성과 형태 측면에서도 산과 하천은 매일 놀아야 하는 아이들의 요구와 활동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

보존된 산지형 녹지를 조성된 평지형 근린공원과 동등하게 취급하거나,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될 놀이터를 감안하여 공공 오픈스페이스 축소를 눈감아버리는 것은 공공이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신도시 개발사 자료에는 “학교는 아이들의 적절한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였다”, “공원은 지구 내 전 지역이 균등한 이용거리를 갖도록 생활권별로 배치했다”는 원칙만 되풀이될 뿐, 정작 가장 활용도가 높았던 학교 옆 평지형 공원이 절반이나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그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는다.

학교 옆 공원의 실종과 함께 일부 신도시에서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변화는 아이들을 위한 장소가 어른들의 공간과 통합되어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이나 평촌 등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던, 대규모 중앙공원과 거대 상업 블록을 나란히 놓는 방식은 이제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방사형 구조로 중심축이 뚜렷하게 계획된 동탄 신도시를 예로 들어보자. 동탄은 길게 남겨진 산지형 공원과 함께 체육공원 형태의 근린공원이 끝나는 자리에, 양쪽으로 늘어선 복합 상업건물과 지하(sunken) 광장이 도시의 중심 기능을 담당한다. 지상의 공원과 지하의 광장을 결합한 구성은 분명 1기 신도시의 거대 상업 블록보다 사람들의 다양한 행태를 수용하기 유리하고, 중심지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지적으로나마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낸다. 도로 하부의 인라인 스케이트장, 자전거와 키포드를 탈 수 있는 평탄한 바닥, 물이 흐르는 인공 수로 등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런 장소에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또한 주거지에서 제공되어야 할 독립된 공공 놀이장소를 대체하는 공간으로 인식된다면 곤란하다. 사방이 상업시설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바퀴 달린 탈 것이 많이 보이는 이유는, 당연히도 그곳에선 축구나 야구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른의 소비를 전제로 한 공간 속에서 주어진 환경에 맞춰 축소되는 아이들의 놀이 활동은, 아이가 부모로부터 독립해 나갈 무렵이 되면 알맞은 그릇을 찾지 못해 사라질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 놀기 좋음과 걷기 좋음의

행복한 공존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공간이 다른 누군가의 공간에 흡수·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상태에서 점점을 가질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 **다시, 복촌을 떠올리며**

아이들이 놀기 좋은 동네에 관심이 막 생길 무렵 복촌에서 얻었던 깨달음이 쉽사리 잊히지 않는다. 좁은 골목과 작은 상점, 삼청공원과 도심이라는 매력 요소가 어른들의 걸기를 독려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이 동네의 어느 구석에서 놀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다. 사실, 정식으로 조성된 놀이터 하나 찾기 어려운 곳에서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 수는 있는지 반신반의하며 찾아간 상태였다. 그러나 부모 인터뷰를 통해 아이들이 자주 노는 장소들을 전해 듣는 순간, 머릿속에 깜깜하게 존재하던 공간들에 전구 백 개가 한꺼번에 켜지는 느낌이 있었다. 큰 면적을 차지하는 공간은 보행을 방해한다는 연구결과 때문에 소홀히 여겼는데, 놀이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을 줄이야. 재동초등학교, 정독도서관, 대동세무고, 중앙고등학교... 줄줄이 언급되는 장소들은 모두 학교 또는 학교였던 자리에 들어선 공공시설이었다. 이들 운동장과 앞마당은 아이들이 매일 또는 시간과 계절, 목적에 따라 골라 가는 놀이터로 사용되고 있었다. 심지어 지



그림3. 동탄 신도시의 복합 몰 내부, 상업공간과 함께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은 다분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장소들이 아이들의 독립된 놀이를 위한 공원녹지를 생략해도 되는 이유여서는 곤란하다.

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아이들보다 재동초등학교 아이들의 바깥놀이 시간이 더 길다는 점에서 나의 놀라움은 배가 되었다. 물론 모든 역사적 주거지가 비슷한 조건을 갖추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북촌의 걷기 좋음과 놀기 좋음이 절묘하게 결합된 상태는 동네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입지, 좁은 골목의 한 켠 안쪽으로 자리 잡은 정독도서관, 골목골목을 채우고 있는 맛있는 간식거리, 무심코 접근하면 입구도 찾기 어렵지만 밤에는 야구장 조명이 켜지는 대동세무고 운동장이 가진 반전 매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학교나 도서관처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면적이 큰 공간은 블록의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면, 어른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상업과 근린 서비스 공간은 그 바깥쪽의 작은 길들을 채우고 있다. 부모는 학교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마중하러 가서, 함께 슈퍼마켓에 가고, 문구점에 들르고, 간식을 사 먹으며 집으로 향한다. 서로의 공간은 독립되어 있으나 함께 있다. 어느 한쪽이 부족하거나 다른 한 쪽에 흡수되지 않고 '교문 앞'이나 '운동장 스탠드'같은 접점에서 사이 좋게 조우한다.

걷기 좋은 동네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먹고 마시는 공간, 물품 구입 장소, 놀이터와 공원, 문화시설/실내체육시설, 대중교통 정류장, 학교 등으로의 접근성은 놀기 좋은 동네를 위해서도 여전히 중요하다. 놀기 좋은 환경을 위한 조건을 위해서는 성장에 따라 달라지는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위계의 오픈스페이스와 놀이공간의 질적 수준에 대한 고려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면 된다. 아이들의 동선은 학교, 집, 학원, 놀이터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부모를 따라 아이들이 다양한 목적지를 방문한다는 점은, 아이들의 공간과 부모의 일상적 방문 장소가 효율적인 동선으로 연계될 때 아이들이 좀 더 많은 놀이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이와 어른의 삶을 생기기 있게 만드는 각각의 결정적인 환경 요인이 무엇인지, 이미 차 없이 살기 힘들어진 세상에서 걷기 좋음과 놀기 좋음은 어떻게 차량과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더 치열하게 계속되어야 한다. 동네에서의 지속가능한 삶, 살아온 동네에서 성장하고 늙어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논의는 이들 환경 조건이 통합된 동네의 물리적 형태를 바탕으로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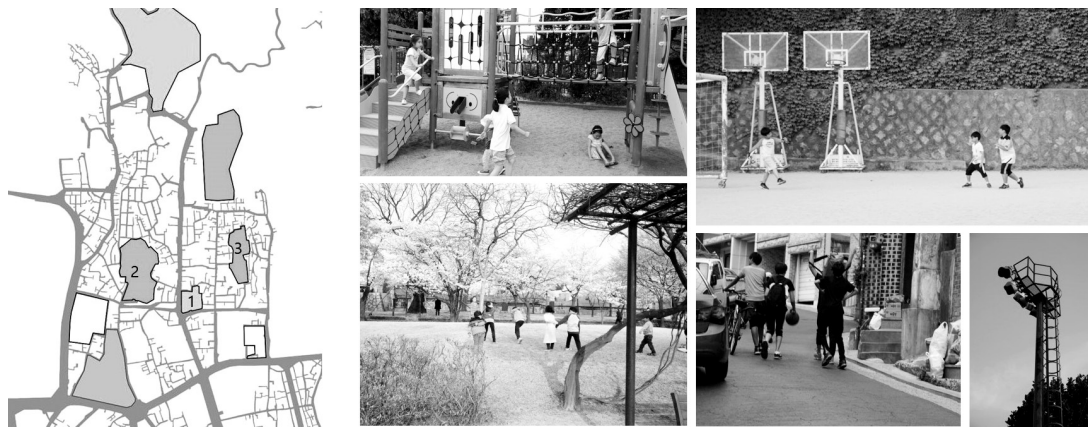


그림4. 재동초교를 제외하면 대부분 길에서 한 켠 안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학교와 도서관은 아이들의 놀이장소를 제공하면서도 주요 가로에 빈 벽을 만들어나가지 않는다. (왼쪽 위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재동초등학교 놀이터, 정독도서관 마당, 저녁 무렵 대동세무고로 모여드는 아이들, 여름밤에 켜지는 대동세무고 조명, 대동세무고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아이들)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시민활동가들, 도시를 바꾼다

작년 이맘때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주관 한 유럽 도시재생의 현장 답사를 함께 갔다. 연수 대상자인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만나고 볼 수 있었던 것은 도시재생의 유명 성공사례가 아니라 사람들이다. 꿈을 꾸는 사람들, 꿈을 실험한 사람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 자본이 아닌 사람이 만드는 도시를 일군 희망을 짓는 건축가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두가 꿈꿀 수 있게 한 시민을 만났다. 자신의 삶을 사회적 실천과 온전히 일치시키며 자본과 관 주도의 행정에 맞서 대안개발을 일구는 체인지 메이커들의 꿈과 삶을 만날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 연수는 일주일 동안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 그리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을 경유하는 매우 빠듯한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독일 베를린에서 방문한 우파파브릭(Ufa Fabrik), 쿨투어브라우어리(KulturBrauerei), 크로이츠베르크의 마크트할레노인(Markthalle Neun), 템펠호퍼펠트(Tempelhof felt)에서 만난 사람들은

기존의 개발방식에 저항하여 시민들이 직접 대안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공간의 공공적 가치를 시민사회가 활용하는 멋진 사례를 만든 이들이다. 시민들의 스콧¹⁾에서 출발한 우파파브릭은 1978년에 예술가들과 생태환경기술자들이 서베를린의 한 공원에서 일과 가족, 여가가 분리되는 자본주의의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삶의 틀을 깨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대안적인 삶을 실험하는 축제를 6주간 진행했다. 그리고 이런 실험적 삶을 지속하기 위해 그동안 방치되었던 영화촬영소 우파를 1979년에 점령하고 생태환경의 대안적 삶을 이어가게 된다. 생태적 가치, 대안 교육, 문화예술, 지역사회 공헌의 4가지 가치를 통합적으로 실험하고 실천하는 도시공동체인 우파파브릭의 자기 주도적 지속성으로, 베를린 시정부는 이곳을 2066년까지 시민들의 삶터로 장기임대해 주기로 최근에 결정했다. 앞으로 이런 공동체의 대안적 삶이 지속되면 이 땅은 영구히 이들 공동체의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변도시의 재생과 개발의 사례로 흔히 언급되는

1) 스콧(squat)은 남의 땅이나 건물에서 불법 거주한다는 뜻을 지닌 영어 단어로, 시민들이 도시 공간을 무단 점유한 뒤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운동을 가리킨다. 스콧은 원래 오스트레일리아 목동들이 남의 목초지에 양떼를 몰고 들어간 것에서 시작했다. 산업혁명에 들어 서면서 스콧은 도시빈민 주거운동으로 변한다. 19세기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 강제 철거에 내몰린 도시 빈민들이 부자들이 갖고 있던 빈집에 허가 없이 들어가 살며 정부에 주거 문제 해결을 촉구한 주거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띤 스콧은 이후 예술가들이 부르주아적인 허구성을 비판하고 사유재산을 점거하여 소외계층과 함께 삶과 예술을 나누는 형태로 발전했다.



그림1. 베를린 우파파브리크 생태환경 공동체의 공간

독일 함부르크의 하펜시티(HafenCity)는 쇠락한 항구를 재생한 사례로 우리나라의 거제나 울산과 같은 조선산업에 기반한 도시들이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공공의 개발공사가 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통합적 사업 관리를 통해 개별 사업투자자를 모집하고, 마스터플랜의 비전과 가치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투자자를 선정하여, 공적인 가치를 담보한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도시재생개발에서 눈여겨볼 만한 기법이다.

최근 주택임대료를 5년간 동결한다는 베를린 시정부의 강력한 개입은 바로 구 동베를린과의 경계에 있는 크로이츠베르크 자치구의 과열된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 촉발되었다.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의 재래시장 재생프로젝트인 마크트할레노인이 지역 명소로 부상하면서 주변의 집값이 두 배 이상 뛰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독일 연방법의 지역보호법에는 선매권제도가 있다. 지역보호법에 의해 도시계획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민간이 판



그림2. 베를린 우파파브리크 입구의 전경

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매입자보다 먼저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다. 이 선매권 발동으로 크로이츠베르크 지방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마크트할레노인 주변의 집을 포함해 빈집 1,000호를 매입했고 월세를 더 오르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민과 워크숍을 통해 함께 토론하고 해결을 이끄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런 노력은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면 주민들이 서로 책임을 질 줄 알게 되고, 자기 주변의 지역공동체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사회적 담론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개발자본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게 된다. 이를 통해 스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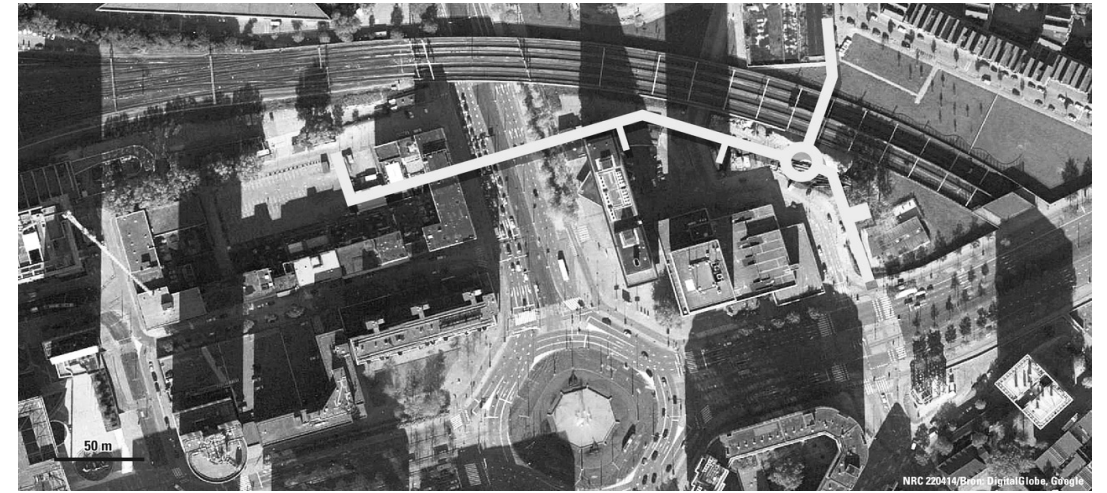


그림3. 보행자육교(Luchtsingel)의 항공사진

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공동체가 스스로 돌볼 수 있게 된다는 이들의 삶의 방식은 지금 공공의 자금이 투입되면서 오히려 재생지역의 부동산 소유주를 살찌우는 모순을 야기하는 우리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할 가치이다.

연수 기간에 방문했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더 퀴블(De Ceuvl), 엔디에스엠(NDSM), 사회주택 협회인 와이미르(Ymere), 로테르담의 알디엠캠퍼스(RDM Campus)와 건축설계사무소인 ZUS (Zones Urbaines Sensibles)가 주도한 보행육교(Luchtsingel), 그리고 더 할렌(De Hallen) 사례 역시 세상은 꿈꾸는 자가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15년 7월에 준공된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보행육교인 '루흐트진겔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로 시민 기금으로 시작된 공공시설물이다. 네덜란드어인 Luchtsingel은 영어식으로 말하면 air canal로 공중육교다. 길이 400m에 달하는 이 보행육교는 로테르담역 인근이지만 복잡한 교통망으로 얽힌 다소 낙후된 지역의 3개 지구를 연결하는 공공 프로



그림4. 보행자육교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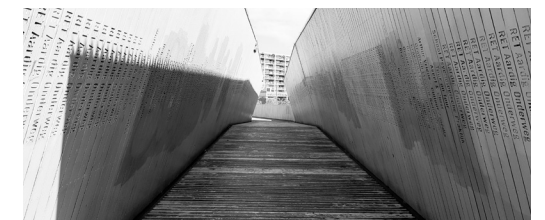


그림5.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기부자 이름이 새겨진 보행자육교

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1년 건축가그룹 ZUS의 파트너 건축가인 크리스티안 코레만(Kristian Koreman)과 엘마 반 복셀(Elma van Boxel)이 처음 계획했다. ZUS가 2012년 로테르담 국제도시건축비엔날레의 공동 큐레이터를 맡게 되자 이 프로젝트를 공공영역 개선을 위한 시범대상지로 지정하면서 시작되었다. 2012년 세계 최초로 공공인

프라를 시민들의 크라우드펀딩으로 진행한 이 보행육교는 2015년 7월에 완성되었다.

이 지역은 1990년대에 철길과 8차선 도로 때문에 보행이 불편하고 공공공간이 없어 유동인구가 줄었다. 주변의 상가들은 쇠퇴하고 건물의 공실은 늘었다. 심한 교통 정체로 거리는 점차 낙후되었다. 18년 전인 2001년에 창업한 ZUS는 빈 사무실이 많아 임대료가 싼 지금의 건물(Schieblock office building)에 입주하게 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이 지역과 건물에 관심을 가지며 공공공간 활성화를 위한 리서치를 진행했다. 이들은 도시의 공공공간 회복을 통해 사람 중심의 도시로의 회복을 원했다. 반면 로테르담시는 철거형 지역 재정비를 포함한 도시개발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30년'이었다. ZUS는 이 지역 주변 건물의 공실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의 도시계획은 여전히 철거형 고층 건물 건설 계획에 치중하고 있다며 버려진 공간을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는 운동을 시작하며 함께 할 다양한 주체를 모으기 시작했다.

'Place making!'과 'Demolition kills our neighborhood!'의 가치를 내걸고 도시공간에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고 활성화하는 공공공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사회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에게 "향후 5년간 이 건물을 활성화시키겠다"며 다양한 창조계급을 모으는 내용의 공공프로젝트계획안 'Schieblock Workshop'을 제시해 착수했다. 먼저 자신의 공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할 입주 회사를 찾았다. 건물 1층에 전시장을 설치해 공공공간의 가치와 자신들의 대안 계획을 홍보하였고, 3개월 후에 부시

장, 건물주와 같이 전시장 개소식을 했다. 현재 이 건물엔 다양한 예술창작집단이나 회사가 입주해 있다. 이들은 또 시의회 의원들과 시민사회 간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 이곳에 시의원을 한 명씩 초대하여 소통함으로써 자신들이 꿈꾸는 도시가 자본에 의해 모든 걸 철거하고 재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시개발의 장점이 많은 대안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지지를 얻어내는 노력을 했다.

ZUS는 도시 전체의 공공공간과 녹지를 잇는 네트워크와 이를 통해 사람들의 이동을 연결함에 따라, 보다 더 나은 대안적 마스터플랜을 로테르담시에 제안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들이 로테르담 건축 비엔날레의 공동 큐레이터를 맡게 되자 때 로테르담시의 주요 지역에 18개의 공공공간을 시범사업으로 제안하여 진행했다. 그런데 이들 공공프로젝트를 연결해 도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18개 연결고리를 갖는 보행육교를 기획하게 되었다. 'I Love New York'이나 'I Amsterdam'과 같은 슬로건을 구상해 시민들에게 홍보하지는 아이디에서 'I Make Rotterdam(내가 로테르담을 만든다)'란 기치 아래 시민기금운동으로 출발한 루흐트진겔 프로젝트는 최소 25유로만 내면 누구든지 자신이 이름이 새겨진 나무판을 살 수 있도록 공모했다. 나무판은 25유로, 125유로, 1,250유로의 세 종류였고 첫 3개월 만에 8,000개가 넘는 나무판이 팔렸다. 지금까지 10,000개가 기부되었다고 한다. 보행도로 벽면에 각각의 기부자들 이름을 새겼고, 육교는 목재로 만들어 가변적 기능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초기에 모은 자금으로 자신이 입주한 건물에서 맞은편 건물을 잇는 1단계 공사를 진행했다.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으로 이 보행육교는

Rotterdam City Initiative의 지원을 받아 완성된다. 이 기간에 자신들이 영감을 얻은 뉴욕 하이라인을 주도했던 두 사람 중 한 명을 초청해 홍보도 하고 함께 경험을 공유하기도 한다.

ZUS가 입주한 건물 옥상층엔 다카커(Dakakker)라고 불리는 도시 농장과 친환경 레스토랑이 조성되고, 건물 뒤편의 주차장과 버려진 공간은 멋진 야외광장과 바,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에게 인기 많은 곳으로 알려진 클럽이 입주했다. 2차대전 당시 유일하게 폭격에서 살아남았다가 2010년 폐역이 되어 방치된 호프플레인 철도역 플랫폼을 녹지공간과 이벤트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5명의 토지소유주 동의를 얻어 다른 연결지인 폼펜버그 공원의 공터엔 텃밭과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했다. 이러한 지역의 변화 이후 호프플레인역 주변엔 정주성을 높이기 위한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ZUS가 입주한 맞은편 건물은 지금도 공실이 많은 데 보행육교가 생기자 건물 측면에 육교에서 바로 연결되는 출입구를 내기로 약속했다. 이 보행육교는 원래 시로부터 5년간 허가받은 임시시설물이었는데 두 달 전에 25년 주기로 리모델링 해야 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로 허가받았다고 한다.

'Incomplete & Unfinished' 그리고 'Permanent Temporality'란 비전과 전략으로 무조건적인 철거재개발보단 도시의 공공공간을 활성화하고 이들을 연결해 사람들의 흐름을 만들으로써 기존 건물의 가치를 높이며 도시를 점진적으로 개발해 나가자는 ZUS의 큰 그림 중 일부가 바로 시민 펀딩으로 시작한 보행육교임을 창업자인 크리스찬 코어만의 설명을 직접 듣고 알게 되었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도시재생 사례에서 만난, 세상

을 변화시킨 체인지 메이커들은 다양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공통되게 단 하나다. 꿈을 꾸지 않으면 꿈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럽의 도시재생 사례지 답사에서 이들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도시재생의 과정에서 제도로서 지속 가능한 미래는 행정의 탁월한 기획도 아니고 전문가의 식견도 아닌 시민사회의 열정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험정신 없이는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값진 경험이었다. 도시재생이 남겨야 할 성과는 결국 사람이다. 도시재생의 어마어마한 공적 자금을 들여 앵커 시설을 지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길 꿈꾸고 희망을 만드는 시민들이 맘껏 뜻을 펼칠 수 있는 공평한 기회의 장을 만드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 모두가 각자의 삶터와 현장에서 대안적 삶을 실험하고 실천하여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다. 사람이 곧 희망이다. **김민**

통합놀이터 소개하기

— 해외편

● 통합놀이터 해외 사례들

통합놀이터란 무엇인지에 대해 두 편의 글을 쓰고 나니 다양한 통합놀이터의 사례도 함께 소개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이 글을 읽는 분이 계시다 싶어서, 그리고 그분은 통합놀이터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었을 것이라 여겨져 잠시나마 보람을 느꼈다. 혹시 이전 글 전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만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다. 우선 놀이터의 시설물과 공간들이 장애아동의 놀이도 함께 지원하고 있는지, 아동들이 함께 놀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지이다. 전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 확보나 시설물로의 용이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위한 보조 장치의 유무 등이다. 후자는 신체 능력이 서로 다른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다양한 난이도의 시설물이 있는지, 보호자들이 옆에서 아동의 놀이를 지원하기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해외 여러 나라에 있는 통합놀이터의 사례를 살펴보자. 기본에 충실하게 조성된 통합놀이터가 있다. 영국 오텔리시에 위치하고 있는 워프메도스 통합놀이터다. 이곳은 기존의 방목장을 지역 고등학교의 기부

와 모금을 통해 조성하였다. 통합놀이터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입구에 딱 들어서는 순간 기준에 내가 알던 놀이터와는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합놀이대의 슬라이드의 모양, 경사진 네트의 지지대, 원형 교차로 공간, 램프 등이 고르게 배치되어 있다. 또한, 이곳의 2층 높이의 놀이기구는 모두 옮겨타기 시스템이 적용되었으며 놀이 시설물은 대부분 휠체어에서 접근 가능한 높이이다. 예를 들어 조합놀이대의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아동이 슬라이드를 타고 싶다면 휠체어에서 내려 옮겨타기 플랫폼을 통해 시설물 위로 오를 수 있다. 또한, 홀더와 줄로 된 손 지지대를 잡고 반원형의 원통 위를 계단 대신 올라갈 수 있다. 만약 다른 방법으로 오르기를 원한다면 그물로 오를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손잡이가 한쪽만 높게 설치되어 있어 몸을 지지하며 올라갈 수 있다. 슬라이드는 자세히 보면 평소 우리가 자주 보던 모양과 약간 다르다. 시작점과 도착점이 개방형으로 되어있어 장애아동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도 조금 더 쉽게 아동의 놀이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곳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곳은 물놀이 공간이다. 옮겨타기 시스템이 적용된 구조물 위를 올라가면

영국 워프메도스 통합놀이터 “통합놀이터의 정석”

자료: <https://www.sutcliffeplay.co.uk/>



▲워프메도스 통합놀이터 전경

▲시작점과 착지점 각각 한쪽이 열려있는 슬라이드



▲옮겨타기 시스템이 적용된 2층 높이 누름식 펌프와 휠체어 탄 상태에서 경험 가능한 물놀이 시설

▲몸이 밀착될 수 있는 흔들놀이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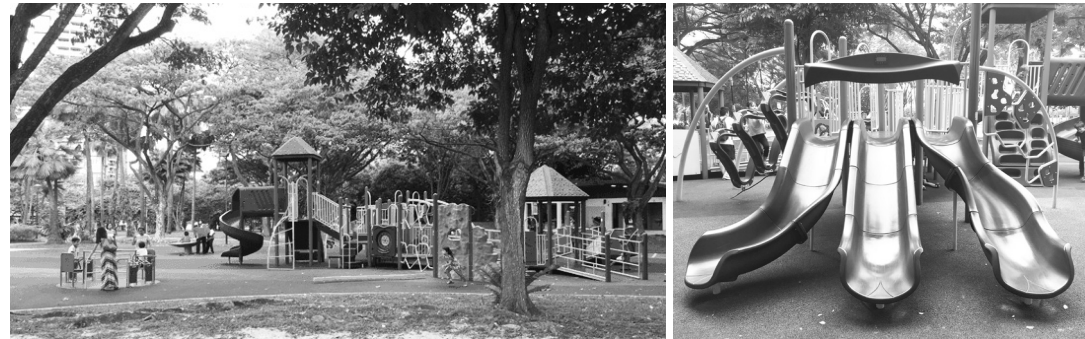
▲반원형으로 몸이탈을 막고 바닥에 손 지지대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높임

펌프가 있는데 이것을 누르면 물이 나선형의 물길을 따라 흘러내린다. 나선형은 직선형보다 훨씬 더 시각적으로 아동들을 즐겁게 하고 평평하게 흐르는 것보다 높은 곳에서 흘러내리니 아동들이 더 선호하는 방식이다. 바로 옆은 휠체어 이용 아동이 굳이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물놀이 시설이 나란히 있기 때문에 서로 마주 보며 놀이를 할 수 있다. 이 놀이터에서는 놀이터가 시설물들로 꽉 차 있지 않아도, 조금 단순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디테일이 살아있는 놀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보통 자녀와 함께 싱가포르 여행을 간다면 아마 1순위로 가는 곳이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아닐까 싶다. 만약 놀이기구 하나를 타기 위해 무더위에 1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것이 상상만으로도 현기증이 날 것

같다면 이곳을 추천해주고 싶다. 이 웨스트코스트 파크에는 통합놀이터를 포함하여 무려 6개의 놀이터가 있다. 여기서는 나이에 맞게, 또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놀이터를 골라서 놀이를 할 수 있다. 통합놀이터는 영유아용 놀이터와 이어져 있는데 이 두 곳은 유일하게 바닥 포장이 다르다. 바닷가에 위치한 공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다른 놀이터 공간은 모두 모래바닥이지만 이 두 곳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무칩 포장으로 되어있다. 장애아동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감각놀이대가 영유아용 놀이터 가장자리를 따라 세워져 있고 이를 따라가다 보면 아주 화려한 색상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곳이 나타난다. 약시인 사람들도 멀리서 알아볼 수 있다. 멀리서도 시선을 사로잡는 조합놀이대로 오르는

싱가포르 웨스트코스트파크 통합놀이터 “만능 조합놀이대가 있는 통합놀이터” 자료: 조경작업소 울(2018)



▲워프메도스 통합놀이터 전경

▲3명이 탈 수 있는 미끄럼틀



▲다양성을 고려하여 난이도가 있는 로프건너기 설치

▲휠체어이용자도 탈 수 있는 흔들놀이기구

▲카시트형 그네

▲사진으로 사용순서를 설명하는 안내판

경사로는 비교적 길지만 휠체어 이용 아동도 오를 수 있는 경사도를 갖는다. 경사로와 미끄럼틀만 있다면 밋밋했을 놀이대에 다양한 난이도의 시설들이 사방으로 결합 되어있어 어느 부분에서 놀아도 재미있다. 미끄럼틀의 경우 장애아동이나 영유아들이 미끄럼틀을 내려가기 전 머뭇거릴 경우, 다른 아이가 보채지 않고 먼저 내려갈 수 있도록 3대가 나란히 놓여 있다. 경사로 끝까지 올라보면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할 수 있는 흔들놀이기구로 연결되어 있다. 이곳에서 조금 더 용기 있는 아이는 아슬아슬해 보이는 로프 건너기도 할 수 있다. 그야말로 만능 조합놀이대다. 조합놀이대를 지나 아이들이 용기종기 모여 있는 회전놀이기구 쪽으로 갔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다. 생소할 수 있는 놀이기구의 이용 방법을 단계별 사진으로 알려주는 센스있는 안내판이

다. 필자들은 안내판을 보면서도 이용 방법을 몰라 머뭇거렸는데 싱가포르의 한 아이가 몸소 친절히 이용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곳을 사용하는 이들은 이 놀이터가 장애와 비장애아동이 함께 사용하는 놀이터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 부러웠다. 이 놀이터는 앞의 두 놀이터와는 다르게 통합놀이터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아왔던 조합놀이대 중심의 놀이터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놀이터에 통합놀이터가 추구하는 바를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곳 놀이의 핵심은 ‘위로 뛰기’로 탄성이 있는 돛이 큼지막하게 여러 개 놓여 있다. 각각의 돛은 크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난이도(뛰어오를 수 있는 높이)에 따라 연령을 구분하고 있었다. 돛 주변에 연령에 따른 이용을 나타내는 안내판과 연령대를 알리는 색의 안전봉이 쉽게

일본 쇼와기념공원 내 폭신폭신 놀이터 “한번 올라가면 멈출 수 없는 놀이터”



▲이용하는 연령대에 따라 크기가 다른 돛 형태

▲지시대와 옮겨타기 유리한 높이

자료: 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2018) 통합놀이터 디자인 가이드라인, p.45

눈에 띄어, 아동들은 자신한테 맞는 곳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 장애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돛도 있다. 장애아동의 경우 지시대가 있어 잡고 오르거나 휠체어를 타는 아동이라도 옮겨타기가 가능한 시작점 높이여서 충분히 오를 수 있다. 단순하지만 뛰어오르기로 대동단결할 수 있는 놀이터이다. 놀이터에 도착한 아이들은 우선 먼저 와서 뛰고 있는 다른 친구들의 모습에 마음이 급해진다.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어야 하는 데 시선이 뛰는 친구들에게가 있으니 마음처럼 쉽지가 않다. 그리고 마지막 양말 한 짝을 벗어던지고 돛 위로 올라가는 순간, 뛰기를 멈추지 않는다. 통합놀이터라고 해서 꼭 규격화된 여러 시설물로 꼭 채울 필요는 없다.

● 결론

각 나라마다 선호하는 놀이터의 형태가 있고 각 놀이터마다 중점을 두고 있는 놀이 행태가 있다. 놀이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이들의 자세도 다르고 문화 차이도 있다. 놀이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보호자의 태도도 다를 수 있다. 물론 안전기준도 다르

다. 하지만, 무엇이 중점을 두든지, 이전부터 장애 아동의 놀이에 관련된 입법과 정책들을 마련하고 통합놀이터가 보편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심심치 않게 통합놀이터를 만날 수 있다. 놀이터의 내용 면에서도 다양한 이용자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고 이용자들 간의 소통과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 치수를 조정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놀이시설물을 개발하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어 설계자 입장에서 보통 부러운 일이 아니다. 해외 여러 나라의 통합놀이터를 찾았을 때 “나 통합놀이터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다. 겉으로 봐서는 이게 통합놀이터인가? 싶지만 직접 이용해보면 “아, 이래서 통합놀이터이구나”를 깨닫게 된다. 놀이터 이용에 어려움을 느껴왔던 장애아동이 “여기 놀이터에서는 미끄럼틀까지 올라갈 수 있네, 그네도 탈 수 있네...”라고 알아준다면, 이로써 장애아동의 놀 권리가 조금이나마 충족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성공한 통합놀이터가 아닐까 싶다. **51**

|도시스케치

21C 속에 갇힌 15C의 모습



산업 발달에 의한 도시화는 그 옛날의 자연환경을 많이 바꾸어 놓았다. 도시화에 의한 심각한 환경 오염 그 자체가 우리 고유의 유산마저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 옛날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고 함께 느꼈던 탑골공원의 탑은 철과 유리로 뒤덮혀 오늘날 박물관의 유물처럼 박제가 되어 버렸다.

김 정 대 (3D그래픽 프리랜서)

문화유산과 보존...

문화유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면

그 나라 정부와 국민의 유산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게 된다.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 보존된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관광객의 자유로운 접근은 어렵지만

최대한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잘 보호받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 보다 훨씬 오래된 유적인

이집트 피라미드나 신전, 중국 만리장성의 경우에는

잘 관리되지 못하고 관광객의 낙서로 고유한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그들은 언제까지 문화유산이라 불리게 되는 걸까?

그런 낙서 같은 행위조차도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게 되는 걸까? **썩.**



이집트 아부심벨 신전의 낙서들(1800년대 낙서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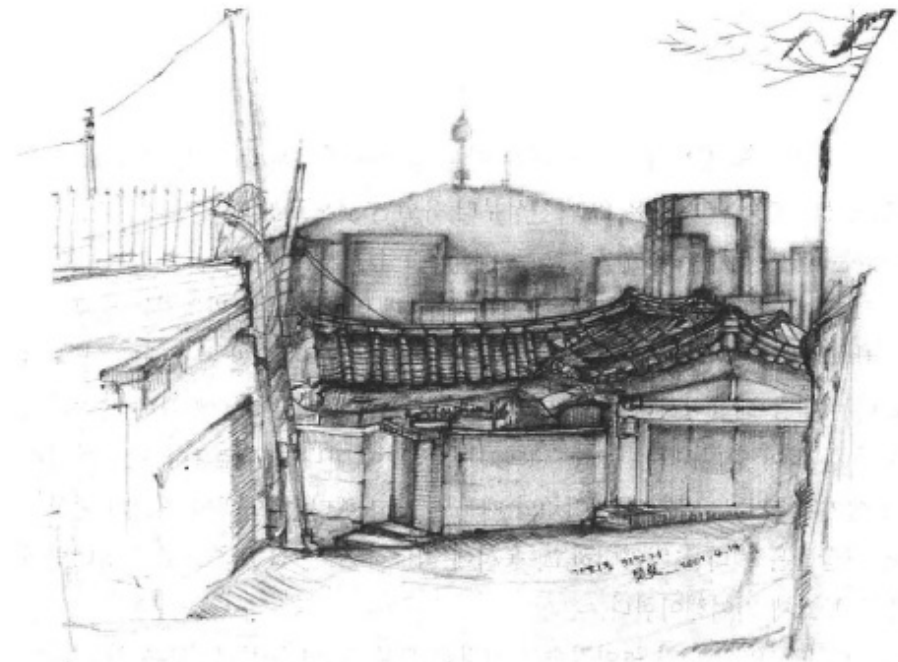


낙서로 빼곡한 만리장성 벽면

사진과 설명 출처 : <http://news.zum.com/articles/12142794>

도시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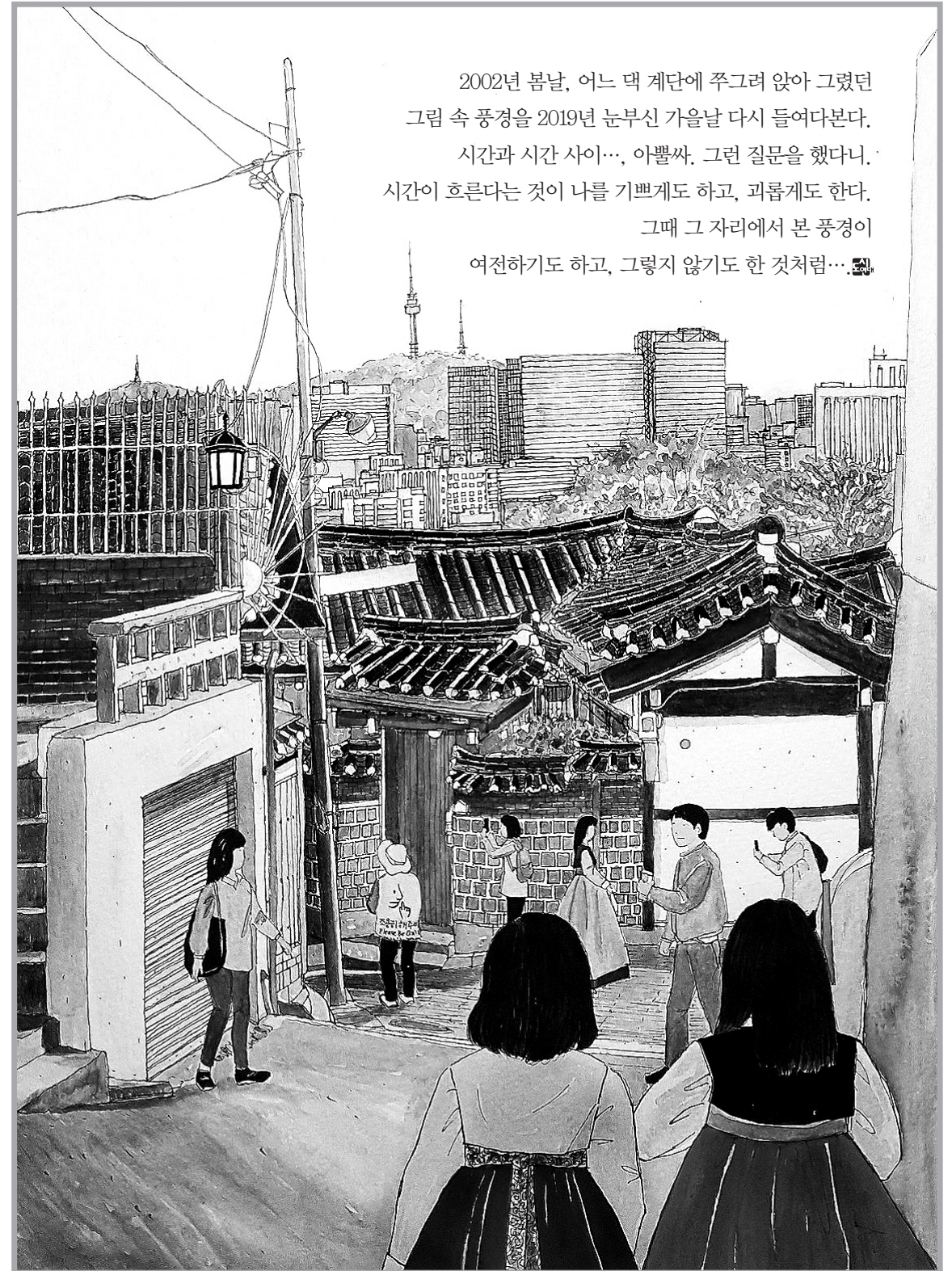
시간의 흔적들... 가회동 31번지



시간과 시간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근대도시로서 서울의 모습을 아직까지 간직한 북촌 마을.
 그 지붕너머로 보이는 풍경에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버렸지만.
 북촌의 한옥은 기억하고 있다. 그 때의 삶과 사람들의 흔적들을...

이호정(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대학원)

걷고싶은 도시 47



2002년 봄날, 어느 맥 계단에 쭈그려 앉아 그렸던
 그림 속 풍경을 2019년 눈부신 가을날 다시 들여다본다.
 시간과 시간 사이..., 아뿔싸. 그런 질문을 했다니.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 나를 기쁘게도 하고, 괴롭게도 한다.
 그때 그 자리에서 본 풍경이
 여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것처럼...

서울속도시공원탐방기



안인섭 (재민기)

여의·양화지구
한강시민공원에 가보면...

그동안 한강 둔치의 공원과 작업으로 인하여 곳곳의 둔치는 평일 및 주말에 더욱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되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한강에 나와 강바람을 맞으며 친구와 아련한 성장기의 이야기를 강물에 던져놓곤 했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으리라. 특히 주말이면 멀리 도시 근교로 나가지 못한 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 나들이 코스로 자주 이용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사실 불과 몇 해 전만 하여도 등성등성 심어놓은 잔디밭과 군데군데 간이매점이 전무인 황량하기 그지없는 벌판이나 다름없는 풍경이었는데 말이다.



안인섭 2004. 7



불안에서
떨림으로

현(絃) 위를 질주하는 활의 움직임, 날카롭게 공기를 가르며 바이올린의 선율. 이 도심 대기 속의 음표를 쫓았다던 한 사내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손에 들린 야시카 GSN 중고카메라가 불꽃없는 그의 실력의 방증이기도 했지만, 먼저 손을 내민 도시연대의 부름은 불안에서 떨림으로의 특별한 초대였습니다.


알 수 없는 깊이의 강물은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도시연대와 만남 역시 흐름을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15년이란 세월이 흘렀군요. 모처럼 마음의 추를 담고 곁어보는 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 위로 수많은 사무처와 인연이 일렁입니다.

‘이옥경’ 부장님과의 만남은 안개 속에서 갈 길을 인도받은 훌륭한 안내였습니다. 사진기의 각도를 바로 잡아주던 ‘강순천’ 간사님과의 만남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와인 한 병 선물 못 드려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나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주시던 ‘김은희’ 센터장님께 다시 한 번 지면으로나마 감사드립니다.

중심을 잃고 흔들리던 제 고민을 말없이 경청해 주던 ‘최성용’ 국장님과 ‘박승배’ 사무처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맹기돈’ 실장님, ‘이재원’ 팀장님, ‘조은혜’ ‘안영주’ 간사님 고맙습니다.

아, 잊을 뻔 했어요. 도시연대와 인연을 맺고 달라진 점어요.

언젠가 제게 마이크를 쥐어 주셨을 때 지나온 동안 적지 않은 자존감의 회복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에 ‘안현찬’ 편집위원장이 앞으로 회원들의 장을 더욱 넓혀주어야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 마음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이 고독해졌습니다. 외로움의 끝에서 만난 그 고독을 말이지요. 외로움이 불안과 한 짝이 듯, 고독은 떨림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고독 속에서 떨림을 만나게 해준 도시연대. 견고 심은 도시 만들기. 항상 응원하고 사랑한다는 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도시공간 개발의 새로운 논리: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등장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논리가 국내에 확산되면서 개발사업에도 새로운 형태의 변화가 일어났다.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이하 PF)’라는 금융 기법이 도시 공간 생산에 새로운 전략으로 확산된 것이다.

과거 도시 개발 사업의 주요한 행위자는 건설자본이었다. 건설 자본은 시행뿐만 아니라 시공, 그리고 분양까지 관리하며, 개발 사업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전유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위험이 증가하자, 건설자본은 새로운 방식의 사업 전략을 찾아야 했다.

사정은 금융자본도 마찬가지였다.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 정책과 기업금융의 위축, 그리고 금융시장의 해외 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자본은 이윤 확보를 위한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을 연계해 자본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마련한다. PF라는 금융 기법의 도입이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0년 이후로 저금리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다. 또한 금융자본과 건설자본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1998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개발 및 재개발에서 자산유동화증권(ABS), 주택저당담보증권(MBS) 등 금융파생상품을 매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을 제정,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F)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ABS, 그리고 MBS 등에 투자 펀드 조성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2007년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개발전문부동산회사, 즉 개발 리츠(REITs)가 설립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금융자본이 부동산 개발에 전문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금융자본이 도시 개발사업에 주요한 주체로 등장하는 PF가 확산되었다. 금융자본은 이제 단순히 개발 사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간접적인 역할을 넘어, 사업을 기획하고 동시에 다양한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고 동원하는 주요 행위자가 되었다. 현재 각종 대규모 개발 및 재개발 사업에서 부동산 PF는 일반적인 사업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예컨대 최근 문제가 되었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4,5 구역의 재개발 역시 시행사 ‘한호건설’과 다양한 금융기관이 연계된 부동산 PF로 진행되었다. 이런 PF

의 확산은 도시를 금융 순환의 논리로 재편시키며 공간의 상품화를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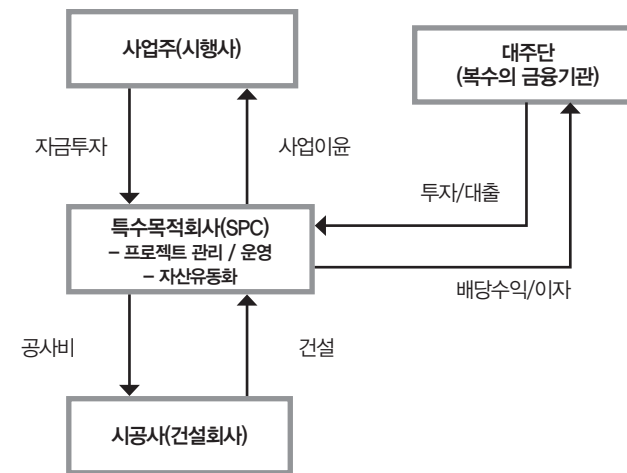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개념과 주요 특징

PF는 사업주(시행사)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에 미래의 현금 흐름(수익)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특정 프로젝트의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PF가 전통적인 기업금융과 가장 극명하게 갈라지는 지점이 이 부분이다. 기업금융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의 신용도 및 담보를 기초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시하는데 반해, PF는 대출이 사업주의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자산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완성된 후 나오는 수익에 기반을 둔다는 점이다. 따라서 PF는 사업주의 재무 상태가 프로젝트에 영

향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PF에 참여하는 사업주는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를 만들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는 사업주의 부채 및 재무 상태가 해당 PF 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PF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상환 채권을 요구할 수 없는 효과를 준다. 즉, 금융기관이 사업주에 대해 상환 채권을 가지는 일반적인 기업금융과 달리, PF는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채권자들은 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 또는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만으로 변제한다.

이처럼 PF는 비소구(non-recourse)금융과 부외(off-balance)금융의 효과를 지니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의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컨대 사업주는 자신들의 재무상태와 상관없이 큰 규모의 개발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기관은 다양한 금융기법과 파생상품(ABS,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PF-Loan, 부동산 투



〈부동산 개발 PF 구조〉

출처: 김기형 외. 2012. 부동산 개발사업의 'PROJECT FINANCE'. 부연사

자펀드, 리츠(REITs) 등을 연계하며,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르는 자금 조달 위험을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시공사(건설자본)는 개발 사업의 한 부분인 '시공'에만 참여하기 때문에 개발 사업의 위험부담을 줄이며, 사업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공간의 금융화

PF는 부동산 개발이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지만, 그만큼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활용한다. 즉, PF의 다양한 위험 관리(비소구/부외금융, 다양한 금융기법 등) 장치는 미래 수익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고, 환산하여 부동산의 사업성을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금융기관들이 대출 및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업 규모가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위험이 높아지고 이윤은 늘어난다. PF의 다양한 위험 관리 장치는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분산시키고, 위험을 해당 사업으로 제한한다. 대신 더욱 큰 이윤을 다양한 주체들에게 분배한다. 개별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장기 투자에 따른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발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¹⁾

이는 결국 도시 공간의 개발과 재개발 사업의 거대화를 촉진한다. PF가 동원하고 조달하는 다양한 금

융기법과 파생상품은 대규모의 개발과 재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정교한 신용체계에 바탕을 둔다. 더불어 금융시장 개방의 흐름은 이 신용체계가 단지 국내의 금융기관만이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금융기법, 금융상품과 접합하게 한다.²⁾ 따라서 PF는 부동산 개발이 지역의 축적망으로부터 탈착되어, 전지구적 금융시장으로 끌려가게 만든다. 이는 도시의 개발과 재개발 사업이 이제 글로벌 층위의 금융적 매개를 통해 더욱 거대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최근 서울 도심에 건설된 높게 솟은 빌딩들의 경관은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이 갈수록 글로벌 층위의 금융자본과 조직되고, 그 위에서 기능하는 것을 보여준다.³⁾

PF가 확산될수록 어쩌면 우리 개개인은 부동산 개발의 공모자가 될지도 모른다. 이미 이번 정부는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재테크'라 불리는 부동산 투기에 참여하게 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와 정책이 확대될수록 도시 공간은 더욱 금융화되고 상품화된 공간으로 재생산될 것이다. 동시에 개발에 저항하는 지역민과 상인들의 움직임은 자신들의 투자를 위협하는 요소로 낙인 찍힐 것이다.⁵⁾

회원 기고

- 01 제발, 답신이라도 주세요! 주무관님 조현세
- 02 사람을 끄는 도시 2 박광희
- 03 도시연대 25주년 행사 관찰기 이민재

1) 박기형, 2018, 『도시공간 생산의 정치-성장연합의 전략적 수단과 그 변화를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학위 논문.

2) 강내희, 2014,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 문화과학사.

3) Theurillat, T. 2011, "The Negotiated City: Between Financialization and Sustainability". 『Geographic, Economic Societe』. Vol. 13.

4) 2019.09.11, 『동아일보』, "정부,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 부동산펀드에 세제혜택 확대키로"

제발¹⁾, 답신이라도 주세요! 주무관님

‘도시연대-2018-05’, ‘도시연대-2018-11’, ‘도시연대-2018-25’, ‘도시연대-2019-02’ 이 압호 같은 번호는 무엇일까? 지난해부터 도시연대가 건널목에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고 서울시청으로 보낸 4통의 공문번호다. 물론 같은 내용의 공문을 몇 해 전에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에도 보낸 적이 있다.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건조한 답이 왔었다. 그런데 서울시청은 아예 답조차 없다. 그야말로 ‘개무시’ 하고 있다. 왜 아무 답변이 없는 걸까? 공문이 귀찮은가? 옛날에 한자로 쓴 이름과 주소를 읽기 어렵다고(모른다고?) 배달할 우편물을 땅에 파묻은 우체국 배달원 해프닝이 떠오르기도 한다. 우리 공문을 수신한 담당 공무원은 자기네 팀장과 의논조차 없이 서류철에 보관만 해줬을까? 설령 우리가 보낸 공문이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님, 시장

님 어느 분 서랍 속에 잠자고 있더라도-그런 상황을 답신 해줘야 되는 주무관님께서 4통 공문에 모두 답을 안 하고 있다. 전화도 없다. 우리도 화가 나서 전화 안 하고 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도시연대는 아니다.

주무관(主務官)님은 주요한 일을 힘써 일하는 벼슬

주(主): 주인(主人), 임금부터 주님 등으로 하느님, 주 예수님까지 두루 쓰이는 말, 즉 ‘주요하거나 기본이 되는 것’이다.
 무(務): 단순한 우리말로 ‘일’이다. 힘써 하다. 권장하다. 뜻도 있다. 결코 무(無)가 아니다. 일꾼은 ‘일’을 해야 한다.
 관(官): 관청, 벼슬자리, 공무를 집행하는 곳이다. 옛말로 벼슬아치다.

종합하면 ‘주요한 일을 힘써하는 벼슬’인 셈이다. 영어까지 들춰내야 할까? government official는 그렇고, civil servant는 시민의 하인, 즉 종이 아닌가? 조선시대 ‘종’까지 들먹이진 않았지만, 시민의 상소(上訴)를 맨 처음 벼슬자리에 계신 분이 받았으면, 차라리 구청처럼 관련 부서 소관 타령을 하던가. 소관 아니라고 휘리릭 답을 준 구청 주무관님이 그렇다. 아님 반송을 해버리던가. 가타부타하는 게 기본 예의가 아닐까? 그게 그리도 힘들고 어려운가? 골치 아프면 중간 벼슬님에게 공문이 왔다고 우선 의논이라도 해봤을까? 그럼 적어도 주무관 위쪽 벼슬께서는 ‘당사자들의 말을 다시 상세히 듣고 달래주라’, ‘요새 시절이 하도 어수선하니 최고위 왕벼슬 심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참으라고 공문이나 보내줘. 그러면 아마 그들이 지칠 걸’ 하는 모의(模擬)라도 차라리 하길 바라는 심정이다. 민원 창구마다 넘치는 주무관들이 친절 경쟁하듯 안내와 연결은 잘하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무엇인가를 제 때 해결을 못해주니 민원인은 답답하다. Please, 제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벼슬아치를 만나고 싶다. 민원 공문 한 장만 가지고 건널목 보행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 도시연대의 이런 일은 일종에 비예산 활동의 일환이다. 시민운동은 오지랖 넘치는 오지라퍼로 존재해야 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뤄진 건널목 만들기는 십여 년 동안 공문 한 장부터 시작하여 느리지만 성과가 있어왔다. Slow is fast. 느린 것이 빠른 것이어~! 이러한 공문부터 시작하여 근년에 이뤄진 성과 하나와 미해결 과제를 소개한다.

6년 만에 양재역 건널목이 생겼다.

6년 전 도시연대 최고령 평생회원이신 김금*님으로부터 필자에게 전화 한 통이 왔다.

“서초구청 안에 있는 보건소에서 저쪽 길 건너 복지회관을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도 그걸 느끼고는 있었는데 무심코 놓쳤었네요.”

바로 그때부터 인턴과 현장답사에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상가 지나 계단을 이용하는 거리가 12~15분이나 걸린다. 건널목 횡단보도가 생긴다면 50m폭원 도로를 건너는데 40초! 실험과 검증을 통해 지하상가에 영향이 적음도 파악했다. 그러나 행정, 특히 교통 쪽 장벽은 높았고 변명들은 넘쳐났다. ‘남북 방향 건널목이면 충분한 거다’, ‘동서 방향은 엘리베이터 이용하여 ㄱ, ㄴ, ㄷ으로 이동해 지하상가 통로를 따라 건너시오’, ‘저기 버스정거장 쪽에는 에스컬레이터도 있다’, ‘강남대로는 버스전용차선제에다 남북교통의 중심이요, 차가 밀리면 강남역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등등 반격을 수없이 해왔다. 때론 울화통에 시위도 해볼까 했다. 왜 5년 전 신분당선 개통 즈음해서 밀어붙이지 못했나? 우리 도시연대도 따지고 보면 직무유기랄까? 참회를 하면서 교통기술사의 조언을 들어 공문 보내기 5회, 구청 교통전문위원 두세 차례 만나기, 해당 구의원에게 하소연 하기는 기본이다. 두 해가 바뀌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 ‘이번에도 안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봅시다.’ 전화로 하소

1) “제발” 시리즈를 계속 투고하며 투고자의 보태기 : 지난 98호에는 종교 지도자(주임신부님, 주지스님, 담임목사님)께 “제발, 걸어서 종교시설에 갑시다”였다. 지난 호는 “산이나 들레길에서 스틱을 제발 휘둘지 말자”는 하소연을 했다. 이번 100호에는 제발, 주무관님께, 그리고 다음 호에는 “Mayor PARK! Please stop showing off”, “제발, 보도 위의 무법자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제발, 아파트단지외 캠퍼스 내 도로는 분명 도로입니다.” 등에 대한 하소연을 늘어놓고 어떻게라도 그 절실함이 들어 먹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쓸 참이다. 조선시대 지부상소(持符上疏)라고 도끼를 들고 자신의 주장, 민원을 올린 선비도 있었다. 물론 신문고 제도도 있었다. 근자에는 청와대 20만 명 서명도 할 수 있겠으나 우리 회원들과 먼저 공유해나가고 싶은 투고다. 우리 보행자들을 힘들게 하는 권력자, 완장을 찬 이들, 자기가 먼저 나선다고 호루라기를 불어대는 이들에게 하소연하기 위한 제발, Please 투고이다. 우리 독자들과 공유할 조언을 기다린다.

연하고 공문 보내 으뜸장을 넣었다. 사무처장은 난감해 한다.

여기서 포기하기에는 점점 연세가 드시는 최고령 회원에게 체면이 말이 아니다. 다시 공문 보내고 지켜있었다. 올해도 넘기는가 했는데 지난해 갑자기? 시청예산 5억이 내려오자마자 지난해 5월에 건널목이 푹푹~! 생겼다. 하긴 자기네들 구청에서 직접 추진한 예술의전당 앞 건널목도 3년이 걸렸었다. 진작 있어야 할 건널목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는데 시민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는다. 잠시 신호 기다렸다 건넌다. 왜? 그곳에 당연히 있어야 할 건널목이었기에.

처음 건의한 구민이신 우리 회원을 개통식 테이프 커팅에 초청 하였더라면 좋았을걸. 또 다른 오지라퍼의 잔소리가 두려운지 거기까지 뿐이었다.

“참 잘했어요” 별 다섯개도 있는 도시연대의 감사장을 주겠노라고 구청장 비서실에 연락을 해줬으나 그도 답이 없다. 양재역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는 구청에서 시도해왔던 일로 아마 우리네의 6년에 걸친 아우성으로 되었다는 것이 한편은 부끄러운가 보다. 물론 좌우회전 신호 때 한 신호가 막혀 차량 소통이 더딘듯하나 보행자는 기꺼이 편하게 오간다. 물론 나도 자전거를 타고 구청 보건소 갈 때 우회할 필요가 없어 편하고 아주 편하다. 유모차는 얼마나 편할까? 정말 다행이다.

여기저기 건널목 만들기 이야기

보행조례와 함께 광화문사거리, 시청광장 주변 건널목이 만들어진 사례는 이미 역사가 되

었다. 감히 광화문에서 건널목으로 길을 막는다고? 관제 시장님이 놀랄 일이었던 시절 이야기나 사실 그리 오래된 현실은 아니었다. 모두 도시연대에서 거들어왔음은 역사가 말한다.

그러나 방배역, 삼성역,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사당역등의 지상건널목은 지겹게, 끈질기게도 공문을 보내면서 이뤄진 사례다. 삼성역의 경우는 사거리에서 심야에 무단횡단으로 한국전력 직원 한분이 사망한 후에야 부랴부랴 시행했다. 사당역 건널목은 고가도로 교각으로 인한 시야 방해와 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반대 해왔다. 아, 만일 우리가 주장한 곳에서 건널목 보행사고가 난다면? 걱정도 앞섰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도시연대가 아니다. K교통 기술사와 함께 보행건널목 폭과 행로, 또 좌우회전 차량주행로 도면을 그려 보냈다. 아무튼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건널목은 생겼다.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경우는 지하상가 상인측에서 우리 도시연대 K처장에게 협박성 전화를 많이 했었다. “위에 건널목을 만들어 우리 지하상가 장사 망하게 할거냐?” “장사 망하면 당신네들이 책임질거냐?”라며 때때로 시달렸다. 그러나 어찌다가 중앙버스전용차선제의 정거장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시행된 예다. 그럼에도 ‘구반포’ 쪽에는 아직도 건널목이 미흡해서 공문을 보내놓고 지켜보고 있다. 또 노래로 유명한 ‘신사동’ 그 사람 사거리는 신분당선 지하철 연장개통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답을 받아두고 있다. 몇 년이 될는지 지켜볼 일이다.

한편 야구경기, 마라톤대회, 유명한 공연 전후에 몇 만 명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 있다. 즉

세상에서 가장 넓은 건널목이 필요한 곳, ‘잠실 종합운동장’ 앞이다. 몇 차례 보낸 우리들 제안이 낭만적으로 보여서인지 답도 애매하여 그냥 지켜보고 있다. 조용필, 방탄소년단의 공연 후 수만 명이 깨알처럼 밀려 나올 때, 지하도 보다 넓은 지상 건널목이 좋다는 것을 공연을 꼭 봐야 이해할는지? 네 명이 건너는 영국의 ‘애비로드 비틀즈 건널목’은 좁아서 유명하다. 공연 때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세계 최대 폭의 건널목은 왜 안될까?

이제 강남역 하나만 남았다.

강남역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는 올해도 비예산으로 도시연대가 지속할 시민운동이다. 위의 양재역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다. 이미 도시연대 기관지 『걷고싶은도시』 2014년 1·2월호를 통해 주장했다. 강남역 지하철 이용인구는 우리나라 최대이다. 최고로 일 20여만 명이 드나든 적도 있다고 한다. 강남역 사거리 주변에는 성형 관련 업종부터 유학원, 대기업 본사까지 입지해 있으며 또한 금융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견줄 역은 아마 도쿄역, 신주쿠역 정도일까? 뉴욕 타임스퀘어와는 다르지만, 보행자 중심의 유동인구를 고려하면 세계적 광고터로 한몫 볼 장소다. 물론 이년 전쯤, 그 공문을 보내기 전에 국장님, 담당 과장님께 편지와 면담을 거친 내용이다.

그 이후에라도 ‘당장 해결에 문제가 있으니 같이 고민해보자’ 라든가, ‘아직 때가 아니다’, ‘우리 과 소관으로 보기엔 문제가 있다’, ‘원할한 교통흐름 위주인 경찰국이 제일 문제일터

인데’, ‘우선 지하상가 측 동향 파악이 가장 먼저 아닐까’, ‘우리 서로 머리를 맞대봅시다’ 무슨 답이라도 보내줘야 맞장구를 칠 것 아닌가?

주무관님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낼 방안은 무엇일까? 주말이 아니더라도 강남역 지상, 그리고 지하도에 유모차를 끌고 한번 가보시라. 꼭 대각선으로 한꺼번에 건너고 싶다고 감히 말하지도 못한다. 그저 “ㄱ, ㄴ”으로라도 먼저 건너게 해달라는 뜻이다. 온갖 현수막과 두 개 구청에서 경쟁하듯 통일성 없이 네 구석 각街角에 있는 작은 광장에 허접하게 이런저런 것들을 시설해놓고 있다. 지금도 강남역 4거리 남동쪽에 교통신호 감지용 철기둥 위에 공공 농성하는 이들도 있다. 아래는 매트리스가 깔려있다. 그들이 내려오면, 우리 도시연대도 교대로 일인시위라도 해볼까? 긴 현수막에

“주무관님. 우리 시장님! 강남역 사거리 건널목을 만듭시다.”

“대각선 횡단보도로 유모차가 건너가고 싶어요”

“보낸 공문에 답이라도 주세요. 제발.”

여전히 도시연대의 과제다. 그간의 공문을 들고 시청을 방문해야 할지? 다시 강력한 경고성의 공문을 보내야 할지? 먼저 예상되는 반대 사유는 무엇인지? 등 독자들의 의견도 듣고 싶은 심정이다. **한민**

사람을 끄는 도시 2

도시공간이 사람이 끌어모운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그런데 다른 소소한 요소들로 인해 사람들은 또 도시의 매력에 빠져든다. 이른바 살아있는 유기체적 요인이다. 여기에는 거리의 풍경, 길거리의 이벤트, 노점상의 먹을거리, 거리를 장식하는 쇼윈도우, 거주민과 관람객의 움직임, 음식점, 잡화점, 놀이터 등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존재한다.

현대도시계획의 방향을 제시한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는 20세기 근대도시계획의 비인간성, 몰개성, 기능 중심의 도시 만들기를 비판하였다. '도시재생의 도시 만들기 비전'을 제시하며 그녀가 제안한 3가지 요소는 지역성, 장소성 그리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창의성에 기초한 도시의 변화와 생성의 프로세스였다. 이런 관점에서 그녀는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어우러진 다양성이 도시를 생기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였다. 거대하고 화려한 거리가 아니더라도, 조그만 동네, 오래된 건물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같은 것이야말로 도시를 살아있게 한다는 것이다. 『도시를 이해하는 100가지 코드』의 앤 미콜라이트(Anne Mikoeit)는 작은 상점들이 거리의 활력소가 되며, 또 쇼윈도는 상품을 전시할

뿐만 아니라 거울로 기능함으로써 거리풍경에 시각적인 깊이를 더해준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쇼윈도를 거울삼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 외에 산책 나온 동네사람들, 거리의 움직임, 관람객이 쉬어갈 벤치 등의 작은 요소들이 도시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요인이 된다.

거리풍경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먹을거리다. 음식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마력이 있는데, 노점상들을 바라보는 윌리엄 화이트(William Whyte)의 관찰은 예리하다. 그는 노점상이 음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매우 정교하고 교묘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밝혀낸다. 예를 들어 노점상의 우산과 파라솔, 그리고 화려한 로고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그만이다. 그것에 더하여 기막힌 음식 냄새로 보행자들의 후각을 자극하며, 리드미컬한 음악 소리로 보행자의 지루함을 달래준다.

보행자의 심리를 알기 위해서 2012년에 콜린 엘러드(Colin Ellard)가 뉴욕에서 진행한 연구는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 고급 슈퍼마켓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이 뉴욕 로

우이스트사이드의 바워리 디스트릭트에 대형 매장을 지었다. 엘러드는 다양한 집들과 작은 바, 음식점, 식료품 잡화점, 작은 공원, 놀이터가 있던 이 동네에 뜬금없이 들어선 대형 고층건물이 보행자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일단의 관람객을 이끌고 도심을 걸었는데, 사람들은 홀푸드마켓 앞에서 매우 어색해 하며, 관심 둘 곳과 이야깃거리를 찾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들은 그곳에 있는 자신들의 정서 상태를 행복과는 반대되는 상태로 평가했고, 그들의 각성상태는 다른 어떤 장소보다 바닥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관람객은 매우 지루하고 불행하다고 했으며, 그때의 상황을 "재미없고, 단조로우며, 열정 없는" 같은 말로 표현했다고 한다.

반면 그곳에서 한 블록 떨어진 사람들 무리는 "뒤섞인, 활기찬, 분주한, 사교적인, 먹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엘러드는 사람은 건물의 전면에 활짝 열려있는 활기찬 도시 풍경에서 걸어 다니고 싶어 할 뿐 아니라, 이런 곳에서는 행동 유형 또한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관찰전문가인 얀 겔(Jan Gehl)은, "사람들은 단조로운 건물 앞에서는 걸음을 멈추거나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빨리 재미있는 거리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그저 묵묵히 재미없고 단조로운 거리를 서둘러 빠져나갈 뿐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좋은 도시의 거리는 평범한 보행자가 시속 약 5km로 이동하면서 약 5초에 한 번꼴로 흥미로운 새로운 장소를 볼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결국, 홀푸드마켓이나 은

행, 법원 청사, 비즈니스 타워 같은 대형 일체형 건물이 앞에 있으면 보행자가 흥미로운 장면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화려하거나 현대적이지 않은 골목길이 아직 곳곳에 있다. 과거 삶의 공간이었던 골목길은 남의 것이 아닌 내 것 같은 친근함을 주고, 잠시나마 머물고 싶은 편안함으로 인해 요즘은 문화적 재산으로 다시 태어났다. 골목길은 삶의 복잡다단한 감정과 희로애락을 담고 있고 어린 시절의 기억, 즐거움,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켜 걷고 싶은 도시를 떠올리는 사람들에게는 웬지 자꾸만 끌리는 곳이다. 따라서 사람을 끄는 도시에 있어서, 골목길은 시작이자 끝이 될 수 있으며, 또 친근함과 편안함을 통해 '완성의 미학'이 되어줄 수 있다.

도시의 완성을 위해 도시 설계자는 도시의 원활한 기능, 즉 안전을 비롯해 도심 교통망, 심미적 외관, 공중보건과 보행 친화성에 관심을 둔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기능적 목표 외에도, 도시설계가 보행자의 심리상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침으로써 '사람을 끄는 도시'가 될 수 있겠는가에 또한 관심을 뒤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엘러드는 좋지 않은 도시설계의 위험은, "걷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몰고 나온 차들과, 또 카페에서 커피 한잔 즐기지 못하는 보행자로 가득한 우울한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하게는, 거대한 도시의 많은 사람에게 권태가 급속히 퍼지는 데 있다" 라고 밝힌다. 그의 '도시론'을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의 도시가 다양한 볼거리와 창의적 아이디어로 더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기대한다. 

도시연대 25주년 행사 관찰기

가는 길

나의 집은 의정부다. 도시연대 25주년 행사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사무실 인근인 용산이면 비교적(아시다시피 경기도 거주민이 서울에 약속이 있으면 1시간이면 우리동네, 1시간 반이면 괜찮네, 2시간 이상이면 여행이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홍대입구에서 한단다. 나에게 홍대란 1년에 한두 번 마음먹고 가야하는 여행코스다. 마음의 준비와 각종 장비

를 챙겨야겠다 생각만 하다 결국 아이 하인을 맞이하고 어물쩍 씌름하다보니 후다닥 휴대폰과 필기기구, 수첩만 챙겨 나오게 됐다. 2시간의 여행 끝에 25주년 행사장소인 스페이스M에 도착했다. 4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내 식욕을 자극했고, 오늘은 먹기보다 기자 정신으로 행사에 임하겠다는 나의 의지를 꺾었고 행사에 나올 음식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행사 전 단상

올라가니 반가운 얼굴로 나를 맞이해주는 활동가 분들이 보였다. 활동가 분들은 내 이름이 적힌 명찰과 기념품을 주셨는데 나는 역시 앞서는 도시연대라는 생각을 했다. 식상한 수건 혹은 유에스비가 아니라 이제껏 받아보지 못한 안경담이를 주셨기 때문이다.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은 덤이었다.

내가 들어갔을 때 이미 활동가를 포함해 스무분들이 자리를 하셨는데 모하게 성별, 연령별로 테이블에 나눠서 앉아계신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괜히 이분들이 서로 섞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했다. (물론 이는 기우에 불과했지만...)
내가 도착한 6시 50분에는 이미 식사가 시작되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눠졌다. 기자 코스프레를 하며 뒤에서 서있던 나도





곧 테이블 한자리를 차지한 후 식사를 시작했다. 100호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정말 이번 25주년 행사에서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음식이었다. 정말 훌륭했다. 너무 가볍지도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도 않은 메뉴 구성부터 각 메뉴의 맛도 훌륭했다. 특히, 나는 쿠스쿠스와 구운 닭고기를 섞어 만든 밥이 특히 좋았다.

이렇게 식사를 즐기면서 정신없이 먹다가도 다시금 내가 행사에 참여한 본분을 되새기며 테이블마다 모인 사람들을 보았다. 학교 선배, 가족, 직장동료, 공부모임, 친구 등등 '도시연대'라는 테두리 안에 다양한 관계가 엮여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시연대, 25년이라는 시간의 힘

7시 30분 김기호 대표의 인사말로 본격적 행사가 시작되었다. 김기호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난 25년 간 도시연대를 사람에 비유하며 이 조직이 힘들 때도 있었고 날 때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결국 회원과 활동가 등 다양한 사람의 힘으로 25년 간 지속될 수 있었다고 하면

서 사람으로 치면 청년에 해당하는 도시연대가 이제는 크는 욕심 보다는(?) 지혜로워질 때라고 하면서 향후 더 오랜 기간 활동할 수 있는 바탕을 가꿀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사에 참여한 여러 사람을 호명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제 2년차 회원인 나는 이 모습을 보며 도시연대의 활동에 한 명 한 명 삶이 녹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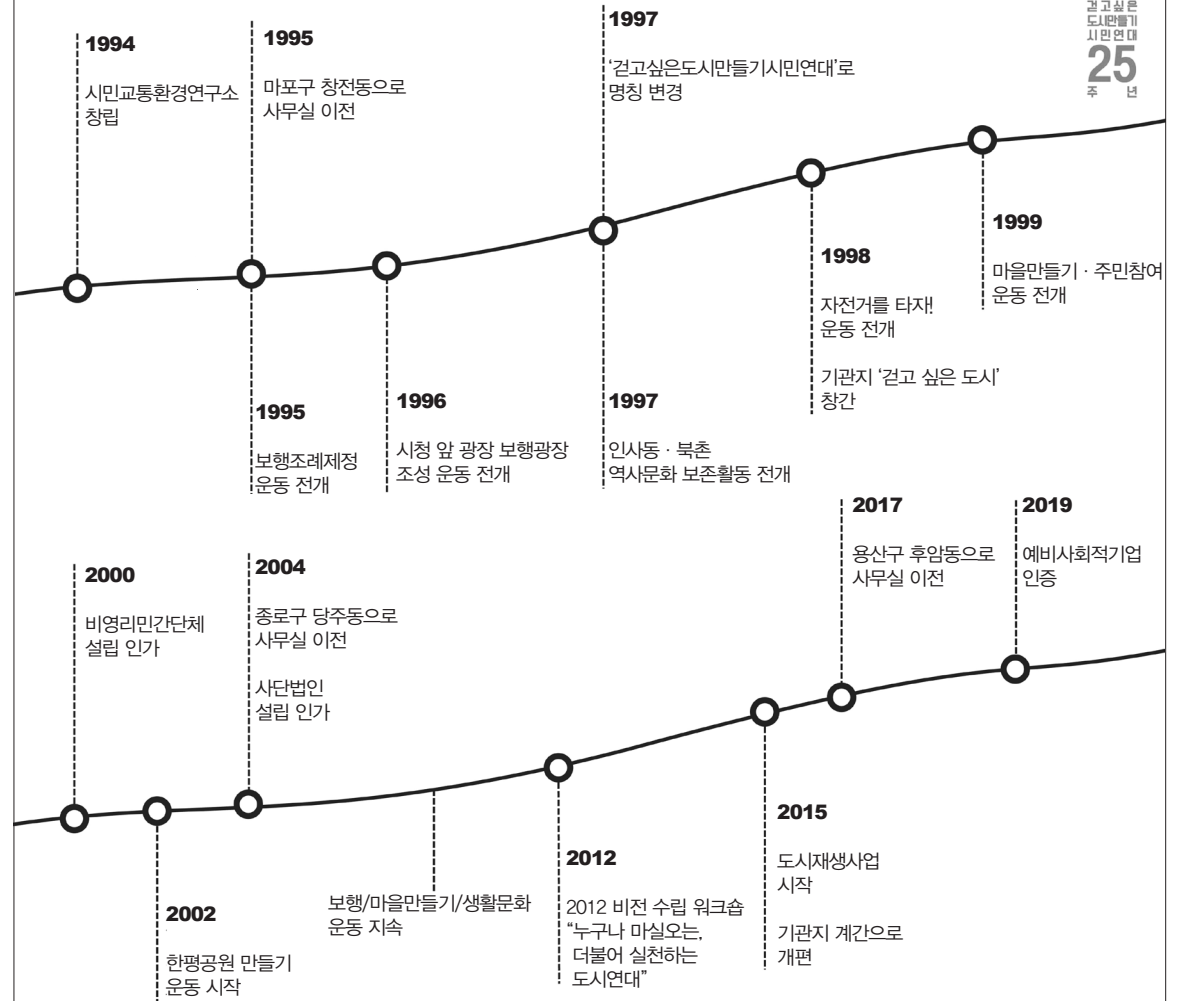
그 다음의 박승배 처장의 25년 간 도시연대 활동에 대한 발표와 동영상은 구체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간은 3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 있었다. 박승배 사무처장은 오랜 기간 활동 중 총회나 송년회 등 회원이 모이는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매우 떨렸음을 고백하면서 그 이유를 도시연대의 어떠한 발표 보다 솔직해져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떨지 않기 위해 원고를 써왔다고 25년 간 도시연대의 주요 활동을 보고했다. 다음 연표에 그동안 도시연대의 주요 활동이 표시되어 있다.

이후 그동안 활동을 담은 동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저기서 각자가 아는 얼굴이 나오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연혁

단체 연혁





고 관련된 활동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심지어 한 편집위원님은 자신의 옛 사진을 손수 찍었다. 도시연대에 활동에 한명 한명의 삶이 녹아 있다는 것은 단순히 활동가로서 회원으로서 참여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각자에게 기억되고 25주년 행사와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로 사진으로 회자되면서 공유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도시에서 활동과 기억으로 "연대"한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독자들이 생각하는 '걷고싶은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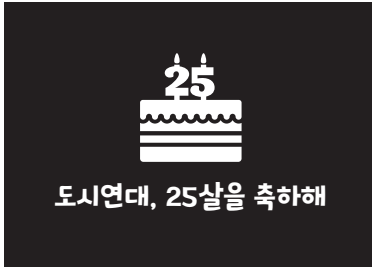
동영상 시청을 마지막으로 25주년의 공식행사가 마무리됐다. 이후 시간은 자유롭게 참여한 사람과 이야기하는 일종의 네트워크 시간으로 진행됐는데 기자 역할(?)을 부여 받은 나에게는 약간 난감한 시간이었다. 어떻게 이 2시간 남짓한 시간의 흔자서 공백을 메운단 말인가? 그래

서 '걷고싶은도시' (이하 '걷·도')에 대한 도시연대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기로 했다. 사실 편집위원회가 가장 자주 소통하는 독자는 독자위원회에 오시는 위원들이다. '걷·도'의 가장 뒷 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자위원들은 편집위원 보다 '걷·도'를 더 열심히 그리고 꼼꼼히 읽어 오셔서 편집위원도 잘 생각하지 못했던 날카로운 질문과 부족한 점, 잘한 점 등을 상세히 이야기해주신다. 그래서 독자위원을 비유하자면 '걷·도'의 평론가이다.

그렇지만 25주년을 맞이해서 '걷·도'를 읽지만 평소에 독자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올해 배우자의 강권(?)으로 정기총회 이후 도시연대에 가입해서 '걷·도'를 접하시게 되었다는 A는 항상 포장지가 채 뜯겨지지 않은 채로 '걷·도'를 받아서 뜯으시지만 주로 앞의 목차를 보고 관심 있

는 주제를 읽으신다고 했다. 100여 쪽을 꼼꼼히 읽지 못해 죄송하다는 그는 그래도 '걷·도'의 주제가 도시공학을 전공한 자신의 관심과 잘 맞아떨어진다면 책을 보면 편집위원회의 노고(?)가 느껴진다고 했다. 아직 정식 회원은 아니지만 최근 1년 동안 도시연대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B는 회원이 아니라 '걷·도'를 받아보지는 않지만 자료로 심심찮게 쓰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걷·도'가 가지는 장점으로 논문 보다는 편하고 그렇다고 신문 기사 보다 도시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다루는 글에 있다고 하면서 하셨다. 다만 더 많

은 사람에게 '걷·도'가 읽힐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는 충고도 잊지 않으셨다. 도시연대의 활동가 2명의 선배로서 도시연대에 가입하게 됐다는 C는 '걷·도'에 대해 사실 잘 읽지 않고 쌓아놓을 때도 있다고 솔직히 말했다. 그래도 '걷·도'가 오면 후배들이 활동하고 자신이 오랜 기간 후원한 도시연대에서 하는 일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도시연대 활동에도 참여하고 '걷·도'도 잘 읽어보겠다는 말씀을 남겨주셨다. '걷·도' D 편집위원과 가족관계에 있는 E는 가끔 '걷·도'가 출간되기도 전에 교정지를 통해



『걷·도』를 읽기도 한다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계(學界)의 논문집 보다 『걷·도』가 훨씬 재미있다고 칭찬하시면서 재미도 있으면서도 시의성도 적절하다고 칭찬하셨다. 다만 E도 『걷·도』를 열정적으로 찾아 읽지는 않게 된다고 하셨다. 인터뷰를 끝내고 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감사하다는 생각이었다.

관찰기를 끝내며

10시경 이 인터뷰를 끝으로 나는 서둘러 의정부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2시간의 여정 속에서 관찰기를 썼고 11월 28일 오전 11시경에 이 관찰기를 다듬었다. 나에게 이 관찰기를 쓴 기억은 도시연대 25주년 그리고 『걷·도』 100호라는 사건과 함께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단순히 내가 이 글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느낌이 들어서다. 논리적으로 왜 감사한지는 모르겠다. 아마 내 인생 처음으로 만들고 있는 잡지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읽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것 같다. 그리고 그 기회를 준 도시연대에 대한 감사함, 또 이러한 잡지를 꾸준히 만들어주는 동료 편집위원들에 대한 감사함일 것이다. 훗날 누군가 『걷·도』를 100호처럼 훑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다.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정말 많습니다

보행자를 존중하는 도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생활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도시
다양한 계층이 소통하며 어울려 사는 도시

도시연대가 추구하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으로 우리 도시의 모습이 바뀔 수 있습니다
도시연대 회원으로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연대 회원이 된다면]

회원회비 납부를 통해 걷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각종 소모임과 자원활동을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변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총회에 참가하여 의결권 및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도시연대의 회의실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간지 『걷고싶은도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연대 발간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연대의 모든 행사에 초청되고, 행사참가비가 있을 경우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시연대 회원이 되는 방법]

온 라 인 : 도시연대 홈페이지(www.dosi.or.kr/memberpage)에서 회원되기
오프라인 : 도시연대 사무처(02-735-6046, dosi1994@daum.net)로 연락하기

2019. 09

평생회원

강병기, 권시형, 김금자, 김기남, 김연금, 김은혜(а), 김정민, 김한준, 김홍일, 노관섭, 류중석, 문홍길, 박병순, 배기욱, 안상욱, 여경락, 윤인숙, 이종원, 이주일, 전병선, 조은경, 조현세, 최용석

2019 연회원

200,000원

2월 김윤희
6월 김성보
7월 박소현
8월 윤기철
12월 문창용

150,000원

9월 황경수

100,000원

1월 안정연, 이춘홍
2월 정지혜, 이동숙, 윤세형
3월 원용준
4월 최순복
5월 박혜선, 최호진, 최인환
6월 김성보, 백신욱, 소보영, 송숙란, 정성빈
8월 신재훈, 허윤선
10월 강민구, 민혜경, 윤전우, 이주영
11월 김선아, 임희지
12월 김경희, 배기택, 이규복, 이한복, 조진성, 하춘

50,000원

8월 김민보

30,000원

2월 송영선

회비 납부 회원 명단

- ▶ **5,000원** 강대균, 강연주, 김대욱, 김수경, 김재영(а), 김지우, 노유진, 류상규, 류태희, 민경태, 박광범, 박세훈, 손관영, 손광식, 손희정, 송경호, 신세철, 심승희, 안태호, 양경진, 양창화, 엄홍석, 오태돈, 유현우, 이수아, 이 숙, 이영석, 이왕기, 이은정, 이주희, 이지원, 이지경, 이한울, 임명희, 임성빈, 임철희, 장남중, 장누리, 장정화, 전정욱, 정경모, 최원아, 한동규, 한승은, 한홍구, 홍순필, 황한음
- ▶ **10,000원** 강동진, 강선호, 강승연, 강주연, 고은설, 고정민, 고찬우, 구민지, 구자인, 권범철, 권오규, 권 일, 권태연, 권 한, 기아미, 김경민, 김기현, 김기호, 김남근, 김도년, 김동주, 김삼일, 김상규, 김상수, 김상신, 김선호, 김성욱, 김성일, 김성주, 김세용, 김소라, 김수성, 김수현, 김숙희, 김신성, 김영하, 김유란, 김은혜(а), 김은혜(б), 김은혜(с), 김인희, 김재영(б), 김재원, 김정대, 김정민, 김장빈, 김정연, 김정호, 김종규, 김종동, 김주석, 김지혜, 김진범, 김천근, 김태희, 김하진, 김한배, 김한울, 김현수, 김혜승, 남지희, 노경민, 노영순, 노희철, 류민환, 류승한, 류인목, 맹기돈, 문병섭, 문정석, 민동인, 박광희, 박미희, 박상아, 박상위, 박상필, 박선향, 박영민, 박용연, 박종기, 박종철, 박주희, 박준환, 박지연, 박진경, 박현영, 박홍근, 반영운, 방재성, 배성호, 배웅규, 배인영, 배종철, 백선혜, 백호정, 변창흠, 서관호, 서선영, 서성원, 서순탁, 서승환, 서한림, 설정임, 성수연, 손명선, 송미령, 송영석, 송은서, 송효웅, 신병윤, 신현오, 심경미, 심동석, 심은주, 안근철, 안승우(а), 안승우(б), 안영주, 안인섭, 안인항, 안찬모, 안치우, 안치환, 안현진, 안화연, 양기용, 양윤미, 양재섭, 양재혁, 양정필, 양한석, 여은미, 오대진, 오선영, 오순희, 오영해, 오재혁, 오주한, 오효경, 온수진, 원지연, 유나경, 유대영, 유승수, 윤서연, 윤정현, 윤혁경, 윤혜영, 윤희규, 이광제, 이권형, 이명구, 이미경, 이미란, 이민재, 이범훈, 이병설, 이보라, 이상민, 이상준, 이소영, 이영선, 이옥화, 이왕재, 이용연, 이원강, 이유경, 이윤재, 이윤지, 이은엽, 이의중, 이인재, 이일우, 이재수, 이정훈, 이재이, 이주연, 이주영, 이준석, 이준영, 이지영, 이진형, 이진호, 이채륜, 이창기, 이태문, 이호근, 이호정, 임유경, 임은미, 임정은, 장성규, 장영희, 장옥연, 장우연, 장윤영, 장준호, 전미현, 정남수, 정다음, 정문수, 정병두, 정 석, 정수연, 정수현, 정재훈(а), 정재훈(б), 정지범, 정희영, 정희선, 조미연, 조상은, 조성빈, 조영태, 조위래, 조은혜, 조재용, 조현지, 주민선, 주수원, 진영환, 진희선, 차주영, 채중세, 최강림, 최돈용, 최만순, 최명실, 최문환, 최보경, 최성용, 최성은, 최승희, 최재용, 최지연, 최지은, 최한솔, 최현우, 최혁규, 태윤재, 한국희, 한상욱, 한상진, 한수경, 한정근, 한정훈, 허 억, 허윤주, 홍미영, 홍승모, 홍주희, 황성린, 황영수, 황희연, 황희정
- ▶ **15,000원** 이해연, 임명택
- ▶ **20,000원** foodnstyle, 강미선, 강수남, 강현수, 김미영, 김민수, 김수진, 김수현, 김영옥, 김지은, 김찬호, 김현호, 노화동, 문승규, 박승배, 박재신, 박 훈, 방이정, 서진렬, 심병찬, 유재완, 윤주선, 이경자, 이동건, 이언화, 이영범, 이영은, 이은숙, 이주현, 이지경, 이재원, 이현선, 인태연, 전은호, 정상영, 정철주, 조현세, 최성혁, 최치환, 홍종선, 황명주
- ▶ **25,000원** 한상준
- ▶ **30,000원** 고정우, 김창근, 노상주, 류창수, 유규상, 이정민
- ▶ **40,000원** 송여진
- ▶ **50,000원** 김 율, 안현찬

2019. 10

회비 납부 회원 명단

- ▶ **5,000원** 강대균, 강연주, 김갑봉, 김대욱, 김수경, 김재영(а), 김지우, 노유진, 류상규, 류태희, 민경태, 박광범, 박세훈, 손관영, 손광식, 손희정, 송경호, 신세철, 심승희, 안태호, 양경진, 양창화, 엄홍석, 오태돈, 유현우, 이수아, 이 숙, 이영석, 이왕기, 이은정, 이주희, 이지원, 이지경, 이한울, 임명택, 임명희, 임성빈, 임철희, 장남중, 장누리, 장정화, 전정욱, 정경모, 최원아, 한동규, 한상준, 한승은, 한홍구, 홍순필, 황한음
- ▶ **7,000원** 황아미
- ▶ **10,000원** 강동진, 강선호, 강승연, 강주연, 고은설, 고정민, 고찬우, 구민지, 구자인, 권범철, 권오규, 권 일, 권태연, 권 한, 기아미, 기 일, 김갑봉, 김경민, 김기현, 김기호, 김남근, 김도년, 김동주, 김민성, 김삼일, 김상규, 김상수, 김상신, 김선호, 김성욱, 김성일, 김성주, 김세교, 김세용, 김소라, 김수성, 김수현, 김숙희, 김신성, 김영하, 김유란, 김은혜(а), 김은혜(б), 김은혜(с), 김인희, 김재영(б), 김재원, 김정대, 김정민, 김장빈, 김정연, 김정호, 김종규, 김종동, 김주석, 김지혜, 김진범, 김천근, 김태희, 김한배, 김한울, 김현수, 김혜승, 남지희, 노경민, 노영순, 노희철, 류민환, 류승한, 류인목, 맹기돈, 문병섭, 문정석, 박광희, 박미희, 박상아, 박상위, 박상필, 박선향, 박영민, 박종기, 박종철, 박준환, 박지호, 박진경, 박현영, 박홍근, 박 훈, 반영운, 방재성, 배성호, 배웅규, 배인영, 배종철, 백선혜, 백호정, 변창흠, 서관호, 서선영, 서성원, 서순탁, 서승환, 서진렬, 서한림, 설정임, 성수연, 손명선, 송미령, 송영석, 송은서, 송효웅, 신병윤, 신현오, 심경미, 심동석, 심은주, 안근철, 안승우(а), 안승우(б), 안영주, 안인섭, 안인항, 안찬모, 안치우, 안치환, 안현진, 안화연, 양기용, 양윤미, 양재섭, 양재혁, 양정필, 양한석, 여은미, 오대진, 오선영, 오순희, 오영해, 오주한, 오효경, 온수진, 유나경, 유대영, 유승수, 유재완, 윤서연, 윤정현, 윤혁경, 윤혜영, 윤희규, 이광제, 이권형, 이명구, 이미경, 이미란, 이민재, 이범훈, 이병설, 이보라, 이상민, 이상준, 이소영, 이영선, 이옥화, 이왕재, 이용연, 이원강, 이유경, 이윤재, 이윤지, 이은엽, 이의중, 이인재, 이일우, 이재수, 이정훈, 이재이, 이주연, 이주영, 이준석, 이준영, 이진형, 이진호, 이채륜, 이창기, 이태문, 이호근, 이호정, 임유경, 임은미, 임정은, 장성규, 장영희, 장옥연, 장우연, 장윤영, 장준호, 전미현, 정다음, 정문수, 정병두, 정상영, 정 석, 정수연, 정수현, 정재훈(а), 정재훈(б), 정지범, 정희선, 조미연, 조상은, 조성빈, 조영태, 조위래, 조은혜, 조재용, 조현지, 주민선, 주수원, 진영환, 진희선, 차주영, 채중세, 최강림, 최돈용, 최만순, 최명실, 최문환, 최보경, 최성용, 최성은, 최승희, 최재용, 최지연, 최지은, 최한솔, 최현우, 최혁규, 태윤재, 한국희, 한상욱, 한상진, 한수경, 한정근, 한정훈, 허 억, 허윤주, 홍미영, 홍승모, 홍주희, 황명주, 황성린, 황영수, 황희연
- ▶ **14,000원** 황아미
- ▶ **15,000원** 이해연
- ▶ **20,000원** foodnstyle, 강미선, 강수남, 강현수, 김미영, 김민수, 김수진, 김수현, 김지은, 김찬호, 김현호, 노화동, 문승규, 박소순, 박승배, 박재신, 박정진, 소준철, 심병찬, 윤주선, 이경자, 이동건, 이언화, 이영범, 이영은, 이은숙, 이주현, 이지경, 이재원, 이현선, 인태연, 전은호, 정철주, 조현세, 최성혁, 최치환, 해 램, 홍종선
- ▶ **30,000원** 오재혁, 원선미, 유규상, 조민숙
- ▶ **50,000원** 김 율, 안현찬

회비 납부 회원 명단

- ▶ 5,000원 강대균, 강연주, 기 일, 김대욱, 김수경, 김재영(a), 김지우, 노유진, 류상규, 류태희, 민경태, 박광범, 박세훈, 손관영, 손광식, 손희정, 송경호, 신세철, 심승희, 안태호, 양경진, 양창화, 엄홍석, 오태돈, 유현우, 이수아, 이 숙, 이영석, 이왕기, 이은정, 이주희, 이지원, 이치경, 이한울, 임명택, 임명희, 임성빈, 임철희, 장남중, 장누리, 장정화, 전정욱, 정경모, 천주현, 최원아, 한동규, 한상준, 한승은, 한홍규, 홍순필, 황한음
- ▶ 7,000원 황아미
- ▶ 10,000원 강동진, 강선호, 강승연, 강주연, 고은설, 고정민, 고정우, 고정우, 고찬욱, 구민지, 구자인, 권범철, 권오규, 권 일, 권태연, 권 한, 기아미, 김경민, 김기현, 김기호, 김남근, 김도년, 김동주, 김민성, 김상규, 김상수, 김상신, 김선호, 김성욱, 김성일, 김성주, 김세교, 김세용, 김소라, 김수성, 김수현, 김숙희, 김신성, 김영하, 김유란, 김은희(a), 김은희(b), 김은희(c), 김인희, 김재영(b), 김재원, 김정대, 김정민, 김정빈, 김정연, 김정호, 김종규, 김종동, 김주석, 김지혜, 김진범, 김천곤, 김태휘, 김한배, 김한울, 김현수, 김혜승, 남궁지희, 노경민, 노영순, 노희철, 류민환, 류승한, 류인목, 맹기돈, 문병선, 문정석, 박광희, 박미희, 박상아, 박상위, 박상필, 박선향, 박영민, 박용연, 박용연, 박정진, 박종기, 박종철, 박준환, 박지호, 박진경, 박현영, 박홍근, 박훈, 반영운, 방재성, 배성호, 배용규, 배인영, 배중철, 백선혜, 백호정, 변창흠, 서관호, 서선영, 서성원, 서순탁, 서승환, 서진렬, 서한림, 성수연, 소준철, 손명선, 송미령, 송영석, 송은서, 송효웅, 신병윤, 신현오, 심경미, 심동석, 심수림, 심수림, 심은주, 안근철, 안승우(a), 안승우(b), 안영주, 안인섭, 안인향, 안창모, 안현진, 안화연, 양기용, 양유미, 양재섭, 양재혁, 양정필, 양한석, 오대진, 오선영, 오순희, 오영해, 오재혁, 오주한, 오효경, 운수진, 원선미, 유나경, 유승수, 유재완, 윤서연, 윤정현, 윤혁경, 윤혜영, 윤효규, 이광제, 이권형, 이평구, 이미경, 이미란, 이민재, 이범훈, 이보라, 이상민, 이상준, 이소영, 이옥화, 이왕재, 이용연, 이원강, 이유경, 이윤재, 이윤지, 이은엽, 이의중, 이인재, 이일우, 이재수, 이정훈, 이재이, 이준석, 이준영, 이지영, 이진형, 이진호, 이채륜, 이충기, 이태문, 이호근, 이호정, 임유경, 임은미, 임정은, 장성규, 장영희, 장욱연, 장우연, 장윤영, 장준호, 전미현, 정다음, 정문수, 정상영, 정 석, 정수연, 정수현, 정재훈(a), 정재훈(b), 정지범, 정희선, 조미연, 조민숙, 조성빈, 조영태, 조위래, 조은혜, 조재용, 조현지, 주민선, 주수원, 진영환, 진희선, 차주영, 채중세, 최강림, 최돈용, 최만순, 최명실, 최문환, 최보경, 최성용, 최성은, 최승희, 최재용, 최지연, 최지은, 최한솔, 최현욱, 최혁규, 태운재, 한국희, 한상욱, 한상진, 한수경, 한정곤, 한정훈, 허 역, 허윤주, 홍미영, 홍승모, 황명주, 황성련, 황영수, 황지성, 황희연
- ▶ 15,000원 이해연
- ▶ 20,000원 foodnstyle, 강미선, 강수남, 강현수, 김미영, 김민수, 김수진, 김수현, 김지은, 김찬호, 김현호, 김혜민, 노화동, 문승규, 박소순, 박승배, 박재신, 박지연, 방이정, 윤주선, 이경자, 이동건, 이연화, 이영범, 이영은, 이은숙, 이주현, 이재원, 이현선, 인태연, 전은호, 정철주, 조현세, 최성혁, 최치환, 해람, 홍중선, 황희정재원, 이현선, 인태연, 전은호, 정철주, 조현세, 최성혁, 최치환, 해 람, 홍중선, 황희정
- ▶ 30,000원 김창근, 노상주, 류창수, 심수림, 유규상
- ▶ 50,000원 김 울, 안현찬

회비를 납부했지만 명단에서 성함이 누락된 분들은 도시연대 사무처 (02-735-6046, dosi1994@daum.net)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걷고싶은도시』에 대해 자주 받는 질문과 답변

질문 : 『걷고싶은도시』를 구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걷고싶은도시』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PDF 읽기

도시연대에서 발행하는 모든 자료는 회원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만큼 누구라도 필요할 때 열람할 수 있도록 도시연대 홈페이지(www.dosi.or.kr) '서재' 게시판(종류별 보기-기관지)에서 무료로 배포,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쇄본 읽기

도시연대 회원 되기

『걷고싶은도시』가 인쇄되는 즉시 도시연대 사무처에서 회원에게 1부 씩 보내드립니다. 도시연대 회원이 되면 도시연대에서 발간되는 자료집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걷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도시연대 회원이 되는 방법

온 라 인 : 도시연대 홈페이지(www.dosi.or.kr/memberpage)에서 가입하기
 오프라인 : 도시연대 사무처(02-735-6046, dosi1994@daum.net)로 연락하기

인쇄본 구매하기

『걷고싶은도시』 구매하기

비회원은 『걷고싶은도시』 1권 당 15,000원(회비가 5,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연대 사무처로 연락해 주시면 사무처에서 주소와 연락처,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걷고싶은도시』를 보내드립니다.



도시연대 발간
도서 목록
1994-2018년

- 자전거
 - 2009 자전거 도시 만들기
 - 2008 가게 앞 소규모 자전거보관대 만들기
 - 2007 상업지역에 작은 자전거보관소 만들기 - 가게 앞 자전거
 - 2006 자전거조례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연결되기 위한 조건
 - 2005 하천변 자전거도로 교통로 활성화 방안 연구
 - 2004 자전거 임대제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
 - 2003 5개 도시 자전거 이용시설 및 이용자 모니터링 조사결과
 - 2003 지하철과 연계를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 2002 자전거 조례 표준화를 위한 연구
 - 2002 인천시 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 2002 대형마트 자전거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
 - 2001 자전거를 달리게 하자
 - 2001 자전거 보관소 실태 조사결과 및 이용 활성화 정책 제안
 - 2000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배우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
 - 2000 5개 도시 자전거 도로 현황 및 정책방향에 관한 제언
 - 1999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가 없다
 - 1999 서울시 자전거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 1998 걷고싶은 도시, 달리고 싶은 자전거도로
 - 1994 제1회 교통과 환경 포럼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안(내무부 입법안) 평가 및 활성화 방안

- 주민참여
 - 2002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의견조사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 1999 제2회 전국워크숍 자료집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주민참여에 대하여-사례발표를 중심으로」
 - 1999 제1회 전국워크숍 자료집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주민참여에 대하여-사례발표를 중심으로」

- 커뮤니티디자인
 - 2017 「주민참여형 화재대응 매뉴얼 만들기」 용역 최종보고서
 - 2017 좋은 장소 만들기 시범프로젝트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분석 및 방향 제안 연구
 - 2014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적용한 천호3동 이야기가 흐르는 골목길 사업 기본계획 보고서
 - 2012 2012 봄, 커뮤니티 디자인 워크숍 "함께 만드는, 더불어 사는 세상"
 - 2009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옥상녹화를 통한 커뮤니티 장소 만들기
 - 2009 공공디자인 커뮤니티 장소디자인
 - 2009 친환경 놀이터 리모델링 사업 - 남양주시 도농 4호 어린이 놀이터
 - 2005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디자인

- 놀이터
 - 2017 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토론회 "자유로운 놀이공간을 규제하는 안전기준" 자료집
 - 2015 모든 어린이를 위한 통합놀이터 만들기 "무장애 통합놀이터 매뉴얼"
 - 2009 남양주시 도농 4호 어린이놀이터

- 인사동
 - 2005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2005 인사동 학교 자료집)
 - 2005 인사동 뉴스레터 vol.2
 - 2004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2004 인사동 학교 자료집)
 - 2004 인사동 뉴스레터(영문판)
 - 2004 인사동 뉴스레터
 - 2003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2003 인사동 학교 자료집)
 - 2002 인사동, 사람과 이야기
 - 2002 인사동 다가가기 (2002 인사동 학교 자료집)
 - 2002 5월 5일 어린이와 함께 인사동 역사문화 배우기
 - 2001 인사동 학교2001 - 인사동 바로알기 그리고 느껴보기
 - 2000 인사동 거리문화축제
 - 2000 2000년 인사동 학교 - 인사동 바로알기
 - 1999 인사동 「작은가게 살리기 운동,자료모음
 - 1999 인사동 살펴보기 - 브로셔
 - 1999 인사동 살펴보기 - 가이드북
 - 1999 5월 5일 어린이날 인사동 살펴보기
 - 1998 인사동 역사문화탐방지도 「인사동 살펴보기」
 - 1997 인사동거리 활성화 방향과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북촌
 - 2008 엄마가 만드는 북촌 마을계획
 - 2003 애들아, 북촌 가자
 - 2002 Bukchon Culture - Tour 2
 - 2002 어린이와 함께 우리동네 북촌 살펴보기
 - 2002 북촌이야기-시간과 공간, 공간과 사람 이어가기
 - 2002 2002 북촌문화학교
 - 2001 Bukchon Culture - Tour
 - 1999 역사와 문화가 있는 종로가꾸기는 시민의 손으로

- 한강시민공원
 - 2000 한강시민공원 안내지도 - 잠실지구

- 인천
 - 2003 인천 중구 구도심권 지역활성화와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 2003 인천 바다이야기(인천 바다에 숨어있는 열가지 이야기)
 - 2003 인천 개화기 풍속도
 - 2002 인천 이야기- 인천 근대 개항장 가이드 북

- 부평문화거리
 - 2008 주민과 함께 하는 부평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 2001 부평 문화의 거리, 새로운 출발을 향하여
 - 2000 부평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1999 문화의 거리 조성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 부평문화의 거리를 사례로

쓰고싶은도시

쓰고싶은도시

쓰고싶은도시